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

조혜정



INCHEON
INSTITUTE



· 문화여가 분야 ·

연구책임

조혜정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참여

김지선 도시경영연구실 전임연구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변화를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감소한 반면, 기대 수명은 증가함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의 축소로 자녀가 없는 세대, 1인 가구가 및 외국인의 국내 거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인천시도 2035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고령화에 따른 불균형 문제,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갈등 심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계층의 변화 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문화여가 분야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여가활동 및 사회적 교류에 대한 관심 증가, 1인 가구의 차별화된 문화 향유 요구,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화여가 분야의 여건 및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인천시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여가 분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2) 연구범위 및 방법

- 내용적 범위
 - 인구구조 변화와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 인천시 인구구조 현황 및 문화여가 관련 실태분석

- 관련 사례분석

-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관련 정책,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논문, 홈페이지 등

- 사례조사 : 관련문헌, 인터넷 자료

- 자문회의 : 정책방향 관련 자문

2.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변화와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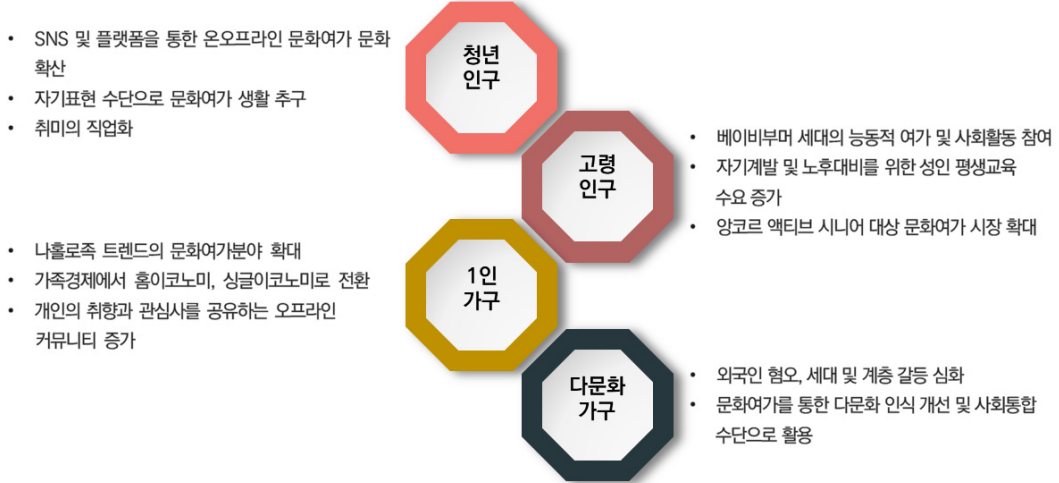
1) 인구구조 변화와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트렌드 변화는 관련 문헌 및 기사 등을 토대로
거시적인 환경변화 분석을 위해서 STEE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이슈를 도출
하고 향후 문화여가 분야에 미칠 트렌드 변화를 분석함

[요약 그림 1] STEEP분석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변화



[요약 그림 2] 대상별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변화



2)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 문제 대두 등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관련 계획으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등 수립
 - 다문화·외국인 관련 계획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등 추진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2019),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2020) 등 인구구조 변화 정책 및 청년의 삶 개선방안(2020) 등 청년 지원정책 발표
 - 그 외,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등 문화여가 기본계획에서 인구변화 관련 정책 제시

3. 현황 및 실태분석

1)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및 특성

- 인천시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96만 명으로 전국 5,185만 명 대비 5.7% 수준이며, 20년간(2000~2020) 간 연평균 0.8% 증가하여 전국 연평균 증가율(0.4%)을 상회함
 - 인천시 인구수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 인천시 군·구별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서구가 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 규모이며, 남동구 53만 명(18.0%), 부평구 51만 명(17.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용진군 2만 명(0.7%), 동구 6만 4천명(2.2%), 강화군 6만 9천 명(2.3%) 순으로 낮게 분석
- 인천시 영유아 인구¹⁾는 2010년 152,329명(전국의 5.6%)에서 2020년 1월 기준 132,155명(5.8%)으로 연평균 1.4% 감소 추세임
 - 군·구별로는 2012년 이후 서구(19.9~22.1%),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용진군, 강화군, 동구의 영유아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청년인구²⁾는 2010년 896,752명(전국의 5.6%)에서 2020년 1월 기준 861,755명(5.9%)으로 연평균 0.4% 감소 추세임
 - 군·구별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부평구(18.9%~21.0%)의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8년부터는 서구(18.7%~18.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용진군, 강화군, 동구 지역의 청년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고령인구³⁾는 2010년 237,805명(전국의 4.3%)에서 2020년 1월 기준 387,385명(4.8%)으로 연평균 5.0% 증가 추세임
 - 군·구별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부평구(18.1%~19.7%)와 남동구, 미추홀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용진군(1.3%~1.5%), 동구, 중구, 강화군의 인천시 내 고령인구 비율은 낮게 나타남

1) 영유아 인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청년인구는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3) 고령인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 인구총조사⁴⁾에 따르면, 인천시 1인 가구 수는 2000년 97,127가구(전국의 4.4%)에서 2018년 275,898가구(4.7%)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2000~2018) 6.0% 증가 추세임
- 군·구별로는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의 1인 가구 수가 높게 나타나며, 연평균 증가율은 중구(8.7%), 서구(7.7%), 남동구(7.5%), 용진군(7.4%) 순임
- 인천시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수 비율은 2018년 기준 25.2%로 전국 9개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남

2) 인천시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인천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청년인구 등과 관련된 문화여가 분야의 지원정책을 제시함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15) 및 인천 2030 미래이음(2020)에서는 청년 및 고령인구,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관련된 문화여가 정책 제시
- 저출산, 청년, 고령사회 등 대응계획에서는 대상별 문화여가 공간 조성, 관련 모임 및 문화여가비 지원, 일자리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수립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7) 및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에서는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및 세대 통합 및 문화 다양성 증진 사업 등 제시
-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사업은 문화관광국, 건강체육국, 복지국, 해양항공국, 여성가족국,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추진 중임
- 주요 사업은 영유아·청년·노인 대상 문화여가 공간 조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다문화가족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청년·노인 대상 문화여가비 지원 등

4) 인구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 등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비해 1인 가구 현황을 분석하기에 적합함.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까지 5년주기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년 주기로 진행됨. 단, 조사 기준은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3) 인천시 문화여가 관련 실태분석

-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가·문화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승인통계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가·문화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함
- 분석은 여가·문화 인식, 여가·문화 실태, 여가·문화 성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항목은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및 참여 활동, 참여 여가활동, 공간 및 지출, 여가활동 및 공간 만족도 등임

[요약 표 1] 분석 활용 자료

구분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노인실태조사	인천광역시 청년 실태조사
조사목적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 파악	국민의 문화향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문화 향유 경로와 방식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노인정책 및 향후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인천시 청년들의 취·창업, 참여, 주거, 문화 등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정책수요 도출
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천광역시
조사년도 (주기)	2018년 (2년)	2019년 (1년)	2017년 (3년)	2019년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15세 이상 남녀	전국 17개 시·도 만15세 이상 남녀	전국 17개 시·도 만65세 이상 남녀	인천광역시 거주 만19~39세 남녀
표본수	10,498명 (인천시 : 청년) 200명 *20대 97명, 30대 103명 (인천시 : 노인) 140명 *60대 78명, 70대 이상 62명	10,102명 (인천시 : 청년) 201명 *20대 97명, 30대 104명 (인천시 : 노인) 147명 *60대 91명, 70대 이상 56명	10,299명 (인천시) 485명 *60대 164명, 70대 204명, 80대 이상 118명	(인천시) 2,007명 *20대 746명, 30대 1,261명
주요 조사 내용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 공간 이용 실태,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여가 인식, 여가만족도 등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실태,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현황,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용 경험 및 방문의향, 동호회 참여 경험 등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실태,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 활동, 사회·여가문화 활동 만족도 등	여가활동 실태, 문화공간 이용경험, 교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참여 실태, 청년 문화생활 활성화 정책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11.),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인천광역시(2019.11.),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 여가·문화 인식 개선 및 교육을 통한 체계적 여가·문화 조성 필요
 - 여가 중심 사회로의 전환 및 수명 연장 등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로 여가·문화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가·문화 인식 및 여가 시간 활용은 미흡
 - 청년의 평일 하루 여가시간(2.6시간)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변화 인식(4.2점/7.0점), 여가 인식(5.2점/7.0점) 및 행복 수준(6.7점/10.0점)이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조사
 - 노인의 여가 인식(5.2점/7.0점)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평일 하루 여가시간(3.8시간), 행복 수준(6.4점/10.0점)은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분석
 - 삶의 질과 행복 수준 제고를 위해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연령대별 여가·문화 교육 진행 필요
- 수요자별 이용 실태를 반영한 여가·문화 공간 확충
 - 다양한 여가시설에 대한 정책 니즈가 나타났으며, 수요자별 여가·문화공간 이용 실태는 상이하게 분석
 - 다양한 여가시설에 대한 여가정책 중요도는 청년(5.8점/7.0점) 및 노인(5.7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구와 미추홀구 거주 청년의 문화예술·여가시설 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게 조사
 - 수요자별 여가·문화공간 이용 실태 및 니즈에 따라 지역 내 여가·문화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 제기
-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강화
 - 여가활동은 TV시청 등 휴식 활동과 인터넷 검색, 쇼핑/외식 등 취미오락 활동, 문화예술 행사는 영화 관람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소극적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
 - 여가·문화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행사의 내용 및 프로그램의 수준 제고 필요
-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참여 여가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 활동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노인 여가활동으로 인식되나, 실제 자원봉사 활동 경험률이 낮고, 참여 활동이 제한적

- 노인의 지난 1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응답자의 2.7% 수준으로 타 특·광역시도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분야(61.5%)의 단순 노력봉사가 83.3%로 조사
- 노인의 주체적인 삶과 자아정체성의 실현 측면에서 다양한 취미·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 여가·문화 정책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시민이 인식하는 여가·문화 활동 참여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여가·문화 지원정책 개발 필요
 - 청년은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 시간 부족(5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움 역시 시간부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노인의 경우,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 부담(53.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움도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응답
 - 수요자별 여가·문화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추진 필요
 - 청년의 경우, 다양한 여가시설 및 공휴일·휴가 법정보장(5.8점/7.0점)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은 다양한 여가시설 및 동호회 육성·지원 정책(5.7점)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4. 관련 사례분석

1) 분석 개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정책 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 문화여가 정책 동향 및 해외 사례 분석을 진행함
 - 국내 정책 동향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도 9개 지역의 영유아·청년·고령인구, 1인가구, 다문화·외국인 등 인구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연관계획 검토
 - 해외 사례는 해외 선진국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문화여가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문화여가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포함하여 분석 진행

[요약 표 2] 사례분석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국내정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대상) 수도권 및 특·광역시도 9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 특·광역시도 :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 (기준년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수립되었거나 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포함하는 정책 포함 • (분석기준) 인구 관련 법률에 기반한 기본계획 및 연관계획 상 문화여가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 관련 계획 : 지자체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 - 고령인구 관련 계획 : 지자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근거 - 영유아·저출산 관련 계획 : 지자체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청년인구 관련 계획 : 지자체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 - 1인 가구 관련 계획 : 지자체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 다문화·외국인 관련 계획 : 지자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
해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대상) 해외 선진국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 • (기준년도) ~2020년 • (분석내용)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문화여가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저출산, 청년인구, 고령인구, 1인 가구, 다문화·외국인 등 대상별 분석 - 세대통합, 문화통합 등 문화여가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 포함

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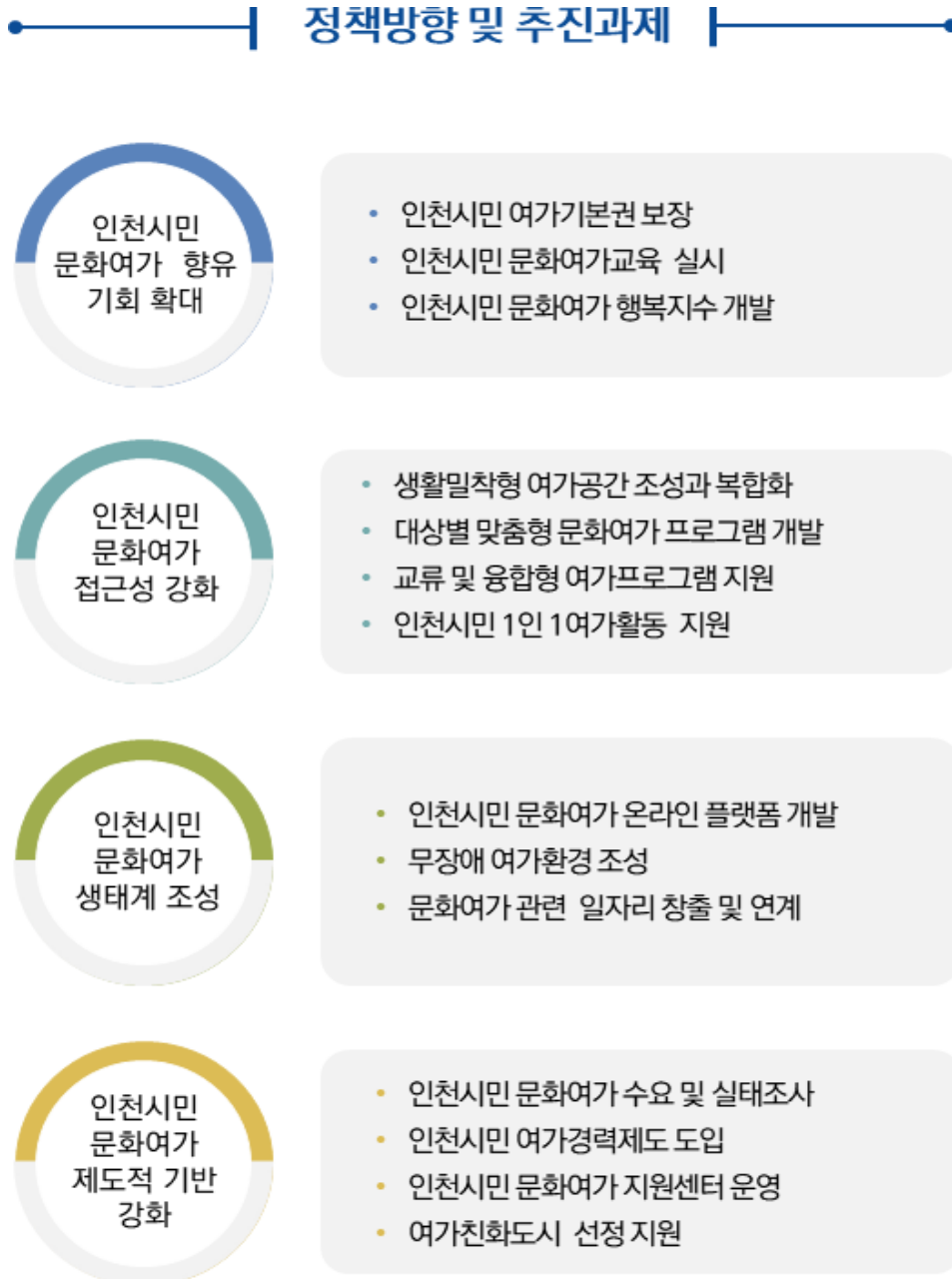
-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 기본계획 및 대응방향을 수립하여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과 정책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 제안
 - 국내 정책 동향에서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은 문화여가의 인식 확산 및 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와 연계된 문화여가활동 지원, 교류와 통합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
- 해외 사례분석 결과 해외사례에서는 대상과 계층별 인구정책의 방향보다는 주체 간 연계 및 통합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독일, 일본 등 인구정책을 우선 추진한 국가들의 선행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편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 제시(이소영 외, 2019.9)
-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노인과 영유아 및 청소년과의 세대통합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예술을 매개로 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교류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 대상의 사례에서는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청년 예술가 육성 및 청년 대상 프로그램 확충 등을 제시
- 노인과 관련한 사례에서는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및 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
- 1인 가구와 관련한 사례로는 공용공간 및 커뮤니티 구축, 상호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시

5. 정책방향

- 인구구조 변화를 둘러싼 최근 정책 이슈와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변화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정책 방향을 4가지 영역으로 제안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안함

[요약 그림 3] 인천시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3. 연구수행체계	5

2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변화와 정책 동향

1. 인구구조 변화와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9
2.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12

3 현황 및 실태분석

1.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및 특성	17
2. 인천시 관련 정책 추진현황	45
3. 인천시 문화여가 관련 실태분석	49

4 관련 사례분석

1. 개요	95
2. 국내 정책 동향	96
3. 해외 사례분석	101
4. 시사점	108

5 정책방향

1. 정책방향	111
2. 추진과제	113

참고문헌	129
------------	-----

표 차례

[표 2-1]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트렌드	9
[표 2-2]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계획 및 정책 동향	12
[표 3-1] 인천시 인구변화 추이(2000년~2020년)	18
[표 3-2] 인천시 군·구별 인구변화 추이(2010년~2020년)	19
[표 3-3] 인천시 군·구 연령별 인구수 및 구성비 현황(2020.1. 기준)	20
[표 3-4] 인천시 군·구별 출생아 수 추이(2000년~2018년)	21
[표 3-5] 인천시 군·구별 사망자 수 추이(2000년~2018년)	22
[표 3-6] 인천시 군·구별 자연적 증감 추이(2000년~2018년)	23
[표 3-7] 수도권 시도별 인구이동 추이(2000년~2019년)	24
[표 3-8] 인천시(수도권-비수도권 간) 전입사유별 순이동 추이(2009년~2019년)	25
[표 3-9] 인천시 연령별 순이동 추이(2000년~2019년)	26
[표 3-10] 수도권 시도별 연령별 순이동 추이(2000, 2009, 2019)	27
[표 3-11] 인천시 군·구별 순이동 추이(2000년~2019년)	28
[표 3-12] 인천시 인구 증감요인	28
[표 3-13] 전국 및 인천시 영유아 인구 추이(2010년~2020년)	29
[표 3-14] 전국 및 인천시 청년인구 추이(2010년~2020년)	30
[표 3-15] 전국 및 인천시 연령별 청년인구수 및 구성비 현황(2020.1. 기준)	31
[표 3-16] 전국 및 인천시 고령인구수 및 구성비 추이(2010년~2020년)	32
[표 3-17] 전국 및 인천시 인구 대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2010년~2020년)	33
[표 3-18]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1인 가구 추이(2000년~2018년)	34
[표 3-19] 전국 및 특·광역시도 1인 가구 현황(2018년)	34
[표 3-20] 전국 및 인천시 1인 가구 수 및 증가율(2000, 2018)	35
[표 3-21] 전국 및 인천시 1인 가구 비율(2000, 2018)	35
[표 3-22] 전국 및 인천시 군·구 연령대별 1인 가구 수 및 구성비 현황(2018년)	36
[표 3-23] 전국 및 인천시 외국인 현황 추이(2009년~2018년)	37
[표 3-24] 인천시 군·구별 외국인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38
[표 3-25] 인천시 군·구별 외국인 수 및 구성비 현황(2018년 기준)	39
[표 3-26] 전국 및 인천시 다문화 가구 추이(2016년~2018년)	40
[표 3-27]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 가구 수 및 구성비 현황(2018년 기준)	41

표 차례

[표 3-28] 전국 및 특·광역시도 인구 전망(2017년~2047년)	42
[표 3-29] 인천시 인구구조별 인구 전망(2017년~2047년)	43
[표 3-30] 전국 및 인천시 1인 가구 수 및 구성비(2017년~2047년)	44
[표 3-31] 인천시 연령별 1인 가구 수 및 구성비 추이(2017년~2047년)	44
[표 3-32]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계획	45
[표 3-33]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사업	47
[표 3-34] 분석 항목	49
[표 3-35] 분석 활용 자료	50
[표 3-36] 청년 참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61
[표 3-37] 노인 참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79
[표 3-38] 청년 분야 분석 결과 요약	91
[표 3-39] 노인 분야 분석 결과 요약	92
[표 4-1] 사례분석 개요	95
[표 4-2] 인구변화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96
[표 4-3] 영유아·저출산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96
[표 4-4] 청년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97
[표 4-5] 고령화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99
[표 4-6] 1인 가구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100
[표 4-7] 외국인·다문화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100
[표 4-8] 인구변화 관련 문화여가 사례	101
[표 4-9] 청년 관련 문화여가 사례	103
[표 4-10] 고령화 관련 문화여가 사례	105
[표 4-11] 1인 가구 관련 문화여가 사례	107
[표 5-1] 지자체 여가 관련 조례	113
[표 5-2] 자가진단 여가행복지수	116
[표 5-3] 인천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내용	11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5
[그림 3-1] 인천시 인구수 및 증가율 추이(2000년~2020년)	17
[그림 3-2] 청년 문화예술 활동 변화 인식	51
[그림 3-3] 청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	51
[그림 3-4] 청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걸림돌	52
[그림 3-5] 청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보완점	52
[그림 3-6] 청년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중요한 기준	53
[그림 3-7] 청년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	53
[그림 3-8] 청년 문화예술교육 걸림돌	54
[그림 3-9] 청년 문화예술행사 관람 활동 실태 및 의향, 만족도	55
[그림 3-10] 청년 문화예술행사 참여 활동 실태 및 의향, 만족도	56
[그림 3-11] 청년 문화예술 활동 공간	57
[그림 3-12] 청년 문화예술 활동 공간 내 프로그램 참여 의향	57
[그림 3-13] 청년 문화예술행사 관련 지출 실태 및 지출 의향	58
[그림 3-14] 청년 문화예술교육 경험	59
[그림 3-15] 청년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형 및 이수 의향, 만족도	59
[그림 3-16] 청년 참여 여가활동	60
[그림 3-17] 청년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61
[그림 3-18] 청년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62
[그림 3-19] 청년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62
[그림 3-20] 청년 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63
[그림 3-21] 청년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63
[그림 3-22] 청년 휴가 사용	64
[그림 3-23] 청년 여가활동 주 목적	64
[그림 3-24] 청년 월평균 지출액 및 적절 여가비용, 여가비 충분도	65
[그림 3-25] 청년 이용 여가 공간	66
[그림 3-26] 청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66
[그림 3-27] 청년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	67
[그림 3-28] 청년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68

그림 차례

[그림 3-29] 청년 여가활동 만족도	68
[그림 3-30] 청년 공공시설 여가 공간 만족도	69
[그림 3-31] 청년 민간시설 여가 공간 만족도	69
[그림 3-32] 청년 거주 지역 불만족 이유	70
[그림 3-33] 노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	70
[그림 3-34] 노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걸림돌	71
[그림 3-35] 노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보완점	71
[그림 3-36] 노인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중요한 기준	72
[그림 3-37] 노인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	72
[그림 3-38] 노인 문화예술교육 걸림돌	73
[그림 3-39] 노인 문화예술행사 관람 활동 실태 및 의향, 만족도	73
[그림 3-40] 노인 문화예술행사 참여 활동 실태 및 의향, 만족도	74
[그림 3-41] 노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75
[그림 3-42] 노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내 프로그램 참여 의향	76
[그림 3-43] 노인 문화예술행사 관련 지출 실태 및 지출 의향	76
[그림 3-44]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	77
[그림 3-45] 노인 문화예술교육 이수 의향	78
[그림 3-46] 노인 참여 여가활동	79
[그림 3-47] 노인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80
[그림 3-48] 노인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	80
[그림 3-49] 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81
[그림 3-50] 노인 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81
[그림 3-51] 노인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82
[그림 3-52] 노인 휴가 사용	82
[그림 3-53] 노인 여가활동 주목적	83
[그림 3-54] 노인 월평균 지출액 및 적절 여가비용, 여가비 충분도	83
[그림 3-55] 노인 이용 여가 공간	84
[그림 3-56] 노인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85
[그림 3-57] 노인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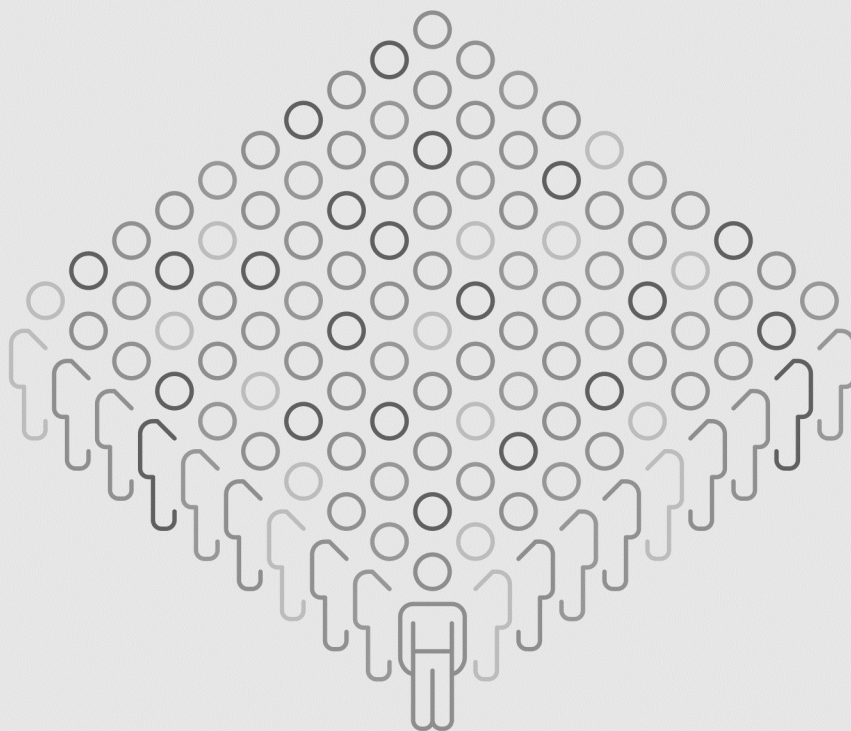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3-58] 노인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86
[그림 3-59] 노인 여가활동 만족도	86
[그림 3-60] 노인 공공시설 여가 공간 만족도	87
[그림 3-61] 노인 민간시설 여가 공간 만족도	87
[그림 4-1] 인구변화 관련 문화여가 사례	102
[그림 4-2] 청년 관련 문화여가 사례	104
[그림 4-3] 아일랜드 Age & Opportunity 사례	106
[그림 4-4] 1인 가구 관련 문화여가 사례	107
[그림 5-1] 인천시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12
[그림 5-2]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118



1

연구 개요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변화를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감소한 반면, 기대 수명은 증가함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의 축소로 자녀가 없는 세대, 1인 가구가 및 외국인의 국내 거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7년 기준 82.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일본 84.2년)에 속하며 OECD 가입국 중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름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768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
 - 1인 가구(585만가구, 29.3%)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 2018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205만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4% 차지
- 인천시도 2035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고령화에 따른 불균형 문제,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갈등 심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계층의 변화 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문화여가 분야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여가활동 및 사회적 교류에 대한 관심 증가, 1인 가구의 차별화된 문화 향유 요구,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화여가 분야의 여건 및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인천시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여가 분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

- 연구기간은 2020년 3월~9월
- 관련자료의 문헌 검토는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실시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체 및 군국별 현황

내용적 범위

- 인구구조 변화와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 인천시 인구구조 현황 및 문화여가 관련 실태분석
- 관련 사례분석
-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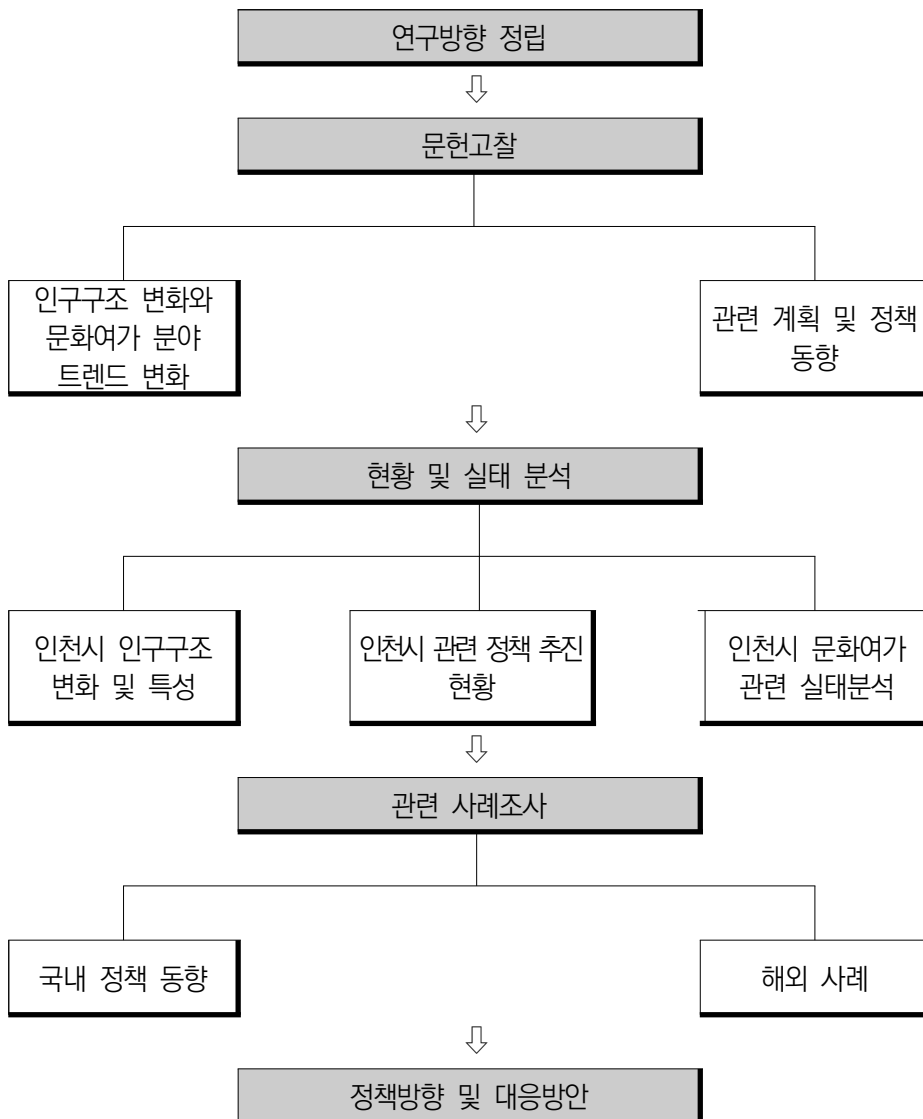
2)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관련 정책,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논문, 홈페이지 등
- 사례조사 : 관련문헌, 인터넷 자료
- 자문회의 : 정책방향 관련 자문

3. 연구수행체계

- 문헌연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를 파악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함
- 인천시의 현황 및 실태를 기존 문헌자료,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함
-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천시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제언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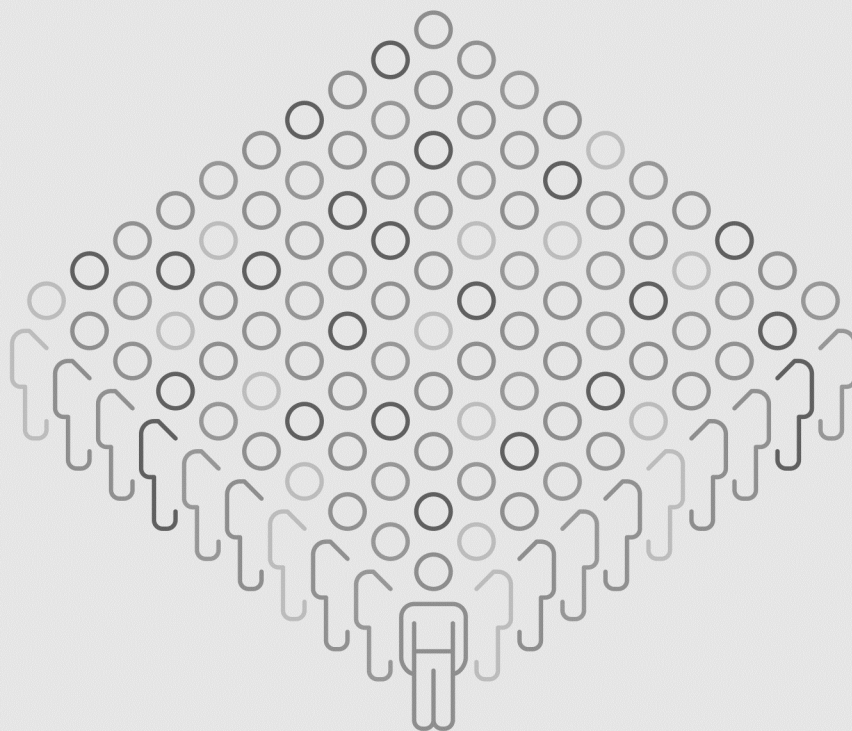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변화와 정책 동향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변화와 정책 동향

1. 인구구조 변화와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트렌드 변화는 관련 문헌 및 기사 등을 토대로 거시적인 환경변화 분석을 위해서 STEEP 분석⁵⁾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문화여가 분야에 미칠 트렌드 변화를 분석함
- 기술의 발전과 워라밸 문화의 확산,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정치, 기술,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변화에 따라 다음 <표 2-1>과 같이 나타남
 - 대상별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변화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나홀로족 등장, 고령인구의 문화여가 시장 확대, SNS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 등이 나타남

[표 2-1]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트렌드

구분	일반 특징	문화여가 트렌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라밸 문화의 확산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 증대 • 팬슈머의 등장으로 소비자에서 프로슈머로 변화 • 비대면사회로의 전환과 위험대응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등 오프라인 공간이 온라인 공간으로 대체 - 대중문화 등 밀집 서비스 쇠퇴 • 안전에 대한 욕구와 홈 루덴스 문화 확산 •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피로 누적, 코로나 블루로 불안과 우울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중 여가시간 증대로 퇴근후 여가문화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데이 클래스, 동호회 등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 직장인, 등 여가소비층의 다양화와 맞춤형 강좌 확대 •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콘텐츠의 생산·소비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적으로 콘텐츠 생산·홍보 및 기획 참여 •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예술과 여행의 일상화 • 문화여가 산업의 비대면화에 따라 언택트 공연, 전시, 관광 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보다 야외활동, 아웃도어 레저, 캠핑 등 선호 • 힐링, 웰니스, 자연친화적 문화여가 및 관광 증대

5) STEEP 분석은 관련 주제의 거시 환경 트렌드의 영향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 (Environment) 및 정치/규제(Politics/Regulation)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임.

[표 2-1] 계속

구분		환경 변화	문화여가 트렌드
공통	기술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IoT,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혁명 도래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는 초개인화 기술 발달 -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양극화와 일자리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분야의 비대면·온라인 향유 일반화와 기술 기반의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연계 랜선여행 출시 - VR, AR 등 실감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대 • 빅데이터, AI, IoT와 연결한 문화여가 산업 서비스 창출 - 소비자의 상황과 니즈를 파악하고 예측하여 문화여가 상품 마케팅 - 정보 공유, 예약 등 기술 기반 서비스 창출
	경제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 기반의 디지털 경제 가속화 - 스마트 미디어·1인 미디어의 발달과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성화 - 디지털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 발생 • 공유 경제와 온디맨드 경제, 각 경제로의 이행 •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생활로의 전환 • 구체화된 체험활동과 고객시장의 세분화 - 개인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끼지 않는 소비심리 확대 - 소확행, 가심비 등 가치소비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와 1인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제작 시장의 확대 • 여가관광 분야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확산 - 숙박, 이동수단, 여행용품, 경험 등 •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의 구매, 다운로드 시대에서 스트리밍 라이프프로 변화 - 언택트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유튜브 공연 실황 등으로 확대 • 선호 여가취미, 관광활동의 구체화 및 다양화로 특화 시장 창출 - 미술분야의 경우, 여행스케치, 수채화, 동양화 등으로 세분화 - 전문화된 개인 맞춤형 관광 니즈 확대 • 내만을 위한 소비 심리에 따른 럭셔리 여가문화 시장 확대
	환경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에 따른 에코 라이프 부상 - 기후변화 대응 요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관광과 가치를 중시하는 여행 - 기후변화, 플라스틱 소비 근절 등 환경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 증대 - 관광목적지가 지역주민의 일상공간으로 확대되며, 공정과 책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관광문화 확산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 세계화 퇴조와 국제 연대, 국가 간 상호의존성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위축에 따른 국내여행 중심의 여가관광 확대

[표 2-1] 계속

구분		일반 특징	문화여가 트렌드
대상별	영유아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게 의존적인 밀레니어 세대의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부모, 조부모 등 다세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와 관광시장 확대 - 호텔 내 별도의 키즈 라운지와, 어덜트 풀, 조부모 대상 내추럴 트래킹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재미와 즐거움, 경험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사회진출 • SNS를 통한 자기표현과 다양한 정체성 형성 • 취미의 직업화와 새로운 직업 발굴 및 창업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및 플랫폼을 통한 온·오프라인 문화여가 모임 발달 • 직업 외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여가생활을 추구하고, 문화여가를 직업으로 연결 - SNS를 통해 취미를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해비 프리너 등장
	고령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작 • 은퇴후에도 능동적으로 여가 및 소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앙코르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발 및 노후대비를 위한 성인 교육 수요 증가 • 경제력 있는 앙코르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 및 관광 시장 확대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가족경제에서 홀이코노미, 싱글이코노미로 전환 - 혼밥, 혼술 등 나홀로족과 소비 트렌드 •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홀로족 트렌드의 문화여가 분야로의 확대 - 혼행(혼자하는 여행), 혼영(혼자보는 영화) 등 •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 독서, 요리, 영화, 음악, 공간 공유 등
	다문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혐오, 세대 및 계층 갈등 등 사회적 갈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를 통한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정책 추진

자료 : 김난도 외(2019), 트렌드 코리아 2020; 이노션월드와이드(2019.12.), 대한민국 직장인 여가 트렌드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정민(2019.1.25.). 2019년 국내 10대 트렌드; 홍준표(2020.1.23.).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17.12.14.). 빅데이터로 살펴본 17/18 여행 트렌드는 S.T.A.R.T.;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18.12.17.). 소셜 빅데이터로 살펴본 2019 국내여행 트렌드는 B.R.I.D.G.E.; 한국관광공사(2019.12.27.), 2020년 세계여행 트렌드; 김혜인·김연진(2018),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이원희(2020.6.16.), 키워드로 보는 2020-2024 관광트렌드 : NEXT TRAVEL; 대한상공회의소(2018), 인구변화에 따른 소비시장 新풍경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미래전략TF(2020.6.5.), 코로나 19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전망 및 유망기술; 이원희·박주영·조아라(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임학순(2020.6.2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강신겸(2020.6.2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관광정책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2.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 문제 대두 등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표 2-2] 참고)
- 저출산·고령화 관련 계획으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등 수립
- 다문화·외국인 관련 계획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등 추진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2019),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2020) 등 인구구조 변화 정책 및 청년의 삶 개선방안(2020) 등 청년 지원정책 발표
- 그 외,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등 문화여가 기본계획에서 인구변화 관련 정책 제시

[표 2-2]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계획 및 정책 동향

구분		계획기간	추진주체	주요 내용
인구 관련 기본계획 및 정부 정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9)	2016~ 2020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인구변화 적극 대비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2016)	2016~ 2020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및 취약노인 보호 체계 강화 - 중고령층 대상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체육활동 및 관광 지원,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확대 등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	2018~ 2022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및 활성화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 문체부 등 부처간 다문화이해 교육 협업 체계 강화 -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문화시설 내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보완계획) (2018)	2016~ 2020	관계부처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 민주적 세대관계 조성(실버 문화·예술공연,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연계 유·아동, 청년, 노년층 등 세대간 이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표 2-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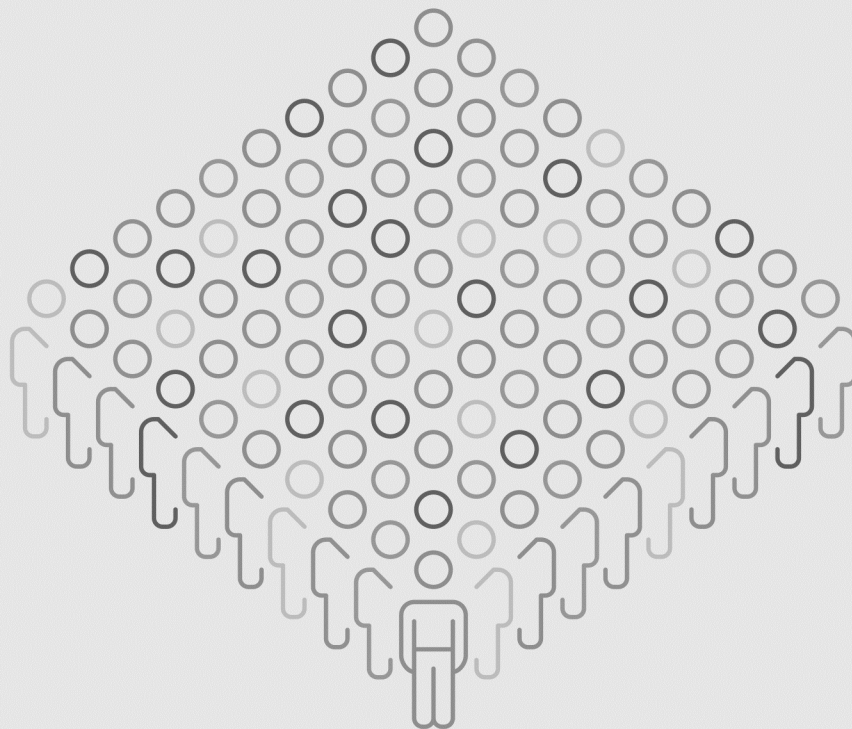
구분		계획기간	추진주체	주요 내용
인구 관련 기본계획 및 정부 정책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2018~ 2022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 자원봉사 활성화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이주민 자조모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2019)	-	관계부처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 • 고령인구 증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 新산업 육성(액티브시니어 등) •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할머니 사업 대상자 처우 개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2020)	-	관계부처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 : 인문·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2018)	-	관계부처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부담 완화 및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친화적인 창업공간 확충 : 콘텐츠코리아랩기업지원 센터를 개편하여 콘텐츠·관광창업 집중 육성
	청년의 삶 개선방안 (2020)	-	관계부처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 - 청춘마이크 사업 확대 : 청년 예술인의 공연기회 제공
문화여가 기본계획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2020~ 2024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등 •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 지원 : 문화 취약 지역 맞춤형 지원 추진 등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018)	2018~ 2022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참여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일상의 '여가 공간' 확대 등 • 여가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확대, 장애 없는 여가서비스 구현 등 • 여가생태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여가산업 생태계 구축 등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2.),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보건복지부(2016.12.),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관계부처 합동(2018.8.31.),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 법무부(2018.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관계부처 합동(2019.11.6.),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제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관계부처 합동(2019.11.13.),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 관계부처 합동(2020.6.25.),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1); 관계부처 합동(2018.3.15.),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2020.3.26.), 청년의 삶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20.2.),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문화체육관광부(2018.6.),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

현황 및 실태분석





현황 및 실태분석

1.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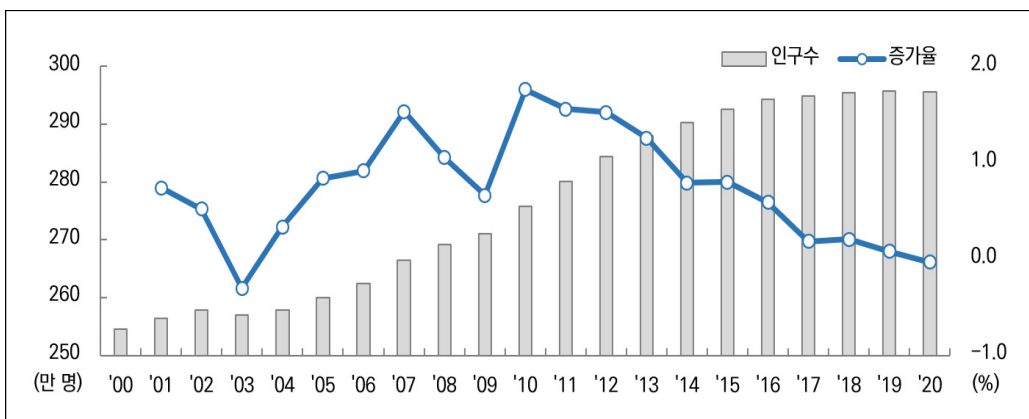
1) 인구 현황

(1) 인구수 변화 현황 및 추이

연령별 인구수

- 인천시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96만 명으로 전국 5,185만 명 대비 5.7% 수준이며, 20년(2000~2020) 간 연평균 0.8%씩 증가하여 전국 연평균 증가율(0.4%)을 상회함
- 인천시 인구수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그림 3-1] 인천시 인구수 및 증가율 추이(2000년~2020년)



주 : 2020년 인구수는 1월 말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1월 기준, 219만 명(74.2%),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만 명(13.1%)으로 고령화사회⁶⁾임
- 만 15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2000년 59만 명(23.1%)에서 2020년 기준 37만 명(12.7%)으로 감소
-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182만 명(71.5%)에서 2020년 219만 명(74.2%)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⁷⁾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14만 명(5.4%)에서 2020년 39만 명(13.1%)으로 증가

[표 3-1] 인천시 인구변화 추이(2000년~2020년)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구성비			연평균 증감율		
	2000년	2010년	2020년*	2000년	2010년	2020년	'00~'10	'10~'20	'00~'20
전국	47,732,558	50,515,666	51,847,509	100.0	100.0	100.0	0.6	0.3	0.4
인천시	2,545,769	2,758,296	2,956,119	100.0	100.0	100.0	0.8	0.7	0.8
0 ~ 4세	183,180	128,173	106,374	7.2	4.6	3.6	-3.5	-1.8	-2.7
5 ~ 9세	218,670	135,568	134,674	8.6	4.9	4.6	-4.7	-0.1	-2.4
10 ~ 14세	185,197	181,529	133,010	7.3	6.6	4.5	-0.2	-3.1	-1.6
15 ~ 19세	196,163	209,408	149,316	7.7	7.6	5.1	0.7	-3.3	-1.4
20 ~ 24세	189,133	181,956	192,210	7.4	6.6	6.5	-0.4	0.5	0.1
25 ~ 29세	226,421	208,127	214,985	8.9	7.5	7.3	-0.8	0.3	-0.3
30 ~ 34세	259,742	218,243	186,933	10.2	7.9	6.3	-1.7	-1.5	-1.6
35 ~ 39세	272,140	246,612	232,133	10.7	8.9	7.9	-1.0	-0.6	-0.8
40 ~ 44세	244,337	257,463	228,994	9.6	9.3	7.7	0.5	-1.2	-0.3
45 ~ 49세	154,799	261,281	261,384	6.1	9.5	8.8	5.4	0.0	2.7
50 ~ 54세	113,333	233,858	256,978	4.5	8.5	8.7	7.5	0.9	4.2
55 ~ 59세	90,263	149,517	259,300	3.5	5.4	8.8	5.2	5.7	5.4
60 ~ 64세	74,075	108,756	212,443	2.9	3.9	7.2	3.9	6.9	5.4
65 ~ 69세	54,674	84,886	129,372	2.1	3.1	4.4	4.5	4.3	4.4
70 ~ 74세	37,669	66,186	97,835	1.5	2.4	3.3	5.8	4.0	4.9
75 ~ 79세	25,471	43,893	74,012	1.0	1.6	2.5	5.6	5.4	5.5
80 ~ 84세	13,182	25,321	49,413	0.5	0.9	1.7	6.7	6.9	6.8
85 ~ 89세	5,370	12,241	24,366	0.2	0.4	0.8	8.6	7.1	7.9
90 ~ 94세	1,626	3,908	9,131	0.1	0.1	0.3	9.2	8.9	9.0
95 ~ 99세	249	954	2,356	0.0	0.0	0.1	14.4	9.5	11.9
100세 이상	75	416	900	0.0	0.0	0.0	18.7	8.0	13.2

주: *의 2020년 인구수는 1월 말 기준임. 구성비는 반올림 처리되어 부분의 합과 전체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6) UN(United Nations)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함(통계청, 2003).
- 7)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2,215,131명에서 2017년 2,208,552명, 2018년 2,207,048명으로 감소 추세임.

- 인천시 군·구별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서구가 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 규모이며, 남동구 53만 명(18.0%), 부평구 51만 명(17.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용진군 2만 명(0.7%), 동구 6만 4천명(2.2%), 강화군 6만 9천 명(2.3%) 순으로 낮게 분석
- 20년간(2000~2020) 연평균 증가율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중구(3.3%), 서구(2.3%), 연수구(1.7%) 및 용진군(1.9%)에서 높게 나타남
 - 동구(-0.8%), 계양구(-0.5%), 부평구(-0.3%), 미추홀구(-0.1%) 등 원도심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 추세
 - 동별 인구수는 2020년 1월 기준, 서구 청라2동(48,772명), 연수구 송도3동(48,027명), 미추홀구 용현5동(46,892명), 서구 검암경서동(46,178명) 및 연희동(42,028명), 남동구 논현고잔동(41,702명), 중구 영종1동(40,712명) 순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신규주택 개발지와 관련

[표 3-2] 인천시 군·구별 인구변화 추이(2010년~2020년)

(단위 : 명, %)

구분	2000		2010년			2020년**			연평균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증가율('00~'10)	인구수	구성비	증가율('10~'20)	증가율('00~'20)
인천시	2,545,769	100.0	2,758,296	100.0	8.3	2,956,119	100.0	7.2	0.8
중구	71,522	2.8	92,890	3.4	29.9	136,013	4.6	46.4	3.3
동구	76,057	3.0	79,663	2.9	4.7	64,337	2.2	-19.2	-0.8
미추홀구	420,348	16.5	423,876	15.4	0.8	408,394	13.8	-3.7	-0.1
연수구	262,319	10.3	279,230	10.1	6.4	367,321	12.4	31.5	1.7
남동구	407,845	16.0	473,423	17.2	16.1	532,569	18.0	12.5	1.3
부평구	546,520	21.5	567,493	20.6	3.8	510,362	17.3	-10.1	-0.3
계양구	337,077	13.2	347,810	12.6	3.2	302,832	10.2	-12.9	-0.5
서구	342,973	13.5	408,068	14.8	19.0	544,608	18.4	33.5	2.3
강화군	67,100	2.6	67,104	2.4	0.0	69,197	2.3	3.1	0.2
용진군	14,008	0.6	18,739	0.7	33.8	20,486	0.7	9.3	1.9

주 : *의 2020년 인구수는 1월 말 기준임. 구성비는 반올림 처리되어 부분의 합과 전체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인천시 군·구 연령별 인구 비율은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40~5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는 30~40대가 높게 나타남
- 강화군과 옹진군은 50~6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옹진군은 백령면, 영흥면, 연평면 등 지역을 중심으로 20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됨

[표 3-3] 인천시 군·구 연령별 인구수 및 구성비 현황(2020.1. 기준)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수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 이상
인천시	2,956,119 (100.0)	241,048 (8.2)	282,326 (9.6)	407,195 (13.8)	419,066 (14.2)	490,378 (16.6)	516,278 (17.5)	341,815 (11.6)	171,847 (5.8)	73,779 (2.5)	11,487 (0.4)	900 (0.0)
중구	136,013 (100.0)	12,153 (8.9)	12,383 (9.1)	18,823 (13.8)	20,891 (15.4)	24,012 (17.7)	19,646 (14.4)	14,984 (11.0)	8,985 (6.6)	3,476 (2.6)	586 (0.4)	74 (0.1)
동구	64,337 (100.0)	4,293 (6.7)	5,351 (8.3)	6,854 (10.7)	7,619 (11.8)	10,369 (16.1)	10,412 (16.2)	9,735 (15.1)	6,506 (10.1)	2,715 (4.2)	406 (0.6)	77 (0.1)
미추홀구	408,394 (100.0)	29,070 (7.1)	33,062 (8.1)	57,272 (14.0)	57,738 (14.1)	64,756 (15.9)	68,435 (16.8)	53,203 (13.0)	30,590 (7.5)	12,243 (3.0)	1,850 (0.5)	175 (0.0)
연수구	367,321 (100.0)	36,220 (9.9)	41,539 (11.3)	50,898 (13.9)	54,414 (14.8)	65,220 (17.8)	62,135 (16.9)	34,000 (9.3)	14,766 (4.0)	6,911 (1.9)	1,166 (0.3)	52 (0.0)
남동구	532,569 (100.0)	45,349 (8.5)	51,719 (9.7)	72,371 (13.6)	76,706 (14.4)	90,331 (17.0)	91,258 (17.1)	61,416 (11.5)	29,620 (5.6)	11,785 (2.2)	1,896 (0.4)	118 (0.0)
부평구	510,362 (100.0)	36,284 (7.1)	46,097 (9.0)	73,282 (14.4)	72,003 (14.1)	80,798 (15.8)	93,193 (18.3)	62,360 (12.2)	30,739 (6.0)	13,387 (2.6)	2,026 (0.4)	193 (0.0)
계양구	302,832 (100.0)	20,347 (6.7)	28,469 (9.4)	45,884 (15.2)	39,610 (13.1)	47,950 (15.8)	62,113 (20.5)	35,385 (11.7)	15,059 (5.0)	6,940 (2.3)	1,014 (0.3)	61 (0.0)
서구	544,608 (100.0)	53,009 (9.7)	57,736 (10.6)	73,476 (13.5)	82,587 (15.2)	96,469 (17.7)	93,079 (17.1)	53,544 (9.8)	23,271 (4.3)	9,789 (1.8)	1,548 (0.3)	100 (0.0)
강화군	69,197 (100.0)	3,329 (4.8)	4,789 (6.9)	5,608 (8.1)	5,491 (7.9)	7,985 (11.5)	12,291 (17.8)	13,452 (19.4)	10,024 (14.5)	5,423 (7.8)	765 (1.1)	40 (0.1)
옹진군	20,486 (100.0)	994 (4.9)	1,181 (5.8)	2,727 (13.3)	2,007 (9.8)	2,488 (12.1)	3,716 (18.1)	3,736 (18.2)	2,287 (11.2)	1,110 (5.4)	230 (1.1)	10 (0.0)

주 : *의 2020년 인구수는 1월 말 기준임. 구성비는 반올림 처리되어 부분의 합과 전체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인구변화 요인

■ 자연적 증감 요인

- 인천시 출생아 수는 2018년 기준, 20,087명으로 전국의 6.1%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2000~2018)은 2.9% 감소 추세임
- 군·구별 출생아 수는 서구 4,148명(20.7%), 남동구 3,782명(18.8%), 부평구 3,576명(17.8%), 미추홀구 2,637명(13.1%), 연수구 2,480명(12.3%) 순으로 나타남
 - 2011년까지 부평구의 출생아 수가 가장 높았으나, 이후 서구가 부평구를 추월⁸⁾
 - 연평균 증가율(2000~2018)은 인천시 전 지역에서 감소 추세로 계양구(-5.4%), 강화군(-4.1%), 부평구(-4.0%)에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0.2%)에서 가장 낮게 분석
- 인천시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산 자녀 비율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06명으로 전국 0.977명 보다 높은 수준임
 - 군·구별로는 옹진군 1.341명, 서구 1.119명, 강화군 1.064명, 연수구 1.05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양구(0.904명)가 가장 낮게 조사

[표 3-4] 인천시 군·구별 출생아 수 추이(2000년~2018년)

(단위: 명, %, 명/가임여성 1명, %)

구분	출생아 수					구성비 2018	합계 출산율* 2018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10	2015	2018			
전국	640,089	438,707	470,171	438,420	326,822	100.0	0.977	-3.7
인천시	34,433	23,026	25,752	25,491	20,087	100.0	1.006	-2.9
중구	821	907	897	1,020	794	4.0	1.018	-0.2
동구	699	633	753	624	382	1.9	1.005	-3.3
미추홀구	5,023	3,543	3,862	3,191	2,637	13.1	0.951	-3.5
연수구	3,314	2,073	2,310	2,646	2,480	12.3	1.059	-1.6
남동구	5,993	3,311	4,653	4,883	3,782	18.8	1.006	-2.5
부평구	7,422	5,304	5,331	4,918	3,576	17.8	0.954	-4.0
계양구	5,244	3,098	3,396	2,763	1,921	9.6	0.904	-5.4
서구	5,203	3,668	4,045	5,051	4,148	20.7	1.119	-1.3
강화군	551	386	353	274	258	1.3	1.064	-4.1
옹진군	163	103	152	121	109	0.5	1.341	-2.2

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명의 여성이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8) 부평구 출생아 수는 2011년(5,142명)까지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 남동구가 5,333명, 2013년 서구가 5,12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천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15,316명으로 전국의 5.1%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2000~2018)은 2.0% 증가 추세임
- 군·구별 사망자 수는 부평구 2,730명(17.8%), 남동구 2,694명(17.6%), 미추홀구 2,564명(16.7%), 서구 2,206명(14.4%), 계양구 1,545명(10.1%) 등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남
 - 인천시 군·구별 고령인구는 2018년 기준, 부평구(18.3%), 미추홀구(17.3%), 남동구(17.2%), 서구(13.8%), 계양구(9.1%) 순⁹⁾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평구 사망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율(2000~2018)은 인천시 전 지역에서 증가 추세로 서구(3.2%)와 남동구(3.1%)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
-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강화군(1,172.3명), 옹진군(978.3명), 동구(826.3명), 중구(654.6명) 순이며, 연수구(367.5명)와 서구(421.3명)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강화군, 옹진군, 동구는 2018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이며, 연수구와 서구는 고령인구 비율 10% 미만의 고령화사회

[표 3-5] 인천시 군·구별 사망자 수 추이(2000년~2018년)

(단위 : 명, %, 명/십만 명)

구분	사망자 수					구성비	사망률*	연평균
	2000	2005	2010	2015	2018	2018	2018	증가율
전국	248,740	245,874	255,405	275,895	298,820	100.0	582.5	1.0
인천시	10,751	11,144	12,087	13,452	15,316	100.0	524.0	2.0
중구	528	522	578	594	776	5.1	654.6	2.2
동구	535	550	495	459	551	3.6	826.3	0.2
미추홀구	1,990	1,953	2,107	2,309	2,564	16.7	621.7	1.4
연수구	871	915	1,029	1,186	1,242	8.1	367.5	2.0
남동구	1,542	1,608	1,877	2,223	2,694	17.6	505.8	3.1
부평구	2,140	2,242	2,388	2,556	2,730	17.8	518.8	1.4
계양구	1,029	1,146	1,233	1,364	1,545	10.1	489.9	2.3
서구	1,241	1,419	1,514	1,902	2,206	14.4	421.3	3.2
강화군	696	667	717	689	801	5.2	1,172.3	0.8
옹진군	179	122	149	170	207	1.4	978.3	0.8

주 : *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9) 고령인구 현황 및 추이는 p.31에 수록됨.

- 인천시의 자연적 증감은 2018년 기준 출생아 수 20,087명, 사망자 수 15,316명으로 4,771명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나지만, 2000년(23,682명) 대비 감소 추세임
 - 2010년 대비 2018년 자연적 증감은 부평구(-4,436명), 계양구(-3,839명), 남동구(-3,363명), 미추홀구(-2,960명) 등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
- 자연적 증가 현상은 2018년 기준, 서구(1,942명), 연수구(1,238명) 등 경제자유구역과 개발사업이 추진된 남동구(1,088명)에서 나타남
 - 남동구(-3,363명), 서구(-2,020명), 연수구(-1,205명) 지역 역시 2010년 대비 감소
- 강화군(-543명), 동구(-169명), 옹진군(-98명) 지역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높게 나타나 자연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됨
 -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지역의 경우, 200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높은 감소 현상

[표 3-6] 인천시 군·구별 자연적 증감 추이(2000년~2018년)

(단위: 명)

구분	자연적 증감(출생아 수-사망자 수)					2010년 대비 2018년
	2000	2005	2010	2015	2018	
전국	391,349	192,833	214,766	162,525	28,002	-363,347
인천시	23,682	11,882	13,665	12,039	4,771	-18,911
중구	293	385	319	426	18	-275
동구	164	83	258	165	-169	-333
미추홀구	3,033	1,590	1,755	882	73	-2,960
연수구	2,443	1,158	1,281	1,460	1,238	-1,205
남동구	4,451	1,703	2,776	2,660	1,088	-3,363
부평구	5,282	3,062	2,943	2,362	846	-4,436
계양구	4,215	1,952	2,163	1,399	376	-3,839
서구	3,962	2,249	2,531	3,149	1,942	-2,020
강화군	-145	-281	-364	-415	-543	-398
옹진군	-16	-19	3	-49	-98	-8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사회적 증감 요인

- 인천시 인구이동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순유입이 되었으나, 2017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되어 2019년 기준 2,337명의 순유출이 발생함
 - 송도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05년을 기점으로 순유입 인구 증가(이왕기, 2020.2.13.)
 - 2019년은 비수도권에서 인천으로의 유입이 2,047명, 인천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4,384명으로 집계
- 인천시의 수도권내 인구이동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순유입이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는 순유출이 발생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순유출, 2018년부터는 순유입이 나타남

[표 3-7] 수도권 시도별 인구이동 추이(2000년~2019년)

(단위 : 명)

구분	수도권 내(a)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b)			수도권 합계(a+b)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합계
2000년	-129,816	6,877	122,939	82,877	6,288	61,087	-46,939	13,165	184,026	150,252
2001년	-186,489	-4,787	191,276	72,540	5,904	57,671	-113,949	1,117	248,947	136,115
2002년	-205,704	-14,195	219,899	99,283	14,425	95,883	-106,421	230	315,782	209,591
2003년	-134,433	-21,782	156,215	65,465	5,611	65,828	-68,968	-16,171	222,043	136,904
2004년	-112,897	-7,456	120,353	65,693	6,121	68,522	-47,204	-1,335	188,875	140,336
2005년	-109,069	5,811	103,258	58,062	5,154	65,593	-51,007	10,965	168,851	128,809
2006년	-96,947	6,030	90,917	60,396	3,588	47,716	-36,551	9,618	138,633	111,700
2007년	-104,705	19,752	84,953	51,822	2,969	28,147	-52,883	22,721	113,100	82,938
2008년	-98,907	11,237	87,670	40,913	-1,818	12,927	-57,994	9,419	100,597	52,022
2009년	-86,864	5,522	81,342	34,600	-3,424	12,811	-52,264	2,098	94,153	43,987
2010년	-135,184	7,294	127,890	20,161	-3,682	14,547	-115,023	3,612	142,437	31,026
2011년	-119,997	32,025	87,972	6,939	-3,216	-12,173	-113,058	28,809	75,799	-8,450
2012년	-117,384	29,027	88,357	13,737	-1,233	-5,604	-103,647	27,794	82,753	6,900
2013년	-108,744	25,555	83,189	8,194	-3,520	-9,058	-100,550	22,035	74,131	-4,384
2014년	-91,916	14,483	77,433	4,085	-5,159	-20,037	-87,831	9,324	57,396	-21,111
2015년	-131,125	16,505	114,620	-6,131	-6,967	-19,852	-137,256	9,538	94,768	-32,950
2016년	-147,662	10,359	137,303	7,405	-4,582	-3,686	-140,257	5,777	133,617	-863
2017년	-115,942	1,916	114,026	17,456	-3,586	2,136	-98,486	-1,670	116,162	16,006
2018년	-144,034	-753	144,787	33,804	686	25,307	-110,230	-67	170,094	59,797
2019년	-95,765	-4,384	100,149	46,177	2,047	34,517	-49,588	-2,337	134,666	82,741

주 : 수도권내 이동은 서울, 인천, 경기 간의 순이동,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동은 서울, 인천, 경기간의 순이동을 제외한 비수도권간이동의 순이동을 의미함. 수도권 합계는 수도권내 인구이동 수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이동 수를 합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인구이동)」

- 비수도권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사유는 2009년 주거환경(43명)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2019년 기준, 직업(1,931명), 주택(1,351명), 가족(448명), 주거환경(52명) 등 다양한 사유로 순유입이 나타남
- 반면, 전출 사유는 2009년 가족(1,910명), 직업(1,813명), 자연환경(537명), 주택(251명), 교육(230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자연환경(1,210명) 과 교육(311명) 등의 사유로 순유출이 발생함

〔표 3-8〕 인천시(수도권-비수도권 간) 전입사유별 순이동 추이(2009년~2019년)

(단위: 명)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합계
2009년	-1,813	-1,910	-251	-230	43	-537	1,274	-3,424
2010년	-2,255	-2,325	66	-577	57	-683	2,035	-3,682
2011년	-3,301	-1,683	935	-1,140	47	-730	2,656	-3,216
2012년	-3,534	-862	960	-558	15	-714	3,460	-1,233
2013년	-3,872	-955	920	-818	-167	-1,038	2,410	-3,520
2014년	-4,457	-582	1,798	-1,053	-191	-1,137	463	-5,159
2015년	-4,608	-258	510	-968	-176	-1,232	-235	-6,967
2016년	-2,677	-108	679	-678	-127	-1,219	-452	-4,582
2017년	-1,063	-204	238	-850	-195	-1,255	-257	-3,586
2018년	1,075	708	829	-639	-133	-1,062	-92	686
2019년	1,931	448	1,351	-311	52	-1,210	-214	2,047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인구이동)」

- 인천시 연령별 순이동은 2000년에는 5~14세, 35~4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20~24세, 60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순유입이 발생함
 - 20대와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인 순유입이 나타났으며, 순유출은 10대와 40~50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순이동은 2010년 이후, 서구, 남동구, 연수구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높게 조사¹⁰⁾

10)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인천시 시·군별 순이동자 수는 2017년 남동구(851명), 2018년 서구(1,335명), 2019년 연수구(1,074명)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9] 인천시 연령별 순이동 추이(2000년~2019년)

(단위 : 명)

구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합계
'00	1,441	-449	-341	456	3,464	5,380	2,223	-715	-469	208	256	445	1266	13,165
'01	-378	-2,352	-1,498	445	4,323	4,836	-719	-2,348	-1,288	-55	27	10	114	1,117
'02	-225	-2,655	-2,154	331	4,663	4,934	-43	-2,698	-1,712	-580	2	204	163	230
'03	-2,226	-2,642	-2,252	-982	1,421	1,673	-1,938	-3,068	-2,964	-1,591	-856	-437	-309	-16,171
'04	391	-551	-827	-369	1,425	1,057	506	-783	-1,253	-979	-317	34	331	-1,335
'05	1,769	931	26	188	1,546	2,235	2,066	1,040	11	-365	-176	162	1,532	10,965
'06	862	-54	-325	64	1,423	2,275	2,041	1,015	83	-183	101	341	1,975	9,618
'07	2,557	1,114	596	424	2,658	4,597	4,309	2,113	624	325	351	640	2,413	22,721
'08	1,800	191	-190	56	1,300	3,096	2,899	483	-445	-618	-86	6	927	9,419
'09	785	-220	-259	-366	221	789	1,031	249	-506	-443	-105	49	873	2,098
'10	489	-506	65	116	667	233	864	400	403	-68	-75	-21	1,045	3,612
'11	4,069	1,494	1,056	543	1,467	2,467	5,362	4,021	1,935	1,039	1,230	816	3,310	28,809
'12	2,941	1,296	1,006	669	2,236	3,072	4,902	3,490	1,882	1,199	961	1,023	3,117	27,794
'13	1,726	791	800	471	1,918	2,330	4,385	2,611	1,703	899	962	775	2,664	22,035
'14	519	136	473	231	1,002	752	1,898	1,119	515	389	15	205	2,070	9,324
'15	650	215	282	272	912	228	1,716	1,193	731	428	290	3	2,618	9,538
'16	-49	-362	114	391	1,579	495	1,031	503	403	438	-55	-456	1,745	5,777
'17	-626	-916	-197	-256	1,120	238	-107	-833	-337	-229	-346	-442	1,261	-1,670
'18	-1,097	-946	-251	-146	1,422	208	97	-412	-356	61	-231	-77	1,661	-67
'19	-1,183	-672	-72	-217	1,584	-338	-761	-405	-62	-143	-121	-618	671	-2,337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인구이동)」

- 인천시 연령별 수도권 내 순이동은 2000년 10대와 40대에서 순유출이 나타났으며, 2009년 10~20대, 2019년에는 10세 미만부터 30대까지의 아동·청소년 및 청년층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 2000년과 2009년의 수도권 내 순이동은 순유입이 순유출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순유출이 높게 조사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순이동은 2000년 10~20대, 2009년 20대의 순유입이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10~30대의 연령대의 순유입이 나타나 청소년 및 청년층이 비수도권에서 인천시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은 순유입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순유출이 3천 명, 2019년에는 다시 순유입이 더 높게 분석

[표 3-10] 수도권 시도별 연령별 순이동 추이(2000, 2009, 2019)

(단위: 천 명)

구분	2000년						2009년						2019년					
	수도권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수도권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수도권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합계	-130	7	123	83	6	61	-87	6	81	35	-3	13	-96	-4	100	46	2	35
10세 미만	-22	2	21	2	-1	5	-13	1	12	-2	-1	-2	-12	-2	14	-1	-0	2
10대	-5	-1	5	10	1	5	-1	-0	1	6	-1	2	-3	-0	3	7	0	2
20대	-34	3	31	61	6	39	-12	-0	12	34	1	17	0	-3	2	47	4	24
30대	-31	2	30	6	-0	8	-28	2	26	-2	-1	0	-30	-2	32	2	0	8
40대	-11	-0	11	3	-0	2	-8	0	8	-0	-1	-2	-16	0	16	-2	-0	1
50대	-14	1	13	-0	-0	1	-12	1	11	-1	-1	-2	-16	0	15	-3	-1	-3
60세 이상	-13	1	12	1	0	2	-12	1	11	-1	-0	-1	-19	1	18	-3	-1	0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인구이동)」

- 인천시 군·구별 순이동은 20년 간(2000~2019)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서구(149,410명), 연수구(75,425명), 중구(54,165명)와 개발사업이 추진된 남동구(77,539명) 지역의 순유입이 높게 나타남
 - 서구, 연수구, 중구는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2010년 이후 순유입 추세
- 부평구(-81,109명), 계양구(-71,491명), 미추홀구(-44,442명), 동구(-19,321명) 지역은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동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원도심 지역에 해당
- 지역 내 순이동 불균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인천연구원, 2020)
 - 순유입이 2000년 서구와 남동구에서 2010년 남동구, 연수구, 서구 등으로 확대된 것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서 공급하는 신규주택과 관련

[표 3-11] 인천시 군·구별 순이동 추이(2000년~2019년)

(단위 : 명)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00	-1,139	-3,930	-695	-1,239	5,842	12,790	710	1,564	-681	-57	13,165
'01	2,049	-367	2,806	-3,025	-3,594	1,585	-602	2,325	-83	23	1,117
'02	4,373	-992	5,876	-2,992	-6,547	2,888	-1,222	-385	-877	108	230
'03	6,437	6,207	-247	-2,501	-12,344	-6,502	-2,869	-4,180	-385	213	-16,171
'04	4,269	15	-3,384	-2,472	-10,108	1,228	-5,174	13,427	317	547	-1,335
'05	1,954	-3,241	-11,623	8,575	-6,610	7,231	-3,276	16,622	541	792	10,965
'06	-766	-2,698	-5,366	4,118	8,424	-705	4,448	916	333	914	9,618
'07	-2,705	-1,710	-6,615	-3,652	32,013	-5,715	-2,651	12,082	1,169	505	22,721
'08	-1,461	506	5,683	-1,560	20,574	-3,887	-2,684	-9,376	1,203	421	9,419
'09	541	2,143	-2,977	1,510	9,955	-8,975	-457	-427	-48	833	2,098
'10	1,307	705	-3,922	4,178	2,626	-6,192	-1,564	6,090	-33	417	3,612
'11	409	-1,272	-7,830	7,487	18,789	-9,181	-5,588	25,222	47	726	28,809
'12	4,662	-2,233	-5,039	3,274	4,849	-4,709	-4,212	30,296	360	546	27,794
'13	8,692	-1,820	-4,505	6,170	569	-4,626	-224	16,614	443	722	22,035
'14	3,701	-1,230	-4,208	8,846	4,815	-2,734	-5,971	5,310	748	47	9,324
'15	2,024	-1,605	-4,575	6,714	13,757	-3,850	-6,761	2,595	938	301	9,538
'16	383	-1,612	11,293	8,011	-3,011	-8,403	-5,233	3,074	829	446	5,777
'17	2,605	-1,396	1,553	5,214	3,896	-11,234	-7,148	3,264	1,282	294	-1,670
'18	4,422	-3,132	-2,975	9,924	-889	-16,535	-11,605	20,493	676	-446	-67
'19	12,408	-1,659	-7,692	18,845	-5,467	-13,583	-9,408	3,884	730	-395	-2,337
합계	54,165	-19,321	-44,442	75,425	77,539	-81,109	-71,491	149,410	7,509	6,957	154,642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인구이동)」

인천시 인구 증감요인

- 인천시 총인구수는 2000년 255만 명에서 2018년 295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증감은 감소 추세임
 - 자연적 증감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감소 추세
 - 사회적 증감은 2017년 이후 순유입 대비 순유출이 높게 나타나 감소 추세

[표 3-12] 인천시 인구 증감요인

(단위 :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총인구수	2,545,769	2,600,495	2,758,296	2,925,815	2,954,642
자연적 증감(A-B)	23,682	11,882	13,665	12,039	4,771
출생아 수(A)	34,433	23,026	25,752	25,491	20,087
사망자 수(B)	10,751	11,144	12,087	13,452	15,316
사회적 증감	13,165	10,965	3,612	9,538	-6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순인구이동)」

2) 인구구조별 인구 현황

영유아 인구

- 인천시 영유아 인구¹¹⁾는 2010년 152,329명(전국의 5.6%)에서 2020년 1월 기준 132,155명(5.8%)으로 연평균 1.4% 감소 추세임
- 군·구별로는 2012년 이후 서구(19.9~22.1%),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 강화군, 동구의 영유아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영유아 인구 비율이 7.5%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중구 영종1동, 서구 청라1~3동, 가정1동, 연수구 송도 2~4동, 남동구 서창2동, 계양구 계양3동 등(인천연구원, 2020)
 - 영유아 인구 비율이 2% 이하로 낮은 지역은 중구 용유동, 강화군 교동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서도면, 옹진군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으로 분석(인천연구원, 2020)

[표 3-13] 전국 및 인천시 영유아 인구 추이(2010년~2020년)

(단위 : 명,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전국	2,734,976	2,777,209	2,816,103	2,769,255	2,741,835	2,739,901	2,680,088	2,568,516	2,415,349	2,285,605	2,268,888	-1.9
인천시	152,329 (100.0)	158,758 (100.0)	164,473 (100.0)	163,530 (100.0)	162,895 (100.0)	162,895 (100.0)	158,698 (100.0)	150,553 (100.0)	141,271 (100.0)	133,224 (100.0)	132,155 (100.0)	-1.4
중구	5,166 (3.4)	5,275 (3.3)	5,790 (3.5)	6,481 (4.0)	6,840 (4.2)	7,016 (4.3)	6,642 (4.2)	6,245 (4.1)	6,030 (4.3)	6,736 (5.1)	6,727 (5.1)	2.7
동구	4,482 (2.9)	4,487 (2.8)	4,373 (2.7)	4,070 (2.5)	3,871 (2.4)	3,732 (2.3)	3,467 (2.2)	3,170 (2.1)	2,619 (1.9)	2,304 (1.7)	2,271 (1.7)	-6.6
미추홀구	21,240 (13.9)	21,246 (13.4)	21,396 (13.0)	20,697 (12.7)	20,063 (12.3)	19,570 (12.0)	20,341 (12.8)	19,680 (13.1)	18,360 (13.0)	16,499 (12.4)	16,372 (12.4)	-2.6
연수구	14,197 (9.3)	15,173 (9.6)	15,997 (9.7)	16,608 (10.2)	17,670 (10.8)	18,354 (11.3)	18,798 (11.8)	18,790 (12.5)	18,804 (13.3)	19,699 (14.8)	19,584 (14.8)	3.3
남동구	28,045 (18.4)	30,456 (19.2)	31,555 (19.2)	30,880 (18.9)	30,885 (19.0)	32,114 (19.7)	30,627 (19.3)	29,298 (19.5)	26,999 (19.1)	24,689 (18.5)	24,493 (18.5)	-1.3
부평구	30,556 (20.1)	30,176 (19.0)	30,285 (18.4)	29,257 (17.9)	29,109 (17.9)	28,751 (17.7)	27,596 (17.4)	25,733 (17.1)	22,884 (16.2)	20,456 (15.4)	20,264 (15.3)	-4.0
계양구	19,630 (12.9)	19,415 (12.2)	19,323 (11.7)	18,852 (11.5)	17,905 (11.0)	17,009 (10.4)	15,827 (10.0)	14,249 (9.5)	12,375 (8.8)	11,051 (8.3)	10,903 (8.3)	-5.7
서구	25,945 (17.0)	29,414 (18.5)	32,701 (19.9)	33,847 (20.7)	33,771 (20.7)	33,601 (20.6)	32,692 (20.6)	30,770 (20.4)	30,784 (21.8)	29,458 (22.1)	29,226 (22.1)	1.2
강화군	2,222 (1.5)	2,167 (1.4)	2,152 (1.3)	2,020 (1.2)	1,999 (1.2)	1,982 (1.2)	1,962 (1.2)	1,874 (1.2)	1,734 (1.2)	1,754 (1.3)	1,748 (1.3)	-2.4
옹진군	846 (0.6)	949 (0.6)	901 (0.5)	818 (0.5)	782 (0.5)	766 (0.5)	746 (0.5)	744 (0.5)	682 (0.5)	578 (0.4)	567 (0.4)	-3.9

주 : *의 2020년 인구수는 1월 말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1) 영유아 인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함.

청년인구

- 청년인구¹²⁾는 2010년 896,752명(전국의 5.6%)에서 2020년 1월 기준 861,755명(5.9%)으로 연평균 0.4% 감소 추세임
- 군·구별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부평구(18.9%~21.0%)의 청년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8년부터는 서구(18.7%~18.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 강화군, 동구지역의 청년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군·구별 연평균 증가율(2010~2020)은 중구(3.5%), 연수구(2.3%), 서구(2.2%) 순

[표 3-14] 전국 및 인천시 청년인구 추이(2010년~2020년)

(단위 : 명,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전국	15,939,852	15,707,360	15,506,027	15,318,646	15,161,827	15,055,483	14,963,887	14,819,048	14,713,415	14,519,693	14,484,986	-1.0
인천시	896,752	899,739	903,677	904,788	900,589	897,299	895,227	885,373	878,370	864,434	861,755	-0.4
중구	29,217	28,530	29,429	31,896	32,352	32,793	32,513	33,541	35,628	40,757	41,057	3.5
동구	25,232	24,186	22,814	21,667	20,682	19,570	18,767	17,854	16,388	15,240	15,164	-5.0
미추홀구	142,306	137,207	133,417	129,673	126,244	123,284	127,143	126,890	125,043	120,052	119,487	-1.7
연수구	87,873	90,071	91,100	92,608	95,518	97,038	100,108	101,215	103,754	110,318	110,291	2.3
남동구	158,208	163,444	163,987	162,578	163,040	166,795	164,369	163,519	161,436	155,892	155,436	-0.2
부평구	188,227	183,277	180,959	179,039	177,947	176,328	173,029	167,488	159,543	152,210	151,372	-2.2
계양구	115,451	113,468	112,111	112,178	109,338	106,291	103,893	100,236	95,048	89,870	89,432	-2.5
서구	130,914	140,616	151,226	156,778	157,311	157,226	157,531	156,812	164,362	163,418	162,899	2.2
강화군	14,386	13,790	13,345	12,890	12,700	12,549	12,354	12,285	11,910	11,713	11,693	-2.1
옹진군	4,938	5,150	5,289	5,481	5,457	5,425	5,520	5,533	5,258	4,964	4,924	0.0

주 : *의 2020년 인구수는 1월 말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인천시 연령별 청년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19~29세가 442,689명(51.4%), 30~39세가 419,066명(48.6%)로 전국 비율(51.4%, 48.6%)과 동일하게 나타남

12) 청년인구는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 군·구별로는 용진군(59.2%), 계양구(55.7%), 강화군(53.0%), 부평구(52.4%) 등에서는 19~29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50.9%), 서구(50.7%), 동구(50.2%)에서는 30~39세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5] 전국 및 인천시 연령별 청년인구수 및 구성비 현황(2020.1. 기준) (단위: 명, %)

구분	19세~29세		30세~39세		합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7,439,866	51.4	7,045,120	48.6	14,484,986	100.0
인천시	442,689	51.4	419,066	48.6	861,755	100.0
중구	20,166	49.1	20,891	50.9	41,057	100.0
동구	7,545	49.8	7,619	50.2	15,164	100.0
미추홀구	61,749	51.7	57,738	48.3	119,487	100.0
연수구	55,877	50.7	54,414	49.3	110,291	100.0
남동구	78,730	50.7	76,706	49.3	155,436	100.0
부평구	79,369	52.4	72,003	47.6	151,372	100.0
계양구	49,822	55.7	39,610	44.3	89,432	100.0
서구	80,312	49.3	82,587	50.7	162,899	100.0
강화군	6,202	53.0	5,491	47.0	11,693	100.0
용진군	2,917	59.2	2,007	40.8	4,924	100.0

주: *의 2020년 인구수는 1월 말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고령인구

- 고령인구¹³⁾는 2010년 237,805명(전국의 4.3%)에서 2020년 1월 기준 387,385명(4.8%)으로 연평균 5.0% 증가 추세임.
- 군·구별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부평구(18.1%~19.7%)와 남동구, 미추홀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용진군(1.3%~1.5%), 동구, 중구, 강화군의 인천시 내 고령인구 비율은 낮게 나타남.
 - 군·구별 연평균 증가율(2010~2020)은 서구가 7.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그 외 남동구(6.3%), 연수구(6.0%), 중구(5.7%) 순으로 높은 증가 추세
 - 동구(2.9%), 강화군(3.2%), 용진군(3.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 추세

13) 고령인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 인천시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13.1%로 고령화사회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전국(15.6%)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¹⁴⁾
- 군·구별로는 강화군(31.8%), 옹진군(25.1%), 동구(21.5%)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미추홀구(16.2%), 중구(14.1%)는 고령사회임.
 -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강화·옹진군 외, 중구 북성동, 연안동, 송월동, 율목동, 도원동, 동인천동, 신포동, 용유동, 동구 송현3동, 송림1·2·3·5동, 금창동, 미추홀구 용현1·3·4동, 주안 2·4·7동 등(인천연구원, 2020)
 -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중구 영종1동, 서구 청라1~3동, 미추홀구 주안1동, 연수구 송도2~4동, 남동구 구월1~3동 지역(인천연구원, 2020)

[표 3-16] 전국 및 인천시 고령인구수 및 구성비 추이(2010년~2020년)

(단위: 명,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전국	5,506,352	5,700,972	5,980,060	6,250,986	6,520,607	6,775,101	6,995,652	7,356,106	7,650,408	8,026,915	8,075,536	3.9
인천시	237,805 (100.0)	250,528 (100.0)	267,059 (100.0)	282,471 (100.0)	297,951 (100.0)	312,905 (100.0)	324,255 (100.0)	345,024 (100.0)	362,675 (100.0)	384,548 (100.0)	387,385 (100.0)	5.0
중구	11,045 (4.6)	11,568 (4.6)	12,766 (4.8)	13,993 (5.0)	14,878 (5.0)	15,410 (4.9)	15,737 (4.9)	16,643 (4.8)	17,482 (4.8)	19,076 (5.0)	19,231 (5.0)	5.7
동구	10,390 (4.4)	10,772 (4.3)	11,250 (4.2)	11,666 (4.1)	12,108 (4.1)	12,465 (4.0)	12,639 (3.9)	13,168 (3.8)	13,254 (3.7)	13,751 (3.6)	13,821 (3.6)	2.9
미추홀구	44,287 (18.6)	45,947 (18.3)	48,523 (18.2)	50,852 (18.0)	53,231 (17.9)	55,214 (17.6)	57,437 (17.7)	60,758 (17.6)	62,833 (17.3)	65,642 (17.1)	66,021 (17.0)	4.1
연수구	19,307 (8.1)	20,535 (8.2)	21,640 (8.1)	22,994 (8.1)	24,357 (8.2)	25,593 (8.2)	26,893 (8.3)	28,922 (8.4)	31,227 (8.6)	34,346 (8.9)	34,715 (9.0)	6.0
남동구	36,405 (15.3)	39,565 (15.8)	42,370 (15.9)	44,892 (15.9)	47,905 (16.1)	51,768 (16.5)	53,951 (16.6)	58,429 (16.9)	62,248 (17.2)	66,423 (17.3)	66,962 (17.3)	6.3
부평구	46,859 (19.7)	48,651 (19.4)	51,401 (19.2)	53,902 (19.1)	56,601 (19.0)	59,354 (19.0)	60,940 (18.8)	63,959 (18.5)	66,424 (18.3)	69,549 (18.1)	69,965 (18.1)	4.1
계양구	22,563 (9.5)	23,334 (9.3)	24,684 (9.2)	26,219 (9.3)	27,490 (9.2)	28,611 (9.1)	29,762 (9.2)	31,729 (9.2)	33,119 (9.1)	35,043 (9.1)	35,377 (9.1)	4.6
서구	27,319 (11.5)	29,798 (11.9)	33,059 (12.4)	35,832 (12.7)	38,343 (12.9)	40,711 (13.0)	42,719 (13.2)	46,129 (13.4)	49,975 (13.8)	53,691 (14.0)	54,147 (14.0)	7.1
강화군	16,010 (6.7)	16,579 (6.6)	17,363 (6.5)	18,002 (6.4)	18,736 (6.3)	19,308 (6.2)	19,600 (6.0)	20,451 (5.9)	21,148 (5.8)	21,902 (5.7)	22,006 (5.7)	3.2
옹진군	3,620 (1.5)	3,789 (1.5)	4,003 (1.5)	4,119 (1.5)	4,302 (1.4)	4,471 (1.4)	4,567 (1.4)	4,836 (1.4)	4,965 (1.4)	5,125 (1.3)	5,140 (1.3)	3.6

주: *의 2020년 인구수는 1월 말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4)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14% 미만), 고령사회(14% 이상~20% 미만), 초고령사회(20% 이상)로 구분함(통계청, 2003).

[표 3-17] 전국 및 인천시 인구 대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2010년~2020년)

(단위 :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전국	10.9	11.2	11.7	12.2	12.7	13.1	13.5	14.2	14.8	15.5	15.6
인천시	8.6	8.9	9.4	9.8	10.3	10.7	11.0	11.7	12.3	13.0	13.1
중구	11.9	12.4	12.9	13.0	13.3	13.5	13.7	14.1	14.3	14.1	14.1
동구	13.0	13.7	14.7	15.5	16.4	17.2	17.8	19.0	20.0	21.3	21.5
미추홀구	10.4	11.0	11.7	12.4	13.0	13.6	13.8	14.5	15.1	16.1	16.2
연수구	6.9	7.1	7.4	7.7	7.8	8.0	8.2	8.6	9.0	9.4	9.5
남동구	7.7	8.0	8.4	8.9	9.3	9.7	10.2	10.9	11.6	12.5	12.6
부평구	8.3	8.7	9.2	9.7	10.2	10.7	11.1	11.8	12.7	13.6	13.7
계양구	6.5	6.8	7.2	7.6	8.1	8.6	9.0	9.8	10.6	11.5	11.7
서구	6.7	6.8	7.0	7.3	7.7	8.1	8.4	8.9	9.3	9.9	9.9
강화군	23.9	24.8	26.0	27.0	27.9	28.5	28.8	29.7	30.7	31.7	31.8
옹진군	19.3	19.4	20.0	19.9	20.8	21.3	21.4	22.4	23.6	24.9	25.1

주 : *의 2020년 인구수는 1월 말 기준임.

□ 는 고령화사회(7%~14%), □ 는 고령사회(14%~20%), □ 는 초고령사회(20% 이상)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3) 가구 구성

- 인구총조사¹⁵⁾에 따르면, 인천시 1인 가구 수는 2000년 97,127가구(전국의 4.4%)에서 2018년 275,898가구(4.7%)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2000~2018) 6.0% 증가 추세임
-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2000년 2,224,433가구에서 2018년 5,848,594가구로 연평균 5.5% 증가 추세이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형태화(관계부처 합동, 2020.6.25.)
- 군·구별로는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의 1인 가구 수가 높게 나타나며, 연평균 증가율은 중구(8.7%), 서구(7.7%), 남동구(7.5%), 옹진군(7.4%) 순임
- 인천시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수 비율은 2018년 기준 25.2%로 전국 9개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남

15) 인구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 등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비해 1인 가구 현황을 분석하기에 적합함.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까지 5년주기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년 주기로 진행됨. 단, 조사 기준은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전국 특·광역시도의 1인 가구 비율은 대전(32.5%), 서울(32.0%), 광주(30.2%), 세종(30.0%), 부산(29.7%), 제주(29.4%), 대구(28.2%), 울산(25.6%), 인천(25.2%) 순
- 향후 인천시 1인 가구 수는 연평균 7% 증가하여 2047년 1인 가구 비율이 36.1%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9.12.16.)

[표 3-18]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1인 가구 추이(2000년~2018년)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2,224,433	3,170,675	4,142,165	5,203,440	5,397,615	5,618,677	5,848,594	5.5
인천시	97,127 (100.0)	141,511 (100.0)	190,882 (100.0)	243,678 (100.0)	254,076 (100.0)	266,434 (100.0)	275,898 (100.0)	6.0
중구	3,800 (3.9)	7,211 (5.1)	8,713 (4.6)	13,059 (5.4)	13,735 (5.4)	15,235 (5.7)	17,162 (6.2)	8.7
동구	4,105 (4.2)	4,596 (3.2)	5,561 (2.9)	6,550 (2.7)	6,550 (2.6)	6,797 (2.6)	6,887 (2.5)	2.9
미추홀구	19,219 (19.8)	30,339 (21.4)	38,228 (20.0)	44,270 (18.2)	46,794 (18.4)	49,471 (18.6)	46,210 (16.7)	5.0
연수구	11,080 (11.4)	15,417 (10.9)	20,370 (10.7)	22,044 (9.0)	24,227 (9.5)	25,428 (9.5)	26,658 (9.7)	5.0
남동구	13,830 (14.2)	19,741 (14.0)	31,181 (16.3)	43,070 (17.7)	45,452 (17.9)	47,474 (17.8)	51,191 (18.6)	7.5
부평구	19,582 (20.2)	27,163 (19.2)	36,818 (19.3)	45,996 (18.9)	46,426 (18.3)	47,555 (17.8)	48,607 (17.6)	5.2
계양구	10,071 (10.4)	15,253 (10.8)	21,341 (11.2)	24,111 (9.9)	24,708 (9.7)	25,680 (9.6)	26,424 (9.6)	5.5
서구	10,803 (11.1)	16,209 (11.5)	21,661 (11.3)	33,604 (13.8)	35,016 (13.8)	37,134 (13.9)	41,024 (14.9)	7.7
강화군	3,543 (3.6)	4,162 (2.9)	5,055 (2.6)	6,806 (2.8)	7,090 (2.8)	7,391 (2.8)	7,759 (2.8)	4.5
옹진군	1,094 (1.1)	1,420 (1.0)	1,954 (1.0)	4,168 (1.7)	4,078 (1.6)	4,269 (1.6)	3,976 (1.4)	7.4

주 : 구성비는 반올림 처리되어 부분의 합과 전체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 3-19] 전국 및 특·광역시도 1인 가구 현황(2018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전체 가구 수	19,979,188 (100.0)	3,839,766 (100.0)	1,363,608 (100.0)	957,516 (100.0)	1,094,749 (100.0)	578,559 (100.0)	602,175 (100.0)	431,391 (100.0)	119,029 (100.0)	248,998 (100.0)
1인 가구 수	5,848,594 (29.3)	1,229,421 (32.0)	404,408 (29.7)	269,903 (28.2)	275,898 (25.2)	174,614 (30.2)	195,544 (32.5)	110,236 (25.6)	35,763 (30.0)	73,250 (29.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인천시의 연령대별 1인 가구 수는 2000년 대비 2018년 50대(295.9%)와 70대 이상(201.2%)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1인 가구 비율은 20대 이하(25.2%p)와 30대(15.7%p)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인구 고령화, 진학·취업을 통한 분리·독립,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 이혼 및 기러기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50대와 70대 이상에서 1인 가구 수가 증가 추세이며,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관계부처 합동, 2020.6.25.)
- 2000년과 2018년의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인천시(13.0%, 25.2%)가 전국(15.5%, 29.3%) 대비 낮은 수준이나, 60대(7.9%p)와 70대 이상(3.2%p) 고령인구의 1인 가구 비율 증가폭은 전국 대비 높게 조사
- 향후 60세 이상의 1인 가구 수가 증가하여 2047년 인천시 60세 이상의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61.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9.12.16.)

[표 3-20] 전국 및 인천시 1인 가구 수 및 증가율(2000, 2018)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국	'00년(A)*	2,224,433	560,776	415,264	295,010	246,105	351,574	355,008
	'18년(B)	5,848,594	1,078,098	992,737	864,221	974,444	869,904	1,069,190
	증가율	162.9	92.3	139.1	192.9	295.9	147.4	201.2
인천	'00년(A)	97,127	25,224	25,182	15,102	9,689	11,420	10,354
	'18년(B)	275,898	37,375	48,037	48,055	53,631	43,646	45,154
	증가율	184.1	48.2	90.8	218.2	453.5	282.2	336.1

주 : 2000년의 연령미상(전국 696명, 인천시 156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연령별 합이 전체와 상이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 3-21] 전국 및 인천시 1인 가구 비율(2000, 2018)

(단위 : %, %p)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국	'00년(A)	15.5	39.1	11.0	7.7	9.8	19.3	37.4
	'18년(B)	29.3	72.6	31.3	20.0	20.4	26.0	37.1
	차이(B-A)	13.8	33.5	20.3	12.3	10.6	6.7	-0.3
인천	'00년(A)	13.0	34.5	10.6	6.8	8.4	16.7	32.2
	'18년(B)	25.2	59.7	26.3	18.8	18.6	24.6	35.4
	차이(B-A)	12.2	25.2	15.7	12.0	10.2	7.9	3.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인천시 군·구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옹진군(43.5%)과 중구(35.1%)가 전국(29.3%) 및 인천시(25.2%)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기준 50대가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40대(4.4%) 순으로 나타남
 - 전국의 경우, 70대 이상(5.4%), 20대(5.1%), 30대(5.0%) 순으로 상이하게 분석
- 군·구의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은 중구는 20대(7.6%), 연수구는 30대(4.3%) 등 청년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군(10.9%)과 동구(7.9%)는 70대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연수구, 서구, 중구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반면, 옹진군, 강화군, 동구 등 도서지역과 원도심 지역은 높게 분석(인천연구원, 2020)

[표 3-22] 전국 및 인천시 군·구 연령대별 1인 가구 수 및 구성비 현황(2018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 가구 수	1인 가구 수	연령대별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국	19,979,188 (100.0)	5,848,594 (29.3)	58,154 (0.3)	1,019,944 (5.1)	992,737 (5.0)	864,221 (4.3)	974,444 (4.9)	869,904 (4.4)	1,069,190 (5.4)
인천시	1,094,749 (100.0)	275,898 (25.2)	1,278 (0.1)	36,097 (3.3)	48,037 (4.4)	48,055 (4.4)	53,631 (4.9)	43,646 (4.0)	45,154 (4.1)
중구	48,828 (100.0)	17,162 (35.1)	59 (0.1)	3,731 (7.6)	3,257 (6.7)	2,624 (5.4)	2,813 (5.8)	2,335 (4.8)	2,343 (4.8)
동구	25,737 (100.0)	6,887 (26.8)	83 (0.3)	380 (1.5)	628 (2.4)	934 (3.6)	1,291 (5.0)	1,535 (6.0)	2,036 (7.9)
미추홀구	162,813 (100.0)	46,210 (28.4)	197 (0.1)	6,704 (4.1)	7,695 (4.7)	7,568 (4.6)	8,441 (5.2)	7,690 (4.7)	7,915 (4.9)
연수구	120,190 (100.0)	26,658 (22.2)	262 (0.2)	5,107 (4.2)	5,205 (4.3)	4,651 (3.9)	4,707 (3.9)	3,226 (2.7)	3,500 (2.9)
남동구	201,623 (100.0)	51,191 (25.4)	146 (0.1)	6,582 (3.3)	9,662 (4.8)	9,334 (4.6)	9,781 (4.9)	8,010 (4.0)	7,676 (3.8)
부평구	195,852 (100.0)	48,607 (24.8)	148 (0.1)	5,235 (2.7)	8,314 (4.2)	8,285 (4.2)	9,657 (4.9)	8,200 (4.2)	8,768 (4.5)
계양구	114,050 (100.0)	26,424 (23.2)	226 (0.2)	2,489 (2.2)	4,079 (3.6)	5,179 (4.5)	6,015 (5.3)	4,215 (3.7)	4,221 (3.7)
서구	189,779 (100.0)	41,024 (21.6)	127 (0.1)	4,864 (2.6)	8,307 (4.4)	8,227 (4.3)	8,510 (4.5)	5,923 (3.1)	5,066 (2.7)
강화군	26,728 (100.0)	7,759 (29.0)	19 (0.1)	312 (1.2)	405 (1.5)	750 (2.8)	1,568 (5.9)	1,804 (6.7)	2,901 (10.9)
옹진군	9,149 (100.0)	3,976 (43.5)	11 (0.1)	693 (7.6)	485 (5.3)	503 (5.5)	848 (9.3)	708 (7.7)	728 (8.0)

주 : 구성비는 반올림 처리되어 부분의 합과 전체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4) 외국인 현황

인천시 거주 외국인

- 인천시 거주 외국인 수는 2018년 기준, 115,720명으로 인천시 총인구수의 3.9% 규모이며, 연평균(2009~2018) 7.3% 증가 추세임
- 전국 외국인 수는 2,054,621명으로 총인구수 대비 4.0% 수준이며, 연평균 7.1% 증가 추세
- 인천시의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¹⁶⁾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 결혼이민자 및 기타 외국인은 증가 추세(인천연구원, 2020)

[표 3-23] 전국 및 인천시 외국인 현황 추이(2009년~2018년)

(단위 : 명, %)

구분	전국				인천시			
	총인구수	외국인 수	구성비	증가율	총인구수	외국인 수	구성비	증가율
2009년	49,593,665	1,106,884	2.2	-	2,693,722	61,522	2.3	-
2010년	49,773,145	1,139,283	2.3	2.9	2,710,579	63,575	2.3	3.3
2011년	50,515,666	1,265,006	2.5	11.0	2,758,296	69,350	2.5	9.1
2012년	50,734,284	1,409,577	2.8	11.4	2,801,274	73,588	2.6	6.1
2013년	50,948,272	1,445,631	2.8	2.6	2,843,981	75,552	2.7	2.7
2014년	51,141,463	1,569,470	3.1	8.6	2,879,782	82,523	2.9	9.2
2015년	51,327,916	1,741,919	3.4	11.0	2,902,608	91,525	3.2	10.9
2016년	51,269,554	1,764,664	3.4	1.3	2,913,024	94,670	3.2	3.4
2017년	51,422,507	1,861,084	3.6	5.5	2,925,967	104,441	3.6	10.3
2018년	51,629,512	2,054,621	4.0	10.4	2,936,117	115,720	3.9	10.8
연평균 증가율	7.1				7.3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 주민현황」

- 인천시 군·구별 외국인 비율은 중구의 경우, 2009년 이후 4.8%~5.8%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2009~2018)은 연수구(17.8%)와 부평구(9.8%)에서 높게 나타남.

16)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으로 구분함.

[표 3-24] 인천시 군·구별 외국인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단위: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전국	2.2	2.3	2.5	2.8	2.8	3.1	3.4	3.4	3.6	4.0	7.1
인천시	2.3	2.3	2.5	2.6	2.7	2.9	3.2	3.2	3.6	3.9	7.3
중구	5.1	5.4	5.6	5.8	5.5	5.4	5.8	4.9	4.8	4.9	2.8
동구	2.1	2.1	2.1	2.2	2.3	2.5	2.5	2.3	2.4	2.7	1.4
미추홀구	2.0	2.1	2.3	2.4	2.5	2.7	2.9	3.0	3.3	3.5	6.2
연수구	1.5	1.5	1.8	2.0	2.2	2.5	3.0	3.4	4.1	4.9	17.8
남동구	3.0	3.0	3.3	3.3	3.2	3.4	3.6	3.5	3.6	3.9	5.0
부평구	1.9	2.0	2.1	2.4	2.5	2.8	3.2	3.5	4.2	4.8	9.8
계양구	1.5	1.5	1.6	1.7	1.7	1.8	1.9	1.8	1.9	2.1	3.0
서구	3.1	3.1	3.3	3.2	3.1	3.2	3.5	3.7	3.9	4.0	6.2
강화군	1.3	1.3	1.4	1.5	1.7	1.7	1.8	2.3	2.3	2.5	7.3
옹진군	1.0	1.1	1.0	1.3	1.2	1.2	1.4	1.7	1.6	1.9	8.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 주민현황」

- 인천시 거주 외국인 유형은 2018년 기준, 기타 외국인 30,802명(26.6%), 외국인 근로자 25,539(22.1%), 외국국적동포 17,295명(14.9%), 외국인 주민 자녀 13,671명(11.8%),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13,560명(11.7%), 결혼이민자 10,875명(9.4%), 유학생 3,967명(3.4%) 순임
- 인천시 거주 외국인의 대륙별 비율은 아시아(89.3%), 유럽(5.0%), 북미(4.1%), 아프리카(1.0%), 오세아니아(0.4%), 중남미(0.2%) 등
-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32.1%), 중국(12.2%), 베트남(8.1%), 태국(7.8%), 우즈베키스탄(4.3%), 필리핀(3.4%) 등 동북아(49.8%) 및 동남아(25.7%) 국적 비율이 높게 조사
- 외국인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동남아(41.4%)가 동북아(3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계 중국(29.1%), 베트남(9.3%), 미얀마(8.0%), 필리핀(7.8%) 순
- 그 외 외국인 유형은 동북아 비율이 동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는 한국계 중국, 유학생과 기타 유형은 중국이 가장 높게 조사
- 군·구별 거주 외국인 수는 부평구(25,415명), 남동구(21,179명), 서구(21,121명), 연수구(17,289명), 미추홀구(14,612명) 순으로 나타남
- 군·구별 전체 인구 대비 거주 외국인 비율은 연수구·중구(4.9%), 부평구(4.8%), 서구(4.0%), 남동구(3.9%) 순

- 동별로는 연수구 연수1동, 남동구 논현고잔동, 논현2동, 부평구 부평 1·4~5동, 십정2동, 서구 오류왕길동, 가좌1동, 검암경서동 등 공업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
-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남동구·서구(1.3%), 결혼이민자는 부평구·중구(0.5%), 유학생은 미추홀구(0.4%)와 연수구(0.3%), 외국국적동포는 부평구·연수구(1.0%), 기타 외국인은 연수구(1.9%), 중구(1.7%), 부평구(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5] 인천시 군·구별 외국인 수 및 구성비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수 소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전국	51,629,512 (100.0)	2,054,621 (4.0)	528,063 (1.0)	166,882 (0.3)	142,757 (0.3)	296,023 (0.6)	517,836 (1.0)	176,915 (0.3)	226,145 (0.4)
인천시	2,936,117 (100.0)	115,720 (3.9)	25,539 (0.9)	10,875 (0.4)	3,978 (0.1)	17,295 (0.6)	30,802 (1.0)	13,560 (0.5)	13,671 (0.5)
중구	119,514 (100.0)	5,817 (4.9)	1,053 (0.9)	623 (0.5)	27 (0.0)	768 (0.6)	2,083 (1.7)	666 (0.6)	597 (0.5)
동구	65,185 (100.0)	1,774 (2.7)	394 (0.6)	206 (0.3)	- (0.0)	201 (0.3)	400 (0.6)	256 (0.4)	314 (0.5)
미추홀구	415,102 (100.0)	14,612 (3.5)	1,934 (0.5)	1,611 (0.4)	1,823 (0.4)	2,111 (0.5)	3,180 (0.8)	2,034 (0.5)	1,919 (0.5)
연수구	349,963 (100.0)	17,289 (4.9)	2,938 (0.8)	1,057 (0.3)	1,130 (0.3)	3,449 (1.0)	6,657 (1.9)	837 (0.2)	1,221 (0.3)
남동구	537,389 (100.0)	21,179 (3.9)	7,053 (1.3)	1,940 (0.4)	183 (0.0)	2,463 (0.5)	4,936 (0.9)	2,137 (0.4)	2,467 (0.5)
부평구	525,014 (100.0)	25,415 (4.8)	3,748 (0.7)	2,431 (0.5)	289 (0.1)	5,310 (1.0)	6,592 (1.3)	4,333 (0.8)	2,712 (0.5)
계양구	307,598 (100.0)	6,534 (2.1)	840 (0.3)	878 (0.3)	388 (0.1)	658 (0.2)	1,442 (0.5)	984 (0.3)	1,344 (0.4)
서구	532,713 (100.0)	21,121 (4.0)	6,952 (1.3)	1,919 (0.4)	129 (0.0)	2,196 (0.4)	5,115 (1.0)	2,100 (0.4)	2,710 (0.5)
강화군	64,432 (100.0)	1,610 (2.5)	486 (0.8)	173 (0.3)	6 (0.0)	111 (0.2)	334 (0.5)	165 (0.3)	335 (0.5)
옹진군	19,207 (100.0)	369 (1.9)	141 (0.7)	37 (0.2)	- (0.0)	28 (0.1)	63 (0.3)	48 (0.2)	52 (0.3)

주: 구성비는 반올림 처리되어 부분의 합과 전체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 주민현황」

다문화 가구

- 인천시 다문화 가구는 2016년 60,005명(전국의 6.2%)에서 2018년 65,112명(6.5%)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2016~2018) 4.2% 증가 추세임
 - 전국 다문화 가구는 2016년 96만 명에서 2018년 10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3% 증가 추세
- 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23,512명(36.1%), 한국인 배우자 18,457명(28.3%), 자녀 14,520명(22.3%), 기타동거인 8,623명(13.2%) 등임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귀화자(19.5%)가 결혼이민자(16.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는 국내 출생(20.9%)이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1.4%)에 비해 높게 분석

[표 3-26] 전국 및 인천시 다문화 가구 추이(2016년~2018년)

(단위 : 명, %)

구분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결혼 이민자	귀화자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내국인	외국인
2016년	전국	963,174	298,858	158,620	151,002	9,750	189,411	106,781	48,752
	인천시	60,005	17,752	9,830	10,460	754	11,604	6,663	2,942
2017년	전국	963,801	301,354	159,958	160,687	8,804	212,146	75,468	45,384
	인천시	60,809	17,732	10,116	11,772	740	12,776	4,804	2,869
2018년	전국	1,008,520	311,668	165,919	166,830	9,924	225,358	80,759	48,062
	인천시	65,112	18,457	10,840	12,672	883	13,637	5,216	3,407
연평균 증가율	전국	2.3	2.1	2.3	5.1	0.9	9.1	-13.0	-0.7
	인천시	4.2	2.0	5.0	10.1	8.2	8.4	-11.5	7.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 주민현황」

- 군·구별 다문화 가구는 부평구 15,022명(23.1%), 서구 11,679명(17.9%), 남동구 11,343명(17.4%), 미추홀구 9,518명(14.6%) 등 순으로 나타남
 - 동별로는 부평구 부평5동 2,494명(3.8%), 부평4동 2,076명(3.2%), 부평1동 (1.8%), 부평구 십정2동 및 서구 검암경서동(1.7%) 등 순으로 부평구 내 지역이 높게 조사

- 유형별로는 옹진군(42.3%)과 강화군(40.0%)은 한국인 배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평구(43.2%)와 중구(37.1%)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자녀의 경우, 강화군(26.2%)과 서구(24.5%), 기타 동거인 비율은 부평구(14.3%)와 연수구(13.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

[표 3-27]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 가구 수 및 구성비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결혼 이민자	귀화자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내국인	외국인
전국	1,008,520 (100.0)	311,668 (30.9)	165,919 (16.5)	166,830 (16.5)	9,924 (1.0)	225,358 (22.3)	80,759 (8.0)	48,062 (4.8)
인천시	65,112 (100.0)	18,457 (28.3)	10,840 (16.6)	12,672 (19.5)	883 (1.4)	13,637 (20.9)	5,216 (8.0)	3,407 (5.2)
중구	3,287 (100.0)	977 (29.7)	616 (18.7)	604 (18.4)	63 (1.9)	588 (17.9)	239 (7.3)	200 (6.1)
동구	1,426 (100.0)	480 (33.7)	205 (14.4)	236 (16.5)	19 (1.3)	313 (21.9)	134 (9.4)	39 (2.7)
미추홀구	9,518 (100.0)	2,682 (28.2)	1,608 (16.9)	1,893 (19.9)	138 (1.4)	1,917 (20.1)	739 (7.8)	541 (5.7)
연수구	5,479 (100.0)	1,641 (30.0)	1,049 (19.1)	749 (13.7)	76 (1.4)	1,215 (22.2)	508 (9.3)	241 (4.4)
남동구	11,343 (100.0)	3,340 (29.4)	1,936 (17.1)	2,019 (17.8)	121 (1.1)	2,463 (21.7)	909 (8.0)	555 (4.9)
부평구	15,022 (100.0)	3,409 (22.7)	2,425 (16.1)	4,074 (27.1)	262 (1.7)	2,706 (18.0)	987 (6.6)	1,159 (7.7)
계양구	5,785 (100.0)	1,837 (31.8)	878 (15.2)	941 (16.3)	45 (0.8)	1,344 (23.2)	542 (9.4)	198 (3.4)
서구	11,679 (100.0)	3,455 (29.6)	1,913 (16.4)	1,954 (16.7)	150 (1.3)	2,708 (23.2)	1,041 (8.9)	458 (3.9)
강화군	1,289 (100.0)	516 (40.0)	173 (13.4)	158 (12.3)	6 (0.5)	331 (25.7)	90 (7.0)	15 (1.2)
옹진군	284 (100.0)	120 (42.3)	37 (13.0)	44 (15.5)	3 (1.1)	52 (18.3)	27 (9.5)	1 (0.4)

주 : 구성비는 반올림 처리되어 부분의 합과 전체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 주민현황」

5) 인구 전망

(1) 인구변화 전망

- 장래인구추계¹⁷⁾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수는 2017년 2,924천 명(전국의 5.7%)에서 2047년 2,947천 명(6.0%)으로 30년간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의 인구수는 2017년 51,362천 명에서 2047년 48,911천 명으로 4.8%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전국 특·광역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 인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예측되며, 부산시와 대구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이 전망

[표 3-28] 전국 및 특·광역시도 인구 전망(2017년~2047년)

(단위 :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2017년	51,361,911 (100.0)	9,766,399 (19.0)	3,424,409 (6.7)	2,457,769 (4.8)	2,923,859 (5.7)	1,495,392 (2.9)	1,527,784 (3.0)	1,158,787 (2.3)	265,517 (0.5)	634,919 (1.2)
2047년	48,910,639 (100.0)	8,319,771 (17.0)	2,681,696 (5.5)	2,000,239 (4.1)	2,946,991 (6.0)	1,263,274 (2.6)	1,325,032 (2.7)	967,750 (2.0)	594,696 (1.2)	784,292 (1.6)
증가율	-4.8	-14.8	-21.7	-18.6	0.8	-15.5	-13.3	-16.5	124.0	23.5

주 : 2017년 중위추계(기본추계) 기준으로,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천시 영유아 인구는 2017년 155.6천 명(5.3%)에서 2047년 99.8천 명(3.4%)으로 3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 영유아 인구는 2,620천 명(5.1%)에서 2047년 1,669천 명(3.4%)로 36.3% 수준 감소 예측
- 인천시 청년인구는 2017년 889.3천 명(30.4%)에서 2047년 480.7천 명(16.3%)으로 4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 청년인구는 2017년 15,098천 명(29.4%)에서 2047년 7,974천 명(16.3%)로 47.2% 수준 감소 예측

17)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7~2047)는 2017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한 결과임. 연구에서는 출산율, 기대수명 및 국내순이동의 중요가정 조합인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함.

- 반면, 인천시 고령인구는 2017년 333.4천 명(11.4%)에서 2047년 1,112.7천 명(37.8%)으로 233.7% 증가가 전망됨
- 전국 고령인구는 2017년 7,066천 명(13.8%)에서 2047년 18,787천 명(38.4%)로 165.9% 증가 예측
- 인천시는 2027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20.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표 3-29] 인천시 인구구조별 인구 전망(2017년~2047년)

(단위 : 명, %, %p)

구분		2017년	2027년	2037년	2047년	'17년 대비	'47년
						증감	증가율
전국	전체 인구	51,361,911 (100.0)	51,933,215 (100.0)	51,381,324 (100.0)	48,910,639 (100.0)	-2,451,272 -	-4.8
	영유아 인구 (6세 미만)	2,620,385 (5.1)	1,888,649 (3.6)	2,004,966 (3.9)	1,668,627 (3.4)	-951,758 (-1.7)	-36.3
	청년인구 (19세~39세)	15,097,831 (29.4)	12,986,305 (25.0)	10,230,518 (19.9)	7,974,448 (16.3)	-7,123,383 (-13.1)	-47.2
	고령인구 (65세 이상)	7,066,060 (13.8)	11,589,115 (22.3)	16,138,714 (31.4)	18,787,212 (38.4)	11,721,152 (24.6)	165.9
인천시	전체 인구	2,923,859 (100.0)	3,008,358 (100.0)	3,045,497 (100.0)	2,946,991 (100.0)	23,132 -	0.8
	영유아 인구 (6세 미만)	155,581 (5.3)	111,450 (3.7)	119,313 (3.9)	99,794 (3.4)	-55,787 (-1.9)	-35.9
	청년인구 (19세~39세)	889,278 (30.4)	767,100 (25.5)	610,753 (20.1)	480,670 (16.3)	-408,608 (-14.1)	-45.9
	고령인구 (65세 이상)	333,429 (11.4)	621,814 (20.7)	925,965 (30.4)	1,112,692 (37.8)	779,263 (26.4)	233.7

주 : 2017년 중위추계(기본추계) 기준으로,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1인 가구 전망

- 장래가구추계¹⁸⁾에 따르면, 인천시 1인 가구 수는 2017년 264천 가구에서 2047년 475천 가구로 약 7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2017년 5,583천 가구에서 2047년 8,320천 가구로 약 49.0% 증가 예측
-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시의 1인 가구 구성비가 11.5%p 증가하여 전국 17개시도 중 가장 높게 예측됨

18)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7~2047)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를 기초로 추정됨. 추계방법은 가구주율(대상인구 중 가구주가 되는 비율)의 장래변동수준을 추계, 장래추계인구에 적용하여 장래가구를 산출하는 가구주율법(Headship Rate Method)*이 활용됨.

- 인천시의 1인 가구 구성비는 2017년 24.6%에서 2047년 36.1%로 11.5%p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경우, 2017년 28.5%에서 2047년 37.3%로 8.8%p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3-30] 전국 및 인천시 1인 가구 수 및 구성비(2017년~2047년)

(단위 : 가구, %, %p)

구분	2017	2027	2037	2047	'17년 대비 '47년	증가율
					증감	
전국	5,583,191 (28.5)	7,114,215 (32.9)	8,076,373 (35.7)	8,320,132 (37.3)	2,736,941 (8.8)	49.0
인천시	264,468 (24.6)	356,090 (29.4)	435,018 (33.4)	474,831 (36.1)	210,363 (11.5)	79.5

주 : 2017년 기준 추계로 2017~2047년 추계가구 수임.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인천시 연령별 1인 가구 수는 2047년 기준 70대 이상이 210천 가구(44.2%), 60대가 80천 가구(16.8%)로 인천시 전체 1인 가구의 61.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대비 2047년 증가율은 70대 이상이 412.4%, 60대가 107.4%로 높은 증가 추세
- 반면, 30대 1인 가구 수는 2017년 47.6천 가구에서 2047년 36.7천 가구로 22.9% 감소하며, 20대 이하 1인 가구 수는 37.8천 가구에서 29.5천 가구로 21.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표 3-31] 인천시 연령별 1인 가구 수 및 구성비 추이(2017년~2047년)

(단위 : 가구, %, %p)

구분	2017	2027	2037	2047	'17년 대비 '47년	증가율
					증감	
인천시	264,468 (100.0)	356,090 (100.0)	435,018 (100.0)	474,831 (100.0)	210,363 -	79.5
20대 이하	37,771 (14.3)	37,679 (10.6)	36,556 (8.4)	29,534 (6.2)	-8,237 (-8.1)	-21.8
30대	47,551 (18.0)	49,546 (13.9)	41,508 (9.5)	36,681 (7.7)	-10,870 (-10.3)	-22.9
40대	47,917 (18.1)	53,533 (15.0)	57,114 (13.1)	48,088 (10.1)	171 (-8.0)	0.4
50대	51,761 (19.6)	63,360 (17.8)	66,843 (15.4)	70,824 (14.9)	19,063 (-4.7)	36.8
60대	38,531 (14.6)	70,987 (19.9)	80,454 (18.5)	79,927 (16.8)	41,396 (2.3)	107.4
70대 이상	40,937 (15.5)	80,985 (22.7)	152,543 (35.1)	209,777 (44.2)	168,840 (28.7)	412.4

주 : 2017년 기준 추계로 2017~2047년 추계가구 수임.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 인천시 관련 정책 추진현황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계획

- 인천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청년인구 등과 관련된 문화여가 분야의 지원정책을 제시함([표 3-32] 참고)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15) 및 인천 2030 미래이음(2020)에서는 청년 및 고령인구,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관련 문화여가 정책 제시
- 저출산, 청년, 고령사회 등 대응 계획에서는 대상별 문화여가 공간 조성, 관련 모임 및 문화여가비 지원, 일자리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수립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7) 및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에서는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및 세대 통합 및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등 제시

[표 3-32]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계획

구분	계획기간	주요 내용
2030년 인천도시 기본계획 (2015)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세대공감 공원·문화시설 보급 - 1인 가구 및 고령자 친화형 거주공간 조성 •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문화거점 형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확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체계 구축 : 시니어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복합 교육·문화공간 조성
인천 2030 미래이음 (2020)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건강한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누리는 문화 :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시민을 문화주체로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 시민을 위한 스포츠 : 평생동안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 맞춤형 체육인프라 확대 •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 - 시민 삶이 행복한 으뜸교육 도시 : 시민 삶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 등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2018)	2018~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 활성화 :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청년상상플랫폼) 운영(청년모임 지원, 토크콘서트, 네트워킹 등),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자기계발, 문화생활 등 복지지원 카드 또는 포인트)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 실천분위기 확산 : 가족사랑의 날,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표 3-32] 계속

구분	계획기간	주요 내용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9)	2020~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청년 문화향유 플랫폼 • 청년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 문화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문화활동가 인천 정착 프로그램 • 청년예술인 지원·육성 • 청년 생활문화 확산 프로젝트 공모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2019)	2019~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 인천효드림복지카드 도입 -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다변화, 액티브 경로당 활성화 추진,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등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2017)	2018~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문화시민이 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을 문화의 주체로 : 인천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기반 마련 • 문화와 역사로 자부심을 갖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예술창작 플랫폼 지원 등 • 문화공간이 가까운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및 균형적 확산 : 인천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등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협력 : 문화다양성 시민 협약 및 액션 플랜 수립, 인천 세대잇기 프로젝트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 시행계획 (2020)	2020~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강화 :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생애주기별·가족형태별 시민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지역자원 활용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인천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 지역별 생활문화활동 다양화 : 생활문화 지원 체계화, 생활문화센터 및 시설 확충, 다양한 생활문화활동 지원 -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리 증진 : 유희공간 활용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등 - 문화다양성 증진 및 가치 확산 : 문화다양성 증진 기반 구축, 사업 확대, 가치 확산 등 •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원 발굴 및 융합적 활용 활성화 : 문화유산 연구·체험·교육 활성화 등 -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 인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인천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 - 생활권 로컬관광산업 육성 : 지역특화 생활관광 콘텐츠 육성 등 •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재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시설 전략적 확충 : 원도심 재생 연계 문화시설 조성(인천뮤지엄파크, '가칭' 인천도서관 조성),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격차 해소(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 문화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확대 : 문화격차 대응 맞춤형 지원, 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문화기반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활성화)

자료 : 인천광역시(2015),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20.1.), 인천 2030 미래이음; 인천광역시(2017.6.),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인천광역시·인천문화재단·인천연구원(2020.6.),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인천광역시(2019.11.),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천광역시(2018),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19),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사업

-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사업은 문화관광국, 건강체육국, 복지국, 해양항공국, 여성가족국,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추진 중임([표 3-33] 참고)
- 주요 사업은 영유아·청년·노인 대상 문화여가 공간 조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다문화가족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청년·노인 대상 문화여가비 지원 등

[표 3-33]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화여가 사업

구분		주요 사업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 특화축제(카약축제, 노을축제 등) 및 문화행사 개최
	도서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아라뱃길 리딩보트 - 유람선에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 및 음악회 운영 • 책, 피어라 콘서트 - 아트북페어, 배다리 서점과 함께 인문강좌 및 책방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독서동아리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및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 지역주민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 및 노후 문화시설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 문화 오아시스 조성 및 지원 : 민간 문화공간과 유희공간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 -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 - 라이브 뮤직 홀리데이 선정 지원 : 작은 민간공연장 활성화 •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 개항장 일원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프리마켓 운영 • 시민문화예술 교육지원 - 생애주기별(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 등)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확대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대학, 토요문화학교 등 •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 -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 남북 문화예술 교류센터 운영 • 문화복지 실현 -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문화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물 가치 재창출 - 제물포구락부 등 시민 쉼터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등 • 내실있는 역사·문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인천역사캠핑, 인천역사 시민대학 운영 등 • 향유 가능한 문화재의 개방·활용 - 문화재·문화시설 야간 개방 축제 개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탐방·체험·교육 등 문화재 활용사업 • 무형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 가족, 외국인 대상 체험교실 운영, 양로원·요양원 공연

[표 3-33] 계속

구분		주요 사업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산업 육성 :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제작, 문화다양성 워크숍,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등 • 시민체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및 강화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 콘텐츠 제작 등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및 전시콘텐츠 계획 수립 • 도심 속 이색공간 트라이보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전시, 축제, 교육(문화예술워크숍, 프로그램 등)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문화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연수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산업 등 • 인천뮤지엄파크의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플랫폼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생활체육교실·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 시민 친화 공간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복지국 (노인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공감 효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 건강, 여가, 전통문화 등 사용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 노인여가문화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대, 개방형 경로당 운영, 민간시설을 활용한 노인여가문화 보급사업 등
해양항공국 (해양친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부두, 소래습지 등 시민이용 해양친수공간 조성 • 사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물놀이체험장, 대형실내놀이시설, 안전체험관 등
	가족다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연계 활성화 •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운영 등 •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 체육활동, 전통문화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체험, 인천명소 탐방 등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개발 및 문화생활 등 복지지원 상품권 또는 포인트 지원 • 인천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확대운영 및 추가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모임 지원 등

자료 : 인천광역시(2020), 2020년 주요업무계획

3. 인천시 문화여가 관련 실태분석

1) 조사 개요

-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가·문화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승인통계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가·문화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함
- 여가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문화향유 부문은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를 분석에 활용함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와 2019년 인천광역시 청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 내용을 보완
- 분석은 여가·문화 인식, 여가·문화 실태, 여가·문화 성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항목은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및 참여 활동, 참여 여가활동, 공간 및 지출, 여가활동 및 공간 만족도 등임

[표 3-34] 분석 항목

구분	주요 항목	주 활용 자료
여가·문화 인식	• 문화예술 활동 변화 인식,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및 참여 선택 기준·어려움·보완점, 문화예술교육 걸림돌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여가·문화 실태	•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활동,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지출, 문화예술교육 경험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참여 여가활동, 동호회 및 자원봉사 활동, 여가시간 및 휴가 사용, 여가활동 주 목적, 여가 공간 및 지출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문화 성과	•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 공간 만족도 등	국민여가활동조사

- 조사주기를 고려하여 가장 최근 발행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SPSS.2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을 진행함
-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대상 조사통계로 인천시 20~30대 청년 및 60대 이상 노인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

[표 3-35] 분석 활용 자료

구분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노인실태조사	인천광역시 청년 실태조사
조사목적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 파악	국민의 문화향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문화 향유 경로와 방식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노인정책 및 향후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인천시 청년들의 취·창업, 참여, 주거, 문화 등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정책수요 도출
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천광역시
조사년도 (주기)	2018년 (2년)	2019년 (1년)	2017년 (3년)	2019년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15세 이상 남녀	전국 17개 시·도 만15세 이상 남녀	전국 17개 시·도 만65세 이상 남녀	인천광역시 거주 만19~39세 남녀
표본수	10,498명 (인천시 : 청년) 200명 *20대 97명, 30대 103명 (인천시 : 노인) 140명 *60대 78명, 70대 이상 62명	10,102명 (인천시 : 청년) 201명 *20대 97명, 30대 104명 (인천시 : 노인) 147명 *60대 91명, 70대 이상 56명	10,299명 (인천시) 485명 *60대 164명, 70대 204명, 80대 이상 118명	(인천시) 2,007명 *20대 746명, 30대 1,261명
주요 조사 내용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 공간 이용 실태,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여가 인식, 여가만족도 등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실태,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현황,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용 경험 및 방문의향, 동호회 참여 경험 등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실태,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 활동, 사회·여가문화 활동 만족도 등	여가활동 실태, 문화공간 이용경험, 교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참여 실태, 청년 문화생활 활성화 정책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11.),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인천광역시(2019.11.),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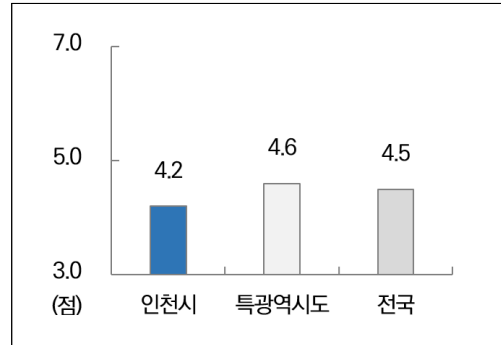
2) 청년 분야 분석 결과

(1) 여가·문화 인식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변화 인식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변화 인식은 평균 4.2점/7.0점으로 9개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전국 평균(4.5점) 및 특·광역시도 평균(4.6점) 대비 낮게 조사
- 세종(5.3점), 제주(5.0점), 서울(4.8점), 광주(4.7점), 부산·대구(4.5점), 대전·울산(4.3점), 인천(4.2점) 순

[그림 3-2] 청년 문화예술 활동 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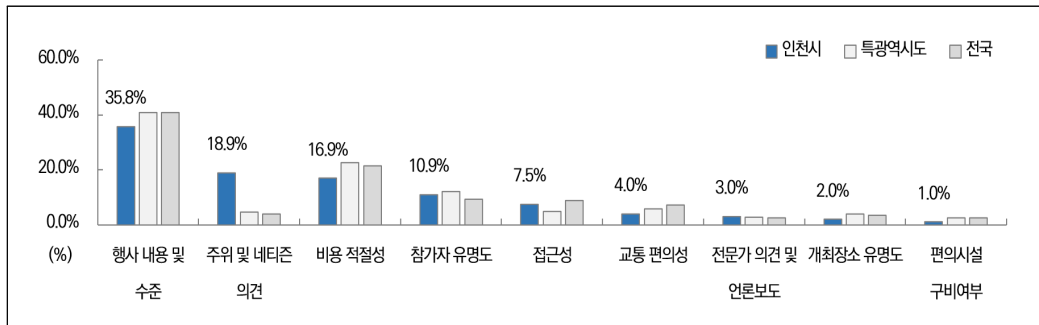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 및 어려움, 보완점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은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35.8%),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주위 의견 및 네티즌 의견(18.9%), 관람 비용의 적절성(16.9%) 순임
- 주위 의견 및 네티즌 의견은 전국(3.9%) 및 특·광역시도(4.5%) 대비 높게 분석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문화예술행사 내용 및 수준(37.7%) 및 관람 비용의 적절성(24.3%)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관람비용의 적절성은 미추홀구(30.7%)와 강화군(30.0%)에서 높게 조사

[그림 3-3] 청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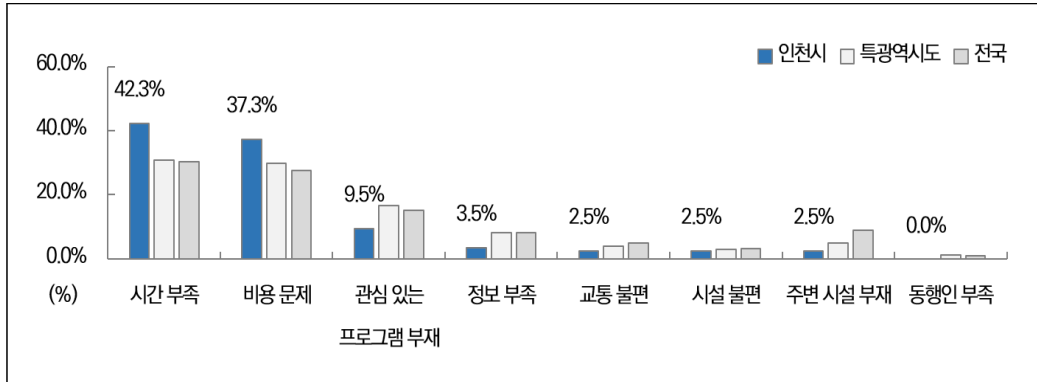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5명(0.3%), 전국 7명(0.2%)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걸림돌은 시간 부족(42.3%), 비용 문제(37.3%), 관심 있는 프로그램 부재(9.5%) 순으로 나타남

- 시간 부족과 비용 문제는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그림 3-4] 청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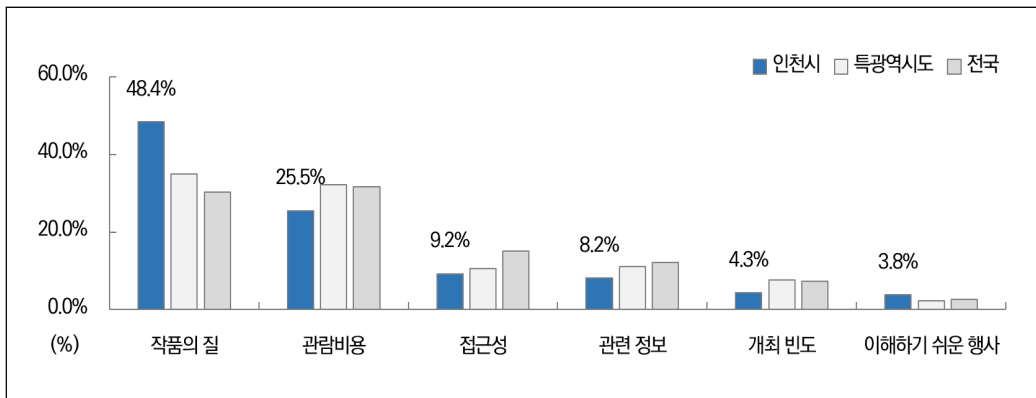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19명(1.1%), 전국 32명(1.0%)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보완점은 작품의 질(48.4%), 관람 비용(25.5%), 접근성(9.2%), 관련 정보(8.2%) 순임

[그림 3-5] 청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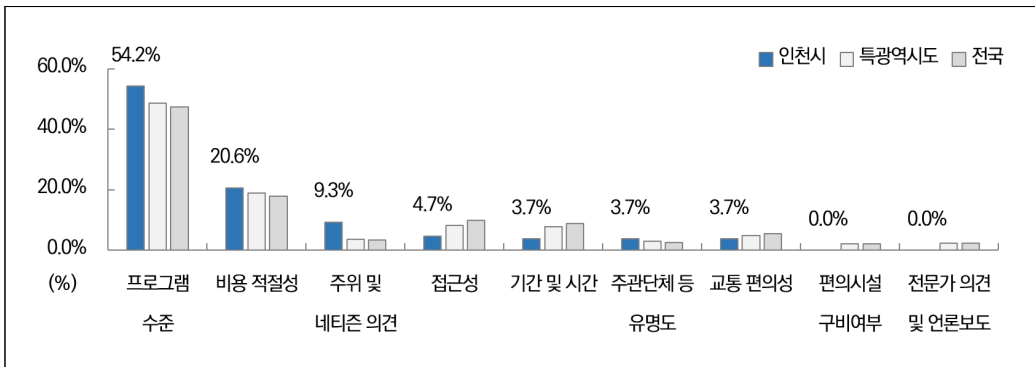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1명(0.5%), 특·광역시도 18명(1.1%), 전국 24명(0.8%)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준 및 어려움

-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중요한 기준은 프로그램 수준(54.2%), 비용의 적절성(20.6%), 문화행사에 대한 주위 의견(9.3%) 순으로 나타남
 - 접근성, 문화행사의 기간 및 시간, 교통 편의성은 전국 및 타 특·광역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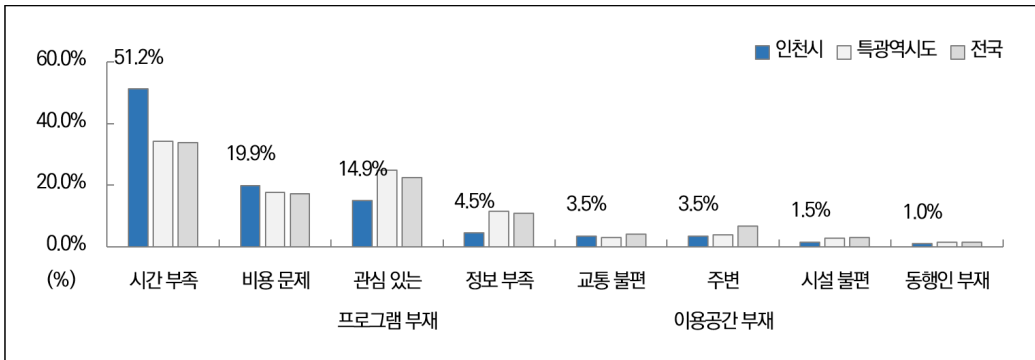
[그림 3-6] 청년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중요한 기준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1명(0.1%), 전국 2명(0.1%)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 부족(51.2%), 비용 문제(19.9%), 관심 있는 프로그램 부재(14.9%) 순임
 - 시간 부족 인식은 전국(34.3%) 및 타 특·광역시도(33.8%)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그림 3-7] 청년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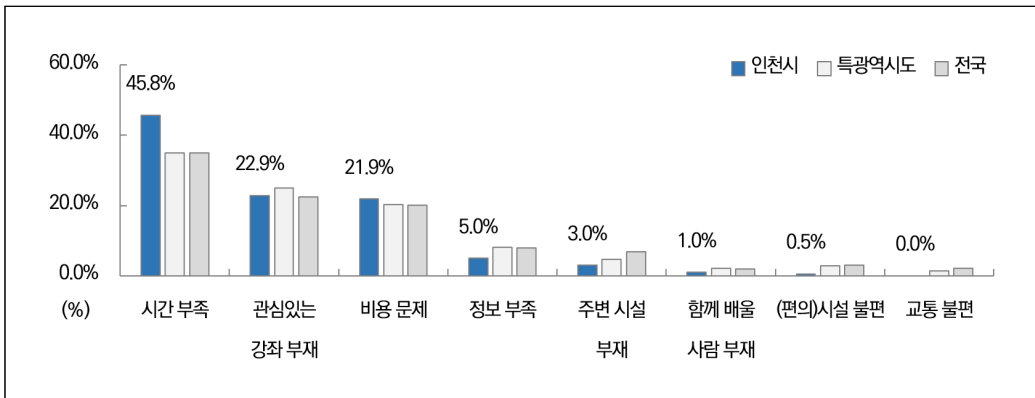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7명(0.4%), 전국 17명(0.5%)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교육 걸림돌

- 문화예술교육 걸림돌로는 시간 부족(45.8%), 관심 있는 강좌 부재(22.9%), 비용 문제(21.9%) 순으로 나타남
 - 시간 부족 문제는 전국 및 특·광역시도(각 35.0%)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

[그림 3-8] 청년 문화예술교육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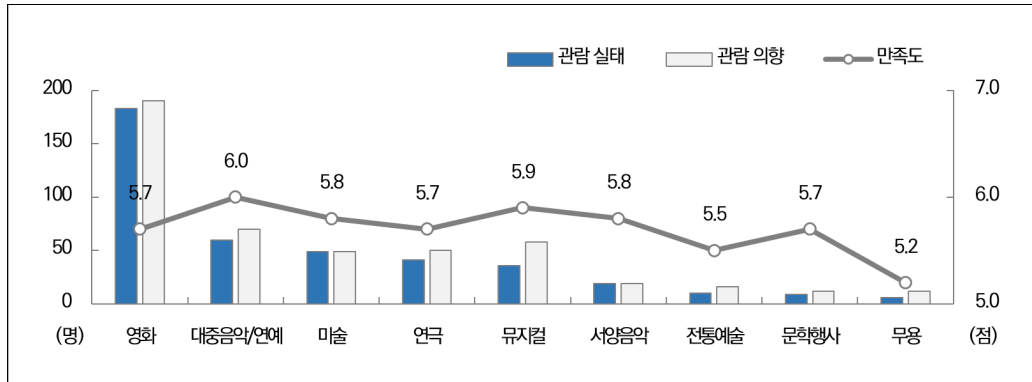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7명(0.4%), 전국 17명(0.5%)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2) 여가·문화 실태

문화예술행사 관람 활동

-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는 영화(42.6%), 대중음악/연예(14.0%), 미술(11.4%), 연극(9.5%) 순이며, 향후 1년 이내 관람 의향은 영화(39.2%), 대중음악/연예(14.4%), 뮤지컬(12.0%), 연극(10.3%), 미술(10.1%) 순임
 - 직접 관람 횟수는 영화(5.4회), 대중음악/연예(0.6회), 미술(0.5회), 연극(0.4회) 등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응답자의 69.2%가 관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람 실태는 영화(55.9%), 공연(55.8%), 미술(25.6%), 음악(21.8%) 순
- 만족도는 대중음악/연예(6.0점/7.0점), 뮤지컬(5.9점), 서양음악 및 미술(5.8점) 순이며, 영화는 5.7점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도 만족도는 대중음악/연예(6.0점), 뮤지컬(5.9점), 서양음악·무용·영화(5.8점) 순

[그림 3-9] 청년 문화예술행사 관람 활동 실태 및 의향, 만족도



주 : '없음' 응답은 관람 실태 17명(4.0%), 관람 의향 9명(1.9%)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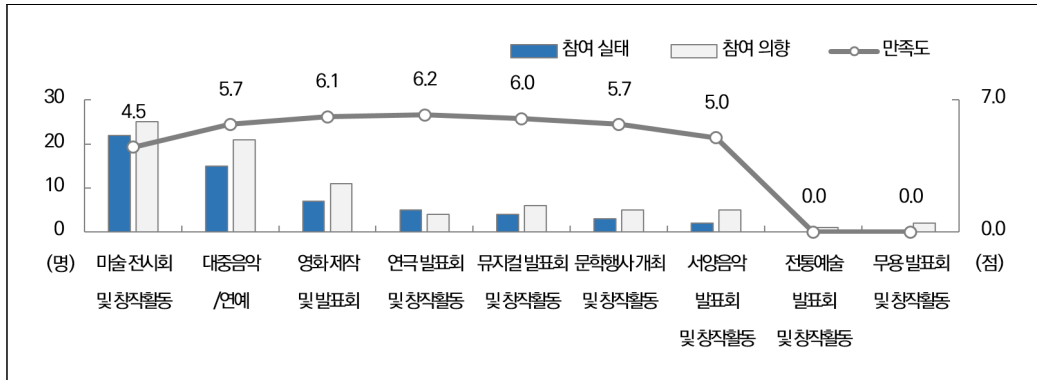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직접 관람 형태는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88.6%)에서의 입장권 구입(94.6%)을 통한 관람이 주를 이루었으며, 동행자는 친구(42.4%), 배우자(25.5%), 연인(16.3%) 순임
- 관람 시간은 주말 저녁(38.6%), 주말 낮(36.4%), 주중 저녁(20.7%), 주중 낮(4.3%) 순으로 나타남
 - 전국 및 특·광역시도는 주말 낮 시간(44.0%, 43.1%), 주말 저녁 시간(31.4%, 32.2%) 순으로 조사
 - 인천 및 대구 외 7개 특·광역시도에서 주말 낮 시간이 주말 저녁 시간보다 높게 조사
- 정보출처는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69.0%), 소셜미디어(18.5%), 주변사람(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내문, 공공단체/교육기관, 동호회 모임을 통한 정보획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행사 참여 활동

- 문화예술행사 참여 실태는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10.2%), 대중음악/연예(6.9%), 영화 제작 및 발표회(3.2%) 순이며, 향후 1년 이내 참여 의향 역시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11.0%), 대중음악/연예(9.3%), 영화 제작 및 발표회(4.8%) 순임
- 만족도는 연극 발표회 및 창작활동(6.2점/7.0점), 영화 제작 및 발표회(6.1점), 뮤지컬 발표회 및 창작활동(6.0점) 순으로 나타남
 - 참여 및 의향이 높은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은 4.5점으로 가장 낮게 분석

[그림 3-10] 청년 문화예술행사 참여 활동 실태 및 의향, 만족도



주 : '없음' 응답은 참여 실태 158명(73.1%), 참여 의향 147명(64.8%)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참여 동반자는 친구(37.2%), 배우자(18.6%), 연인(14.0%) 순이었으며, 주요 관람 시간은 주말 저녁 시간(39.5%)과 주말 낮 시간(37.2%)으로 나타남
- 전국 및 특·광역시도는 주말 낮 시간(40.7%, 39.6%), 주말 저녁 시간(29.1%, 34.4%) 순으로 분석
- 특·광역시 중 부산(44.8%), 대전(57.1%), 울산(50.0%), 제주(58.1%)는 주말 저녁 시간 문화예술행사 참여 비율이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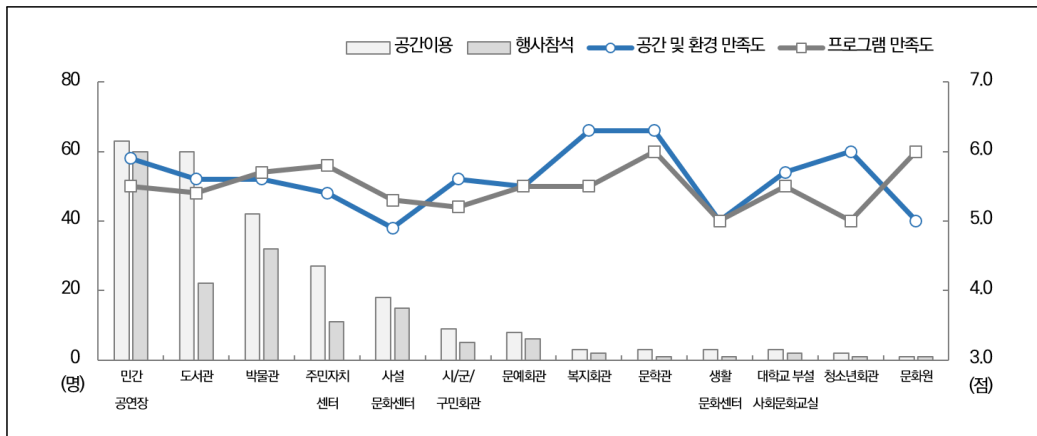
문화예술 활동 공간

- 문화예술 활동 공간은 민간공연장(19.9%), 도서관(19.0%), 박물관(13.3%) 순이며, 공간별 행사 참석 여부는 민간공연장(37.7%), 박물관(20.1%) 순임
- 공간이용 위치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공연장(이용객의 23.3%) 및 박물관(33.3%)은 거주 지역 외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공간별 평균 이용 횟수는 도서관 4.5회, 민간공연장 0.9회, 행사 참석 횟수는 사설 문화센터 4.4회, 민간공연장 2.4회로 분석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주이용 문화공간은 영화관(71.7%), 공연장 등 문예회관(32.2%), 도서관(23.3%), 미술관(19.4%), 박물관(18.5%) 순이며, 영화관, 도서관은 인천지역 내, 공연장 등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서울 이용률이 높게 조사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문화활동을 위해 더 조성되어야 할 문화시설로는 전용 공연장(34.0%), 공유문화공간(18.4%), 미술관 등 전시공간(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학력,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전용공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분석

- 공간 및 환경 만족도는 복지회관 및 문학관(6.3점/7.0점), 청소년회관(6.0점), 민간공연장(5.9점) 순이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문학관 및 문화원(6.0점), 주민자치센터(5.8점), 박물관(5.7점) 순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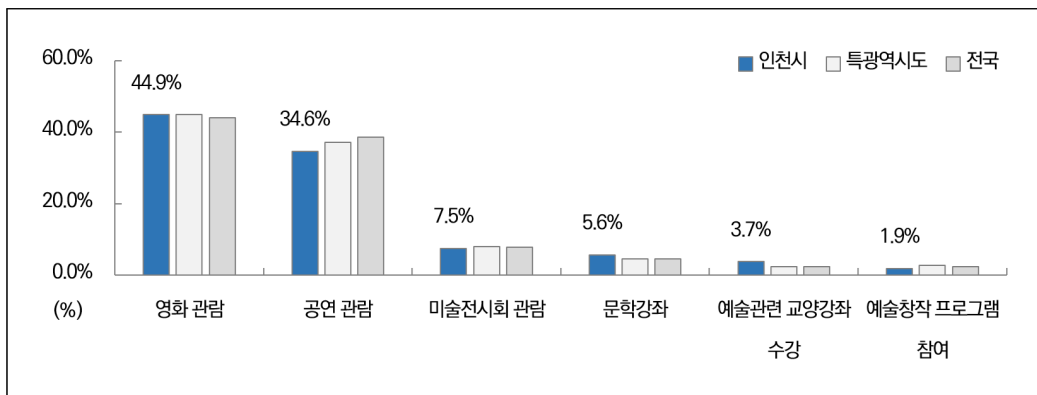
[그림 3-11] 청년 문화예술 활동 공간



주: '없음' 응답은 공간이용 74명(23.4%)이며, 복수응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 활동 공간 내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있다(53.2%)가 없다(46.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화 관람(44.9%), 공연 관람(34.6%), 미술전시회 관람(7.5%) 순임

[그림 3-12] 청년 문화예술 활동 공간 내 프로그램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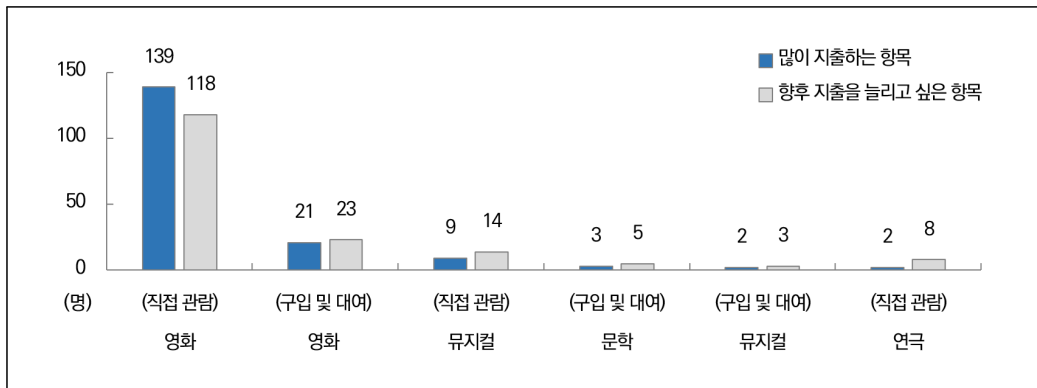


주: '기타' 응답은 인천시 2명(1.9%), 특·광역시도 3명(0.3%), 전국 3명(0.2%)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행사 지출

- 문화예술행사 관련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및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은 영화 직접 관람(69.2%, 58.7%), 구입 및 대여(10.4%, 11.4%) 순으로 나타남
- 전국 및 특·광역시도의 지출항목 역시 영화 직접 관람(68.5%, 71.2%), 구입 및 대여(7.1%, 7.8%) 순으로 분석
- 전국 및 특·광역시도의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은 영화 직접 관람 외, 뮤지컬 직접 관람(8.4%, 9.4%)이 높게 조사됨

[그림 3-13] 청년 문화예술행사 관련 지출 실태 및 지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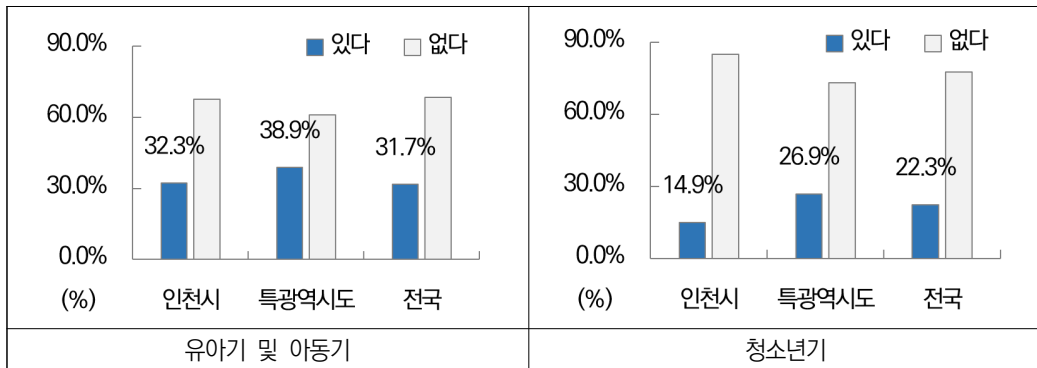
주: '없음' 응답은 지출항목 19명(9.5%),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11명(5.5%)이며, 1순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교육 경험

-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유아기 및 아동기가 32.3%, 청소년기가 14.9%로 전국(31.7%, 22.3%) 및 특·광역시도(38.9%, 26.9%)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됨
- 유아기 및 아동기 교육 경험률은 전국 평균 수준이며, 청소년기 교육 경험률은 전국 9개 특·광역시도 중 대구(13.4%) 다음으로 낮게 조사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은 응답자의 16.4%가 수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계양구(21.4%), 연수구(18.7%), 부평구(17.0%) 거주자의 경험률이 높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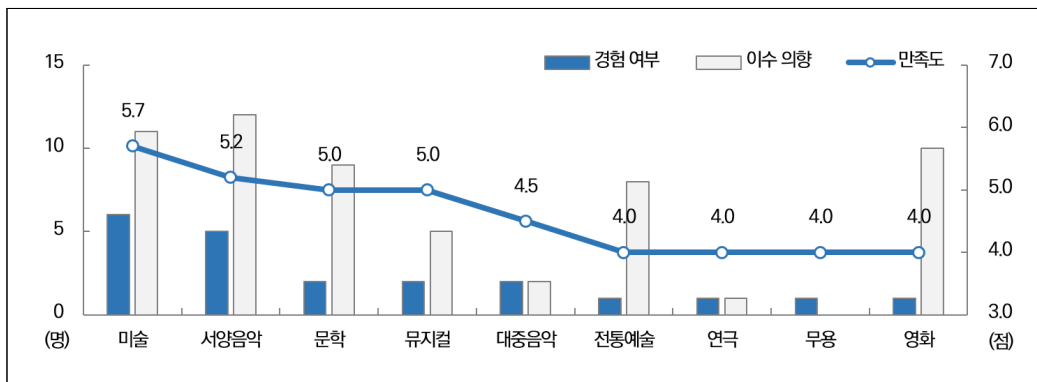
[그림 3-14] 청년 문화예술교육 경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관련 교육 유형은 미술(2.8%)과 서양음악(2.4%)으로 나타났으며, 이수 의향 역시 서양음악(5.4%)과 미술(5.0%) 외, 영화(4.5%), 문학(4.1%) 순으로 분석됨
- 교육기관은 사설학원/강습소(54.5%), 인터넷 사이트(18.2%)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교육기관은 사설학원/강습소(36.4%), 공공기관(27.3%) 순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수 분야는 미술(36.3%), 음악(27.4%), 문학(26.5%)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미술교육, 중구와 연수구는 문학교육, 남동구와 강화군은 음악교육 이수 비율이 높게 분석
- 만족도는 미술(5.7점/7.0점), 서양음악(5.2점), 문학 및 뮤지컬(5.0점) 등 교육 경험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3-15] 청년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형 및 이수 의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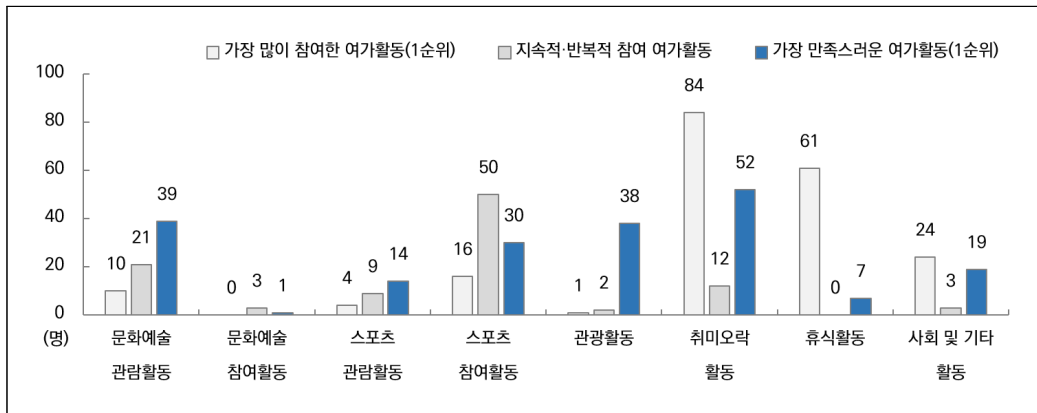
주 : '없음' 응답은 경험 여부 190명(90.0%), 이수 의향은 163명(73.8%)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참여 여가활동

-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1순위 기준, 취미오락 활동과 휴식 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은 취미오락 활동과 문화예술 관람 활동 순임
 - 주요 참여 취미오락 활동은 인터넷 검색/SNS, 게임, 쇼핑/외식 등이며, 휴식 활동은 TV시청, 산책 및 걷기, 문화예술 관람 활동은 영화관람, 연극공연 관람 등
 - 평일 및 휴일 희망 문화예술 참여 활동은 악기연주/노래교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스포츠 관람 활동은 평일의 경우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 휴일의 경우 스포츠 경기 직접 관람, 스포츠 참여 활동은 평일의 경우, 볼링/탁구, 헬스/에어로빅, 휴일은 수영을 희망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최대 여가활동은 휴식 활동(32.3%), 취미오락 활동(26.5%) 순으로 남성, 20대는 취미오락 활동 참여, 여성, 30대는 휴식 활동 참여율이 높게 조사
 - 여가활동 동반자는 혼자서(66.5%), 친구(16.5%), 가족(15.5%) 순이며, 여가활동 빈도는 매일(79.5%), 일주일에 몇 번(12.5%), 한달에 2~3번(5.5%) 순으로 조사
- 지속적·반복적 참여 여가활동은 스포츠 참여 활동이며, 평균 참여기간은 3.3년, 참여 경험은 50.0%로 분석됨
 - 주요 스포츠 참여 활동은 헬스/에어로빅(응답자의 22.0%), 요가/필라테스/태보(9.0%) 등
 - 여가활동을 위한 별도의 지식이나 정보습득은 5.2점/7.0점으로 특·광역시도 중 대구(5.3점)에 이어 2위로 조사

[그림 3-16] 청년 참여 여가활동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표 3-36] 청년 참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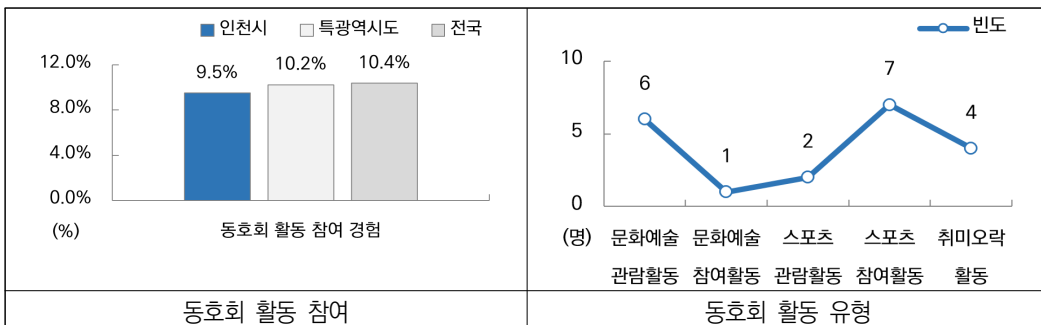
구분	평일		휴일	
	참여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 영화관람 • 연극공연 관람	• 영화관람 • 연극공연 관람	• 영화관람 • 연극공연 관람	• 영화관람 • 연극공연 관람
문화예술 참여 활동	• 사진촬영 • 악기연주/노래교실	• 악기연주/노래교실 • 미술활동	• 사진촬영 • 미술활동	• 악기연주/노래교실 • 미술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 스포츠 간접관람 • 스포츠 직접 관람	• 스포츠 간접관람 • 스포츠 직접 관람	• 스포츠 직접 관람 • 스포츠 간접관람	• 스포츠 직접 관람 • 스포츠 간접관람
스포츠 참여 활동	• 당구/포켓볼 • 헬스/에어로빅	• 볼링/탁구 • 헬스/에어로빅	• 헬스/에어로빅 • 당구/포켓볼	• 수영 • 배드민턴/체조
관광활동	• 자동차 드라이브 • 자연명승·풍경관람	• 자동차 드라이브 • 자연명승·풍경관람	• 자연명승·풍경관람 • 테마파크 가기	• 자연명승·풍경관람 • 해외여행
취미오락 활동	• 인터넷 검색/SNS • 게임	• 쇼핑/외식 • 인터넷 검색/SNS	• 쇼핑/외식 • 인터넷 검색/SNS	• 인터넷 검색/SNS • 게임
휴식 활동	• TV시청 • 산책 및 걷기	• TV시청 • 산책 및 걷기	• TV시청 • 목욕/사우나	• TV시청 • 산책 및 걷기
사회 및 기타활동	• 잡담/통화하기 • 친구만남/동호회	• 친구만남/동호회 • 잡담/통화하기	• 친구만남/동호회 • 가족 및 친지방문	• 친구만남/동호회 • 이성교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동호회 활동

- 동호회 활동은 응답자의 9.5%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10.4%) 및 특·광역시도(10.2%) 대비 낮게 분석됨
- 유형별로는 스포츠 참여 활동(35.0%), 문화예술 관람 활동(30.0%), 취미오락 활동(20.0%) 등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활동으로는 연극공연 관람(25.0%), 농구·축구 등과 게임(각 15.0%), 스포츠 직접 관람(10.0%) 등 순임

[그림 3-17] 청년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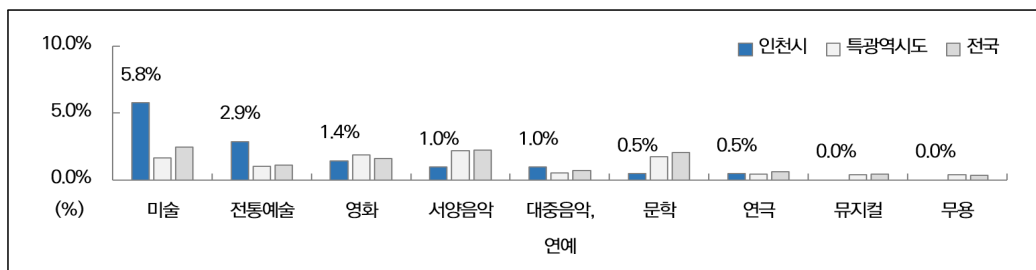


주 : 동호회 활동 유형은 복수응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 관련 동호회는 응답자의 13.0%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참여 활동은 미술(5.8%), 전통예술(2.9%), 영화(1.4%) 등으로 분석됨
- 동호회 성격은 미술 직접창작 및 감상, 전통예술 직접 창작 및 감상, 영화 감상 등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 대비 전통예술 활동 비율이 높게 조사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경험률은 응답자의 10.6%이며, 분야별로는 음악(34.3%), 미술(26.8%), 영화(22.0%)로 분석

[그림 3-18] 청년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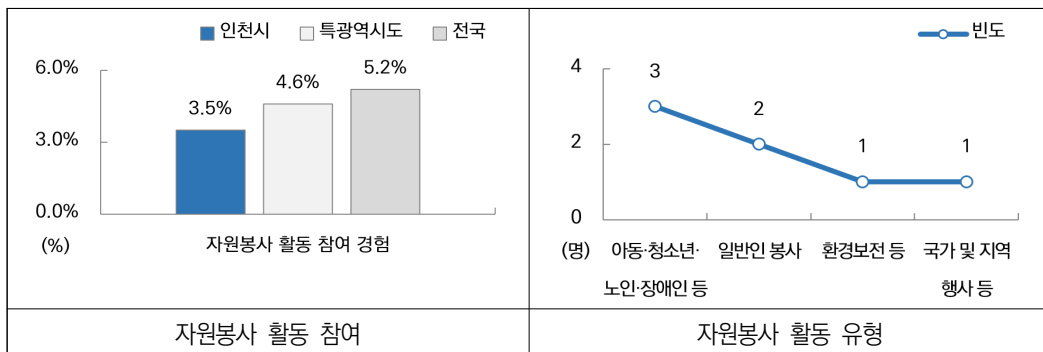


주: '없음' 응답은 인천시 181명(87.0%), 특·광역시도 1,560명(89.7%), 전국 2,917명(88.4%)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 활동은 응답자의 3.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5.2%) 및 특·광역시도(4.6%) 대비 낮게 분석됨
- 참여 자원봉사 활동 유형으로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등 관련(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28.6%),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관련(28.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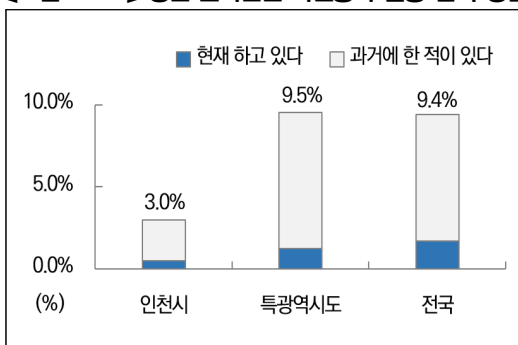
[그림 3-19] 청년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 응답자의 0.5%(1명)가 지난 1년 간 (2018년 8월 ~ 2019년 7월) 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횟수는 2회로 분석됨
- 과거에 한 적이 있는 응답자 포함 시 문화 관련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3.0%(6명)이며, 전국(9.4%) 및 특·광역시도(9.5%) 대비 낮게 조사

[그림 3-20] 청년 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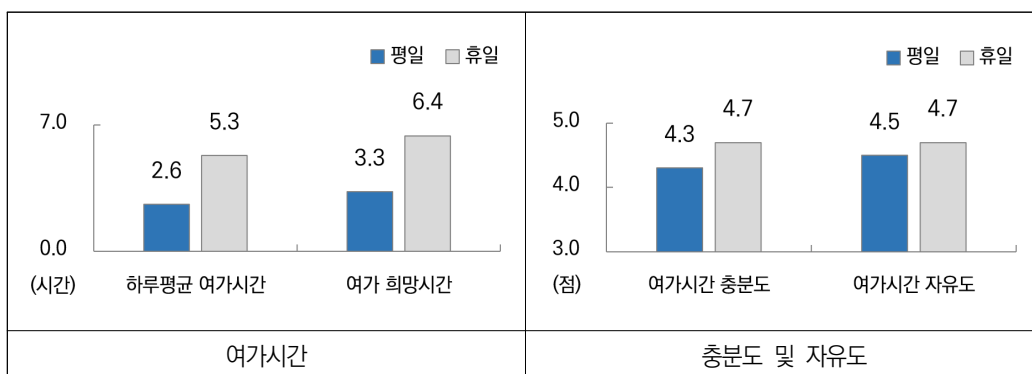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2.6시간, 휴일 5.3시간이었으며, 희망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6.4시간으로 나타남
- 평일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9개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여가시간 (3.2시간) 대비 낮게 조사, 휴일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전국 평균(5.4시간) 수준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9시간, 주말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6.1시간으로 조사
-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일 4.3점/5.0점, 휴일 4.7점, 자유도는 평일 4.5점, 휴일 4.7점으로 타 특·광역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그림 3-21] 청년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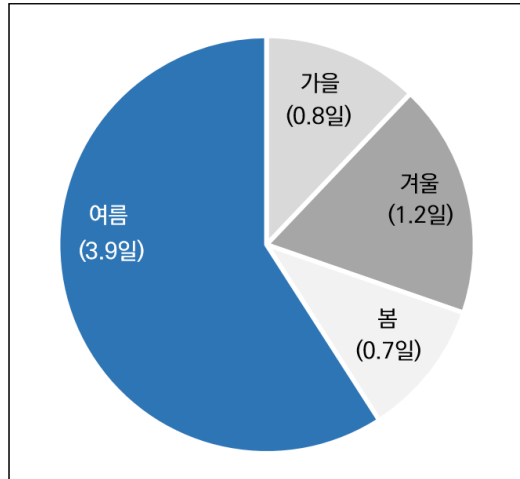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휴가 사용

- 응답자의 76.5%가 지난 1년간(2017년 8월 ~ 2018년 7월)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1년간 실제 사용 휴가일수는 6.5일이며, 여름(3.9일)과 겨울(1.2일)을 중심으로 사용함
 - 전국(5.7일) 및 특·광역시도(5.8일)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7.4일) 다음으로 서울·울산(6.5일)과 함께 2위로 조사

[그림 3-22] 청년 휴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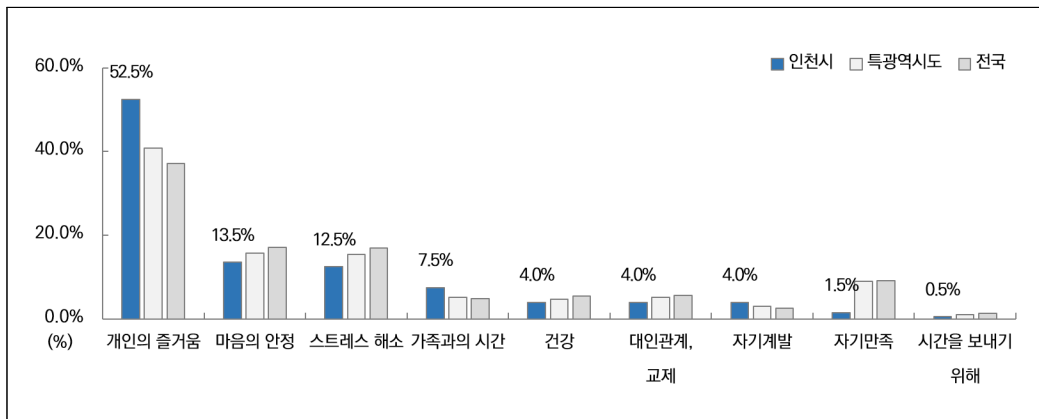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활동 주 목적

- 여가활동의 주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52.5%), 마음의 안정과 휴식(13.5%), 스트레스 해소(12.5%) 순으로 전국 및 특·광역시도 순위와 일치함

[그림 3-23] 청년 여가활동 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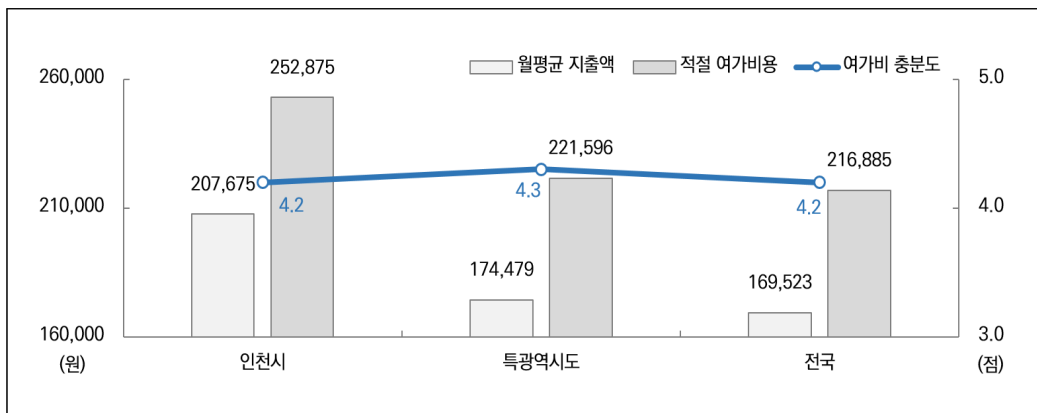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1명(0.1%), 전국 1명(0.0%)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비용

- 월평균 지출액은 207,675원, 적절 여가비용은 252,875원으로 45,200원 차이로 나타났으며, 여가비 충분도는 4.2점/7.0점으로 전국 평균 수준임
- 월평균 지출액은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대비 약 3~4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 여가비용 역시 3만원 가량 높게 조사
- 월평균 지출액은 특·광역시도 중 제주(217,176원) 다음으로 높은 2위로 분석

[그림 3-24] 청년 월평균 지출액 및 적절 여가비용, 여가비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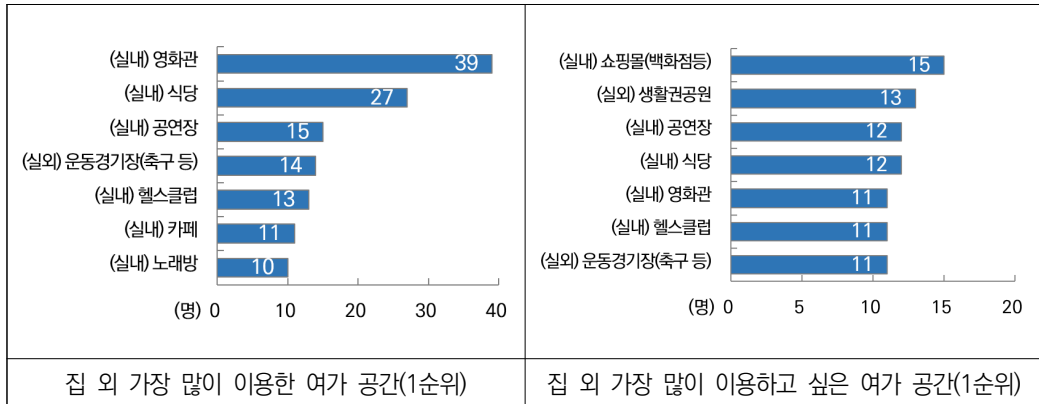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 공간

- 집 외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 공간은 1순위 기준, 실내(78.0%)가 실외(2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화관(19.5%), 식당(13.5%), 공연장(7.5%) 순으로 나타남
- 전국 기준, 식당(12.9%), 카페(12.4%), 영화관(11.0%)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광역시도는 영화관(13.6%), 카페(12.7%), 식당(11.4%) 순
- 집 외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여가 공간 역시 실내(62.0%)가 실외(38.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쇼핑몰(7.5%), 생활권공원(6.5%), 공연장 및 식당(각 6.0%) 순임
- 전국 기준, 헬스클럽 및 영화관(7.3%), 카페(6.6%)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광역시도는 카페(7.7%), 영화관(7.5%), 헬스클럽(7.3%) 순

[그림 3-25] 청년 이용 여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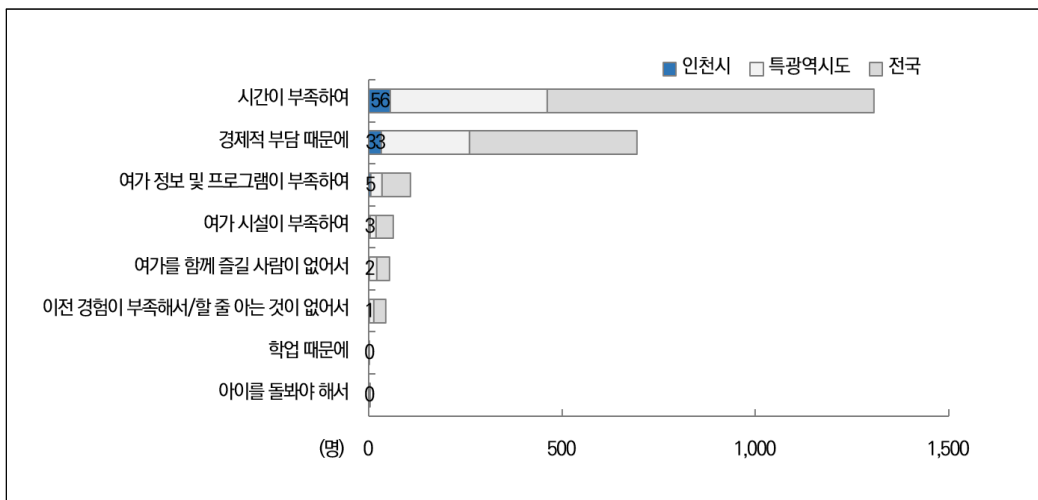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3) 여가·문화 성과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여가생활 만족도는 4.4점/7.0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며, 주된 불만족 이유는 시간 부족(56.0%), 경제적 부담(33.0%) 등으로 나타남
- 여가생활 만족도는 세종·부산(4.8점) > 대전·울산(4.7점) > 대구(4.5점) > 인천(4.4점) 순

[그림 3-26] 청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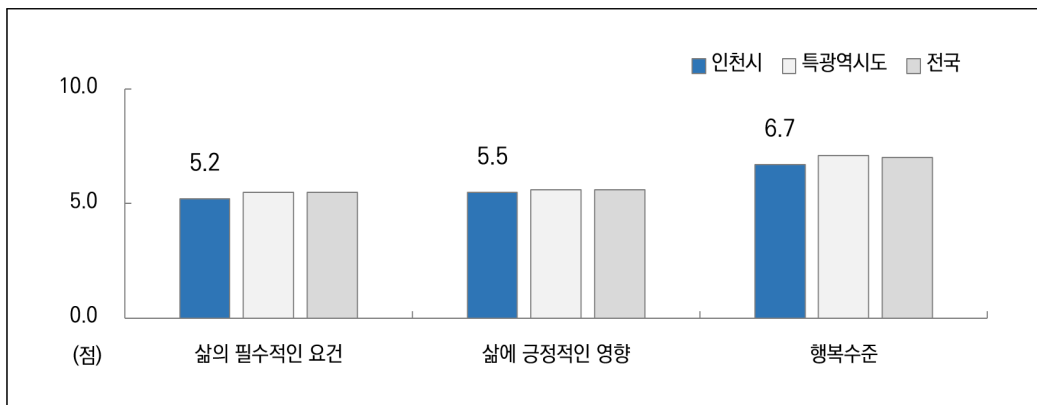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

-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은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여가활동을 삶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한 수준은 5.2점/7.0점, 행복 수준은 6.7점/10.0점으로 전국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조사
 - 삶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한 수준은 5.2점/7.0점으로 전국 특·광역시도 중 대전 및 세종(5.4점) 다음으로 낮게 조사

[그림 3-27] 청년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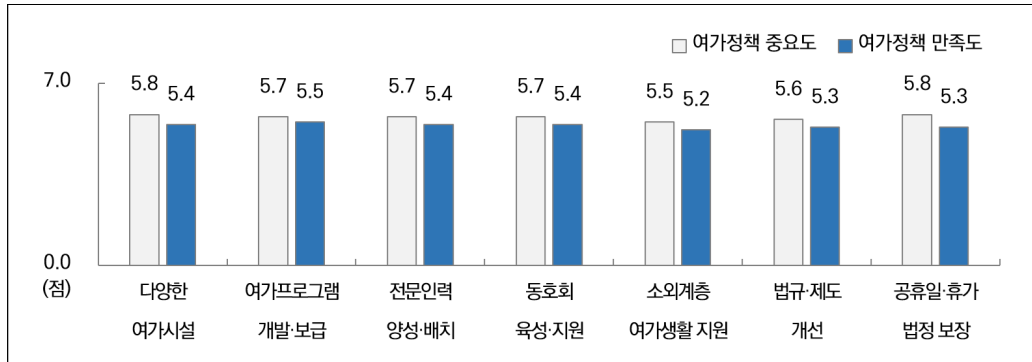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 인천시 청년의 여가정책 중요도 인식은 다양한 여가시설 및 공휴일·휴가 법정 보장(5.8점/7.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정책 만족도는 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5.5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은 여가정책 중요도 인식 및 만족도에서 가장 낮게 조사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청년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1순위 기준, 질 좋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0.3%),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26.0%), 지역화폐 연계 문화활동비 캐시백 지원(12.5%) 순으로 조사
- *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서는 질 좋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분석

[그림 3-28] 청년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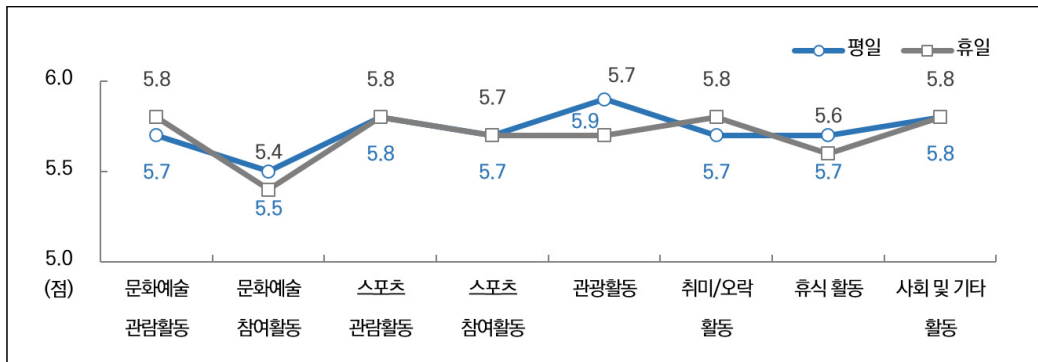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활동 만족도

- 평일 참여 여가활동 만족도는 관광활동(5.9점/7.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일 참여 여가활동 만족도는 문화예술관람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5.8점)이 높게 분석됨
- 평일 및 휴일 참여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참여 활동 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

[그림 3-29] 청년 여가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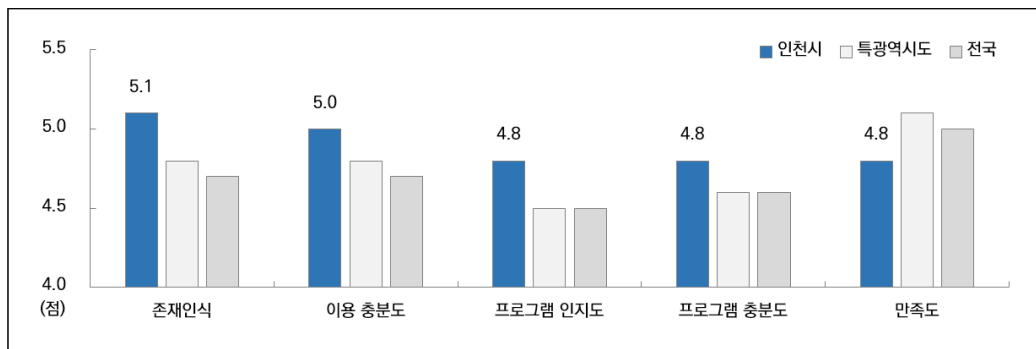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 공간 만족도

- 공공시설 여가 공간 존재 인식은 5.1점/7.0점, 이용 충분도는 5.0점, 프로그램 인지도 및 충분도는 4.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만족도(4.8점)는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인천시 청년의 생활권 내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률은 41.0%(82명) 수준으로 전국(43.0%) 및 특·광역시도(43.8%) 대비 낮은 수준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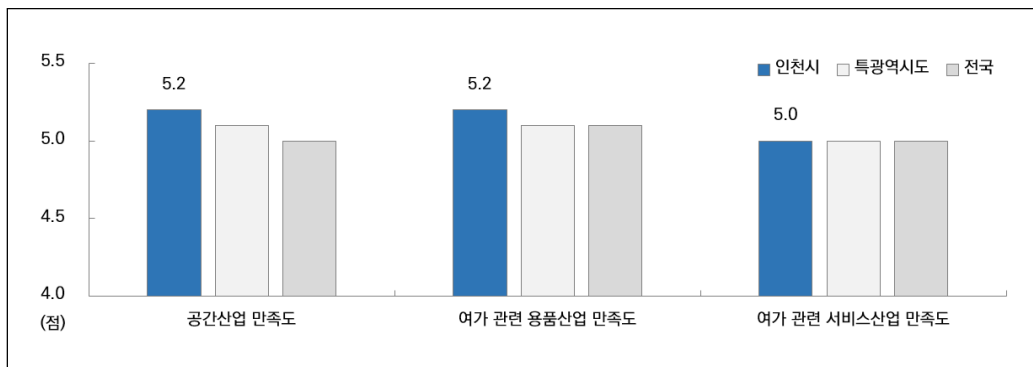
[그림 3-30] 청년 공공시설 여가 공간 만족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 민간시설 여가 공간 및 여가 관련 용품산업 만족도는 5.2점/7.0점으로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관련 서비스산업 만족도는 5.0점으로 전국 평균 수준임

[그림 3-31] 청년 민간시설 여가 공간 만족도



주1 : 여가 관련 공간산업은 호텔,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공원, 공프장, 스키장, 스포츠 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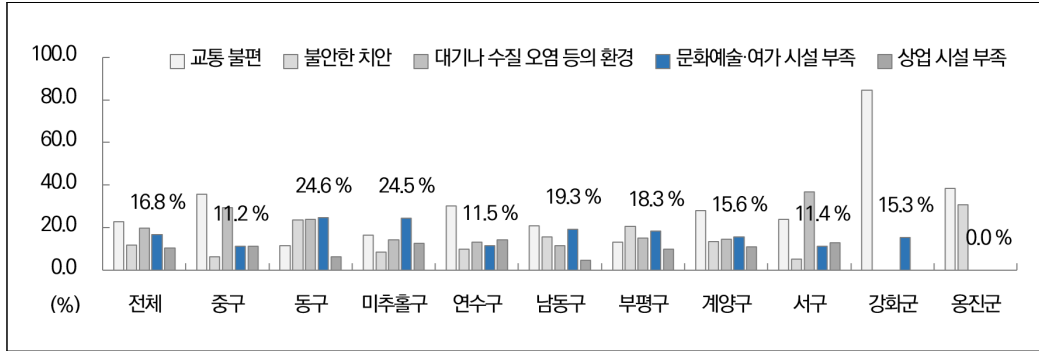
주2 : 여가 관련 용품산업은 여행 및 캠핑용품, 스포츠용품, 낚시용품 등

주3 : 여가 관련 서비스산업은 전시 및 행사업체, 공연산업, 여행회사, 오락관련서비스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 관련하여, 인천시 청년의 문화예술·여가시설 부족에 대한 인식은 16.8%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구(24.6%)와 미추홀구(24.5%)에서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 만족 여부는 만족 71.1%, 불만족은 28.9%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이유는 교통 불편(22.8%), 대가나 수질 오염 등 환경(19.9%), 문화예술·여가시설 부족(16.8%) 순

[그림 3-32] 청년 거주 지역 불만족 이유



자료 : 인천광역시(2019.11.),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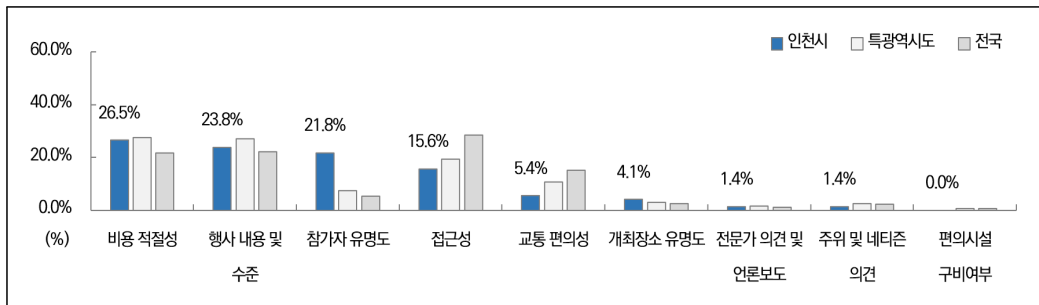
3) 노인 분야 분석 결과

(1) 여가·문화 인식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 및 어려움, 보완점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은 관람 비용의 적절성(26.5%),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23.8%), 참가자의 유명도(21.8%), 접근성(15.6%) 순으로 나타남
- 접근성은 전국(28.5%) 및 특·광역시도(19.3%)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

[그림 3-33] 노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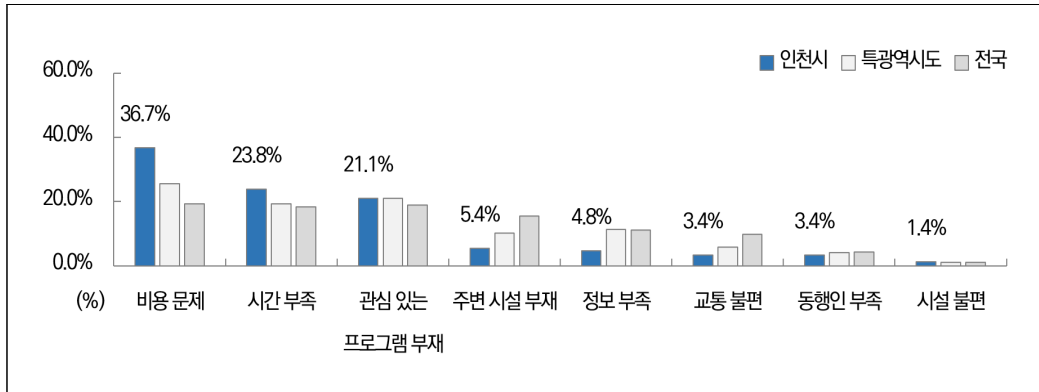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8명(0.7%), 전국 20명(0.8%)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걸림돌은 비용 문제(36.7%), 시간 부족(23.8%), 관심 있는 프로그램 부재(21.1%) 순임
- 비용 문제와 시간 부족은 전국 및 특·광역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전국 및 특·광역시도는 비용 문제, 관심있는 프로그램 부재, 시간 부족 순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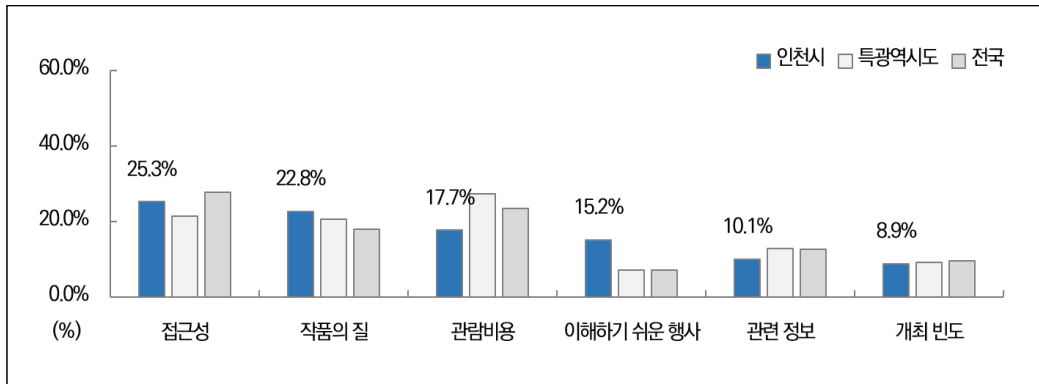
[그림 3-34] 노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걸림돌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17명(1.6%), 전국 39명(1.6%)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보완점은 접근성(25.3%), 작품의 질(22.8%), 관람비용(17.7%), 이해하기 쉬운 행사(15.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5] 노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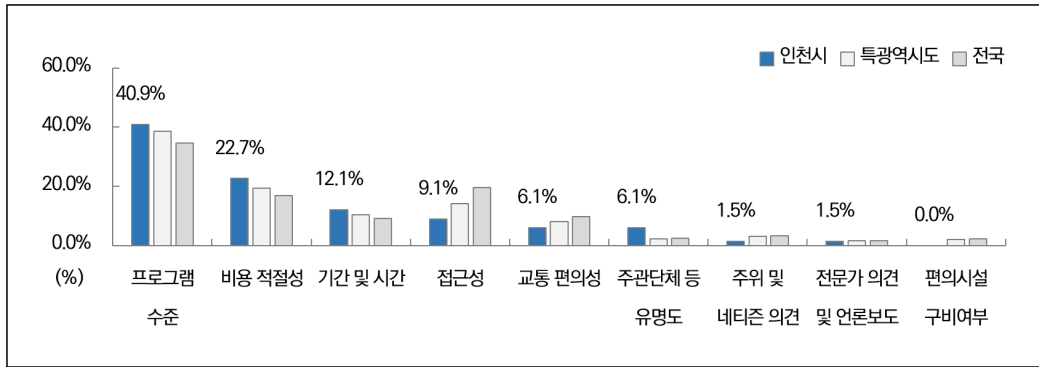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6명(1.0%), 전국 13명(1.1%)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준 및 어려움

- 문화예술행사 참여 시 중요한 기준은 프로그램 수준(40.9%), 비용의 적절성(22.7%), 문화행사의 기간 및 시간(12.1%), 접근성(9.1%) 순임
 - 접근성은 전국(19.6%) 및 특·광역시도(14.2%)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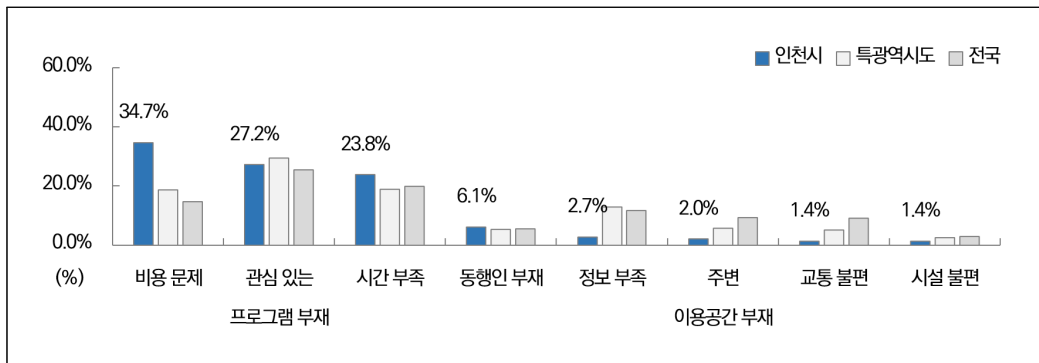
[그림 3-36] 노인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중요한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참여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 문제(34.7%), 관심 있는 프로그램 부재(27.2%), 시간 부족(23.8%) 순으로 나타남
- 전국(14.7%) 및 특·광역시도(18.6%) 대비 비용 문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 부족, 주변 이용공간 부재, 교통 불편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

[그림 3-37] 노인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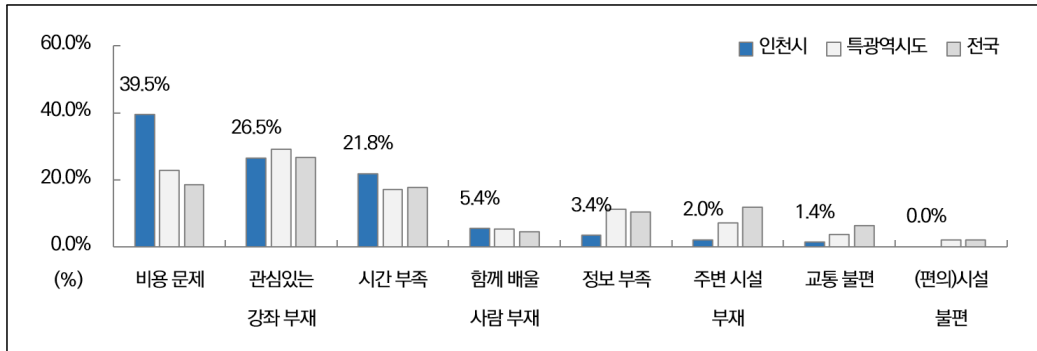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1명(0.7%), 특·광역시도 16명(1.5%), 전국 37명(1.5%)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교육 걸림돌

- 문화예술교육 걸림돌로는 비용 문제(39.5%), 관심있는 강좌 부재(26.5%), 시간 부족(21.8%) 순으로 나타남
- 비용 문제는 전국(18.6%) 및 특·광역시도(22.9%)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 부족, 주변 시설 부재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

[그림 3-38] 노인 문화예술교육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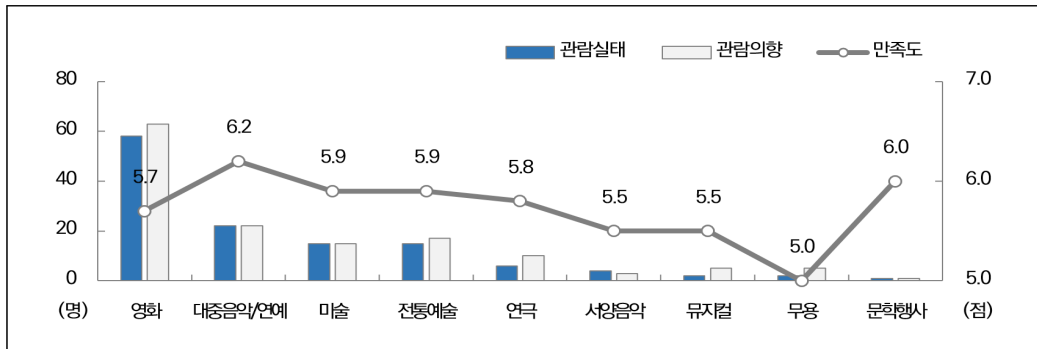
주 : '기타' 응답은 인천시 0명(0.0%), 특·광역시도 14명(1.3%), 전국 49명(2.0%)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2) 여가·문화 실태

문화예술행사 관람 활동

-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는 영화(30.1%), 대중음악/연예(11.4%) 순이며, 향후 1년 이내 관람 의향 역시 영화(30.7%), 대중음악/연예(10.7%) 순으로 분석됨
 - 직접 관람 횟수는 평균 2.3회이며, 영화 1.3회, 대중음악/연예 0.6회 등으로 분석
- 만족도는 대중음악/연예(6.2점/7.0점), 문학행사(6.0점), 전통예술 및 미술(5.9점), 연극(5.8점), 영화(5.7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9] 노인 문화예술행사 관람 활동 실태 및 의향, 만족도



주 : '없음' 응답은 관람 실태 68명(35.2%), 관람 의향 64명(31.2%)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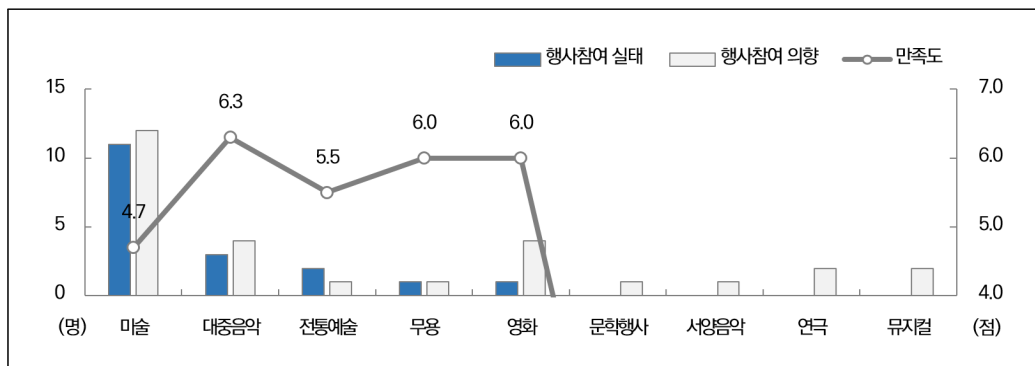
- 직접 관람 형태는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98.7%)에서 입장권 구입(75.9%) 또는 초대권으로 관람(10.1%)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동행자는 배우자(38.0%), 자녀(27.8%), 친구(19.0%) 순임

- 관람시간은 주말 저녁 시간(31.6%), 주중 낮 시간(29.1%), 주말 낮 시간(24.1%), 주중 저녁 시간(13.9%) 순으로 나타남
- 전국 및 특·광역시도는 주말 낮 시간(38.3%, 39.6%) 및 주중 낮 시간(25.7%, 23.4%)을 중심으로 관람
- 정보출처는 주변 사람(54.4%),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21.5%), 텔레비전/라디오(19.0%) 순이었으며, 안내문, 공공단체/교육기관, 안내 책자, 이메일 및 뉴스레터, 동호회 모임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문화예술행사 참여 활동

- 문화예술행사 참여 실태는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7.4%), 대중음악/연예(2.0%)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1년 이내 참여 의향 역시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8.1%), 대중음악/연예, 영화 제작 및 발표회(각 2.7%) 순으로 분석됨
- 행사 활동 시간은 평균 2.5시간으로 전국 평균 2.3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9개 특·광역시도 중 제주(3.1시간), 대구(2.8시간), 서울 및 인천(2.5시간) 순
- 만족도는 대중음악/연예(6.3점/7.0점), 영화 제작 및 발표회, 무용 발표회 및 창작활동(6.0점), 전통예술 발표회 및 창작활동(5.5점) 순으로 나타남
- 참여 및 의향이 높은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은 4.7점으로 가장 낮게 분석
- 전국 평균 기준, 영화 제작 및 발표회(6.0점), 문학행사 개최 및 창작활동, 전통예술 발표회 및 창작활동(5.8점), 무용 발표회 및 창작활동(5.7점) 순

[그림 3-40] 노인 문화예술행사 참여 활동 실태 및 의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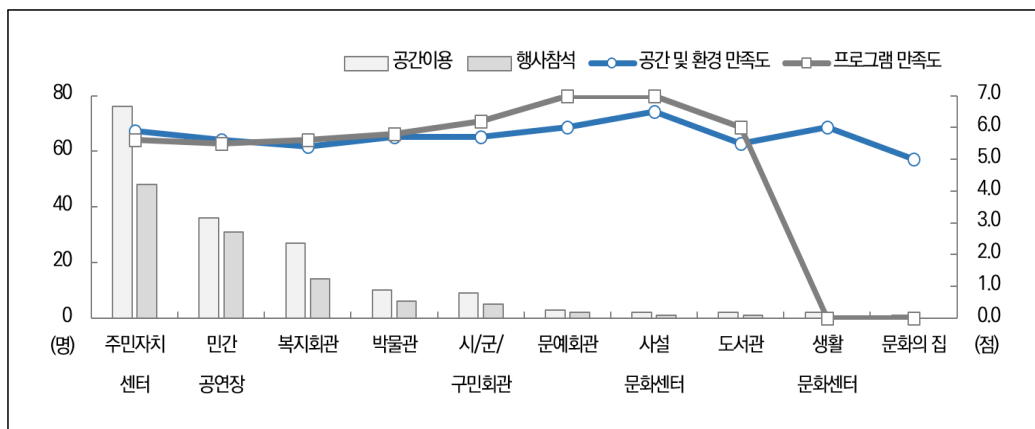
주: '없음' 응답은 참여 실태 130명(87.8%), 참여 의향 121명(81.2%)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참여 동반자는 혼자(52.9%), 친구(17.6%), 배우자(11.8%) 순이었으며, 주로 주중 낮 시간 및 주말 저녁 시간(각 41.2%)에 관람한 것으로 조사됨
- 전국 및 특·광역시도는 주중 낮 시간(35.9%, 36.6%), 주말 낮 시간(29.3%, 26.9%) 등 낮 시간을 중심으로 참여

문화예술 활동 공간

-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공간별 행사 참석 여부는 주민자치센터(36.4%, 44.4%), 민간공연장(17.2%, 28.7%), 복지회관(12.9%, 13.0%) 순으로 나타남
- 공간별 이용 횟수는 주민자치센터 1.8회, 복지회관 1.2회, 민간공연장 0.6회 등이었으며, 평균 4.0회로 전국 9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게 조사
- 문화행사 참석 횟수는 복지회관 3.8회, 주민자치센터 2.1회, 민간공연장 1.6회 등이었으며, 평균 2.3회로 특·광역시도 중 광주(1.9회) 다음으로 낮게 조사
- 공간이용 위치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물관(공간이용의 30.0%)은 거주 지역 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공간 및 환경 만족도는 사설 문화센터(6.5점/7.0점), 문예회관 및 생활문화센터(6.0) 순이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사설 문화센터 및 문예회관(7.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1] 노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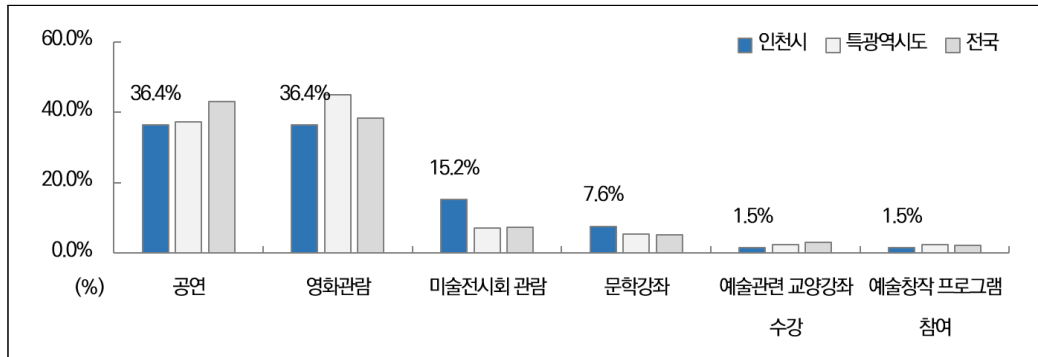


주: '없음' 응답은 공간이용 41명(19.6%)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 활동 공간 내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있다(44.9%)가 없다(55.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공연 및 영화관람(36.4%), 미술전시회 관람(15.2%), 문학강좌(7.6%) 순으로 분석됨

[그림 3-42] 노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내 프로그램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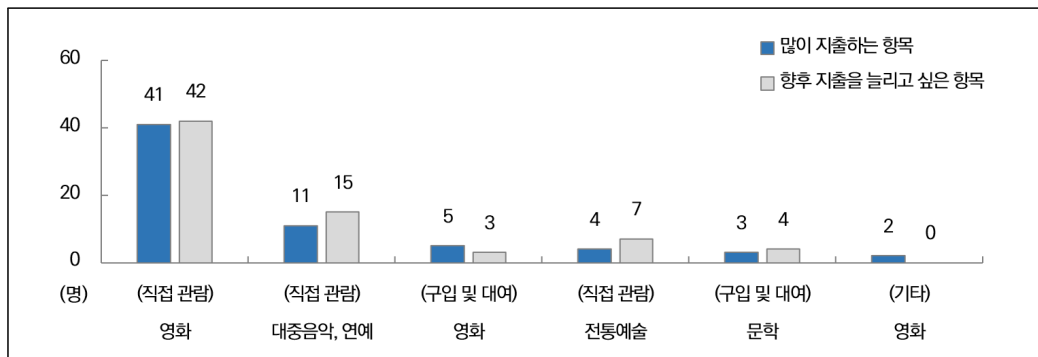


주: '기타' 응답은 인천시 1명(1.5%), 특·광역시도 3명(0.5%), 전국 10명(0.8%)이며 그래프상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행사 지출

- 문화예술행사 관련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및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은 1순위 기준, 영화 직접 관람(27.9%, 28.6%) 및 대중음악/연예 직접 관람(7.5%, 10.2%)으로 나타남
- 전국 및 특·광역시도의 문화예술행사 관련 지출 항목은 영화 직접 관람(27.6%, 31.9%)과 구입 및 대여(3.4%, 4.1%)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은 영화 직접 관람(28.5%, 34.6%), 전통예술 직접 관람(6.2%, 6.1%) 순으로 분석

[그림 3-43] 노인 문화예술행사 관련 지출 실태 및 지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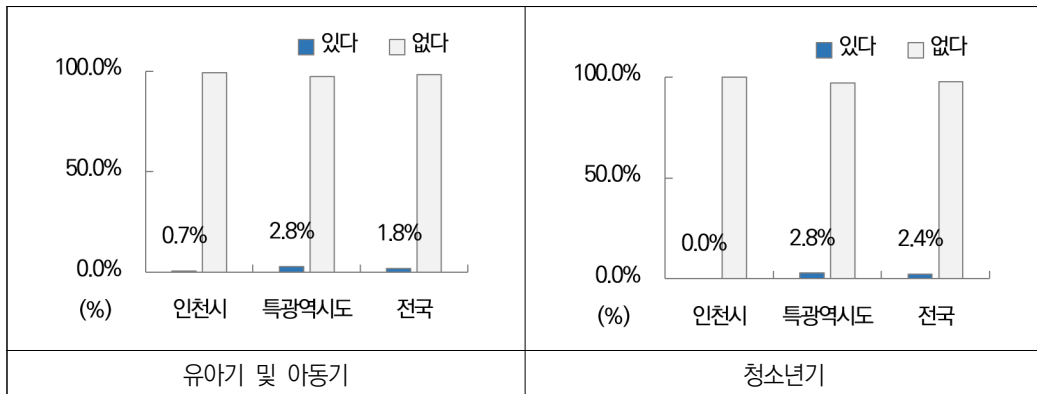


주: '없음' 응답은 지출항목 79명(53.7%),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70명(47.6%)이며, 1순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교육 경험

- 인천시 노인의 유아기 및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0.7%(1명)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됨
- 특·광역시도의 유아기 및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자(2.8%)는 서울 1.4%, 제주 0.4% 등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경험자(2.8%)는 서울 1.3%, 부산 0.5% 등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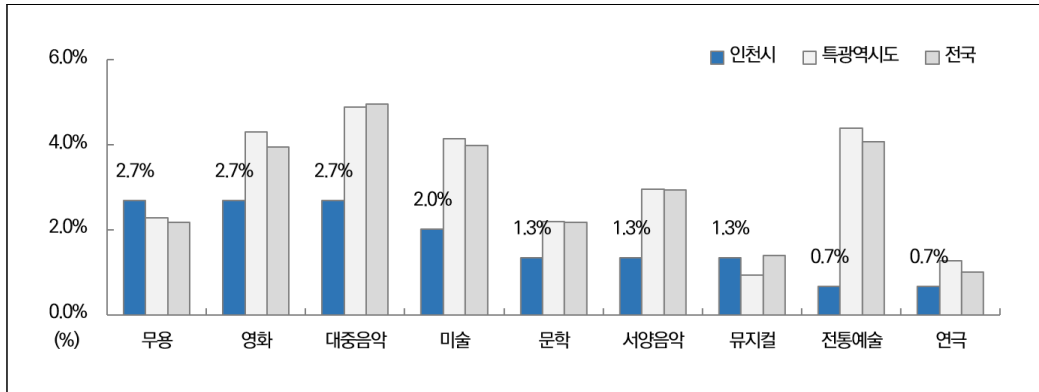
[그림 3-44]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예술행사 관련 교육 유형은 무용(0.7%), 공공기관(0.7%)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5.0점/7.0점으로 분석됨
- * (2017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의 11.2%가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영역은 문화예술 관련 교육(경험자의 35.8%), 건강관리 및 운동 관련 교육(34.0%), 어학교육(13.2%), 인문학 교육(9.4%) 등으로 조사
- * (2017 노인실태조사) 평생교육 기관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센터(34.5%), 시/군/구민회관 및 주민센터(21.8%), 경로당(12.7%) 등 공공시설 여가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빈도는 주 2~3회(50.0%)가 가장 높게 분석
- 문화예술교육 이수 의향은 15.4%가 응답하였으며, 무용, 영화 및 대중음악(각 2.7%), 미술(2.0%) 등에 대한 교육 욕구가 나타남.
- 전국 및 특·광역시도는 대중음악, 전통예술, 영화 및 미술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욕구가 높게 분석

[그림 3-45] 노인 문화예술교육 이수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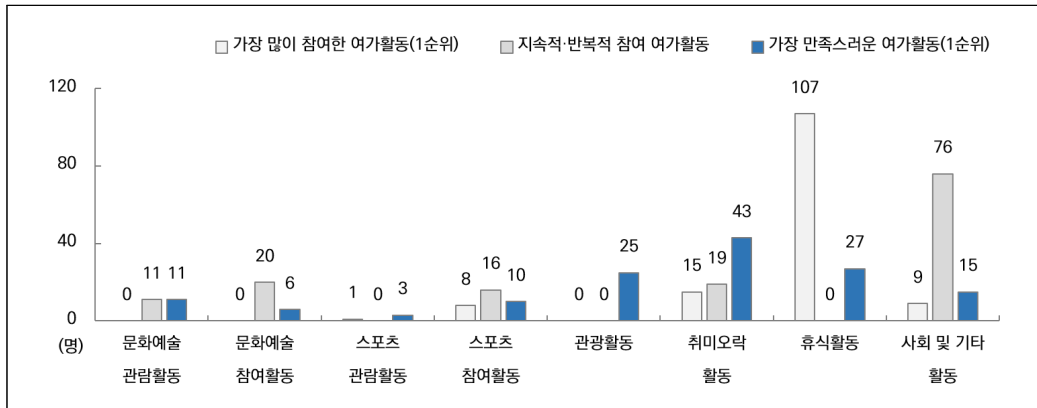
주: '없음' 응답은 인천시 126명(84.6%), 특·광역시도 860명(72.6%), 전국 1,893명(73.3%)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참여 여가활동

-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1순위 기준, 휴식 활동(76.4%), 취미오락 활동(10.7%), 사회 및 기타 활동(6.4%), 스포츠 참여 활동(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TV시청(58.6%), 산책 및 걷기(12.1%),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5.0%) 순임
- 노인의 평일 및 휴일 참여 여가활동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평일 및 휴가 희망 여가활동 역시 참여 여가활동과 유사하게 분석
- 여가활동 동반자는 혼자서(71.4%), 가족(20.0%), 친구(7.1%) 순이며, 여가활동 빈도는 매일(87.1%), 일주일에 몇 번(7.9%), 한달에 2~3번(4.3%) 순으로 조사
- * (2017 노인실태조사) 휴식 활동(31.4%), 취미오락 활동(30.4%), 사회 및 기타활동(19.5%), 스포츠 참여 활동(12.6%) 순이었으며, 세부 유형은 산책(22.7%), 구기운동·체조 등(12.6%), 잡담/통화/친구만남 등 사회활동(10.6%) 순으로 유사하게 조사
- * (2017 노인실태조사) 향후 희망 활동은 취미·여가활동(3.4점/5.0점), 종교활동(3.1점), 친목단체 활동(2.8점), 학습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각 2.0점) 순
- 지속적·반복적 참여 여가활동은 사회 및 기타 활동이며, 평균 참여기간은 5.9년, 참여 경험은 54.3%로 주요 참여 활동은 등산(응답자의 18.4%), 영화관람(14.5%) 등임.
- 여가활동을 위한 별도의 지식이나 정보습득은 5.1점/7.0점으로 9개 특·광역시도 중 가장 높게 조사

-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은 취미오락 활동(30.7%) 및 휴식 활동(19.3%), 관광활동 (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등산(10.0%), 쇼핑/외식(9.3%), 산책 및 걷기(8.6%), 영화관람(7.9%) 순임
- 전국 및 특·광역시도의 경우, 휴식 활동, 취미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순으로 조사

[그림 3-46] 노인 참여 여가활동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표 3-37] 노인 참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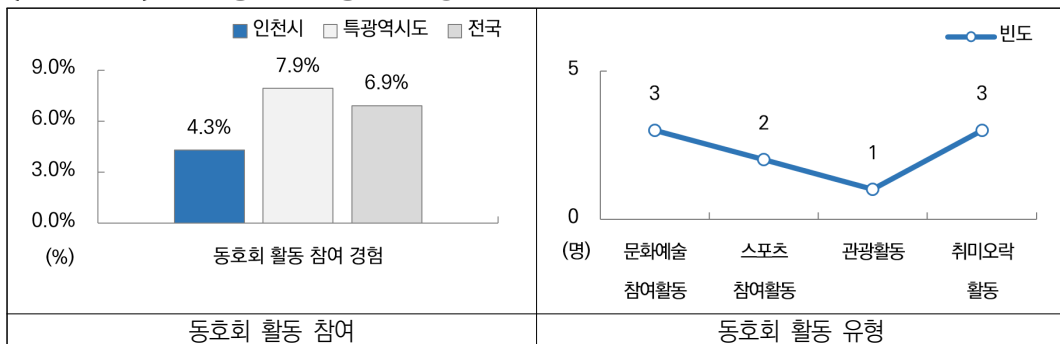
구분	평일		휴일	
	참여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 영화관람 • 전통예술 공연 관람	• 연극공연 관람 • 영화관람	• 영화관람 • 전통예술 공연 관람	• 연극공연 관람 • 전통예술 공연 관람
문화예술 참여 활동	• 악기연주/노래교실 • 전통예술 배우기	• 악기연주/노래교실 • 전통예술 배우기	• 악기연주/노래교실	• 악기연주/노래교실 • 문학행사 참여
스포츠 관람 활동	• 스포츠 간접관람 • 스포츠 직접 관람	• 스포츠 간접관람 • 스포츠 직접 관람	• 스포츠 간접관람 • 스포츠 직접 관람	• 스포츠 간접관람 • 스포츠 직접 관람
스포츠 참여 활동	• 배드민턴/체조 • 수영, 육상/조깅 등	• 육상/조깅 등 • 배드민턴/체조	• 배드민턴/체조 • 육상/조깅 등	• 배드민턴/체조 • 육상/조깅 등
관광활동	• 자연명승·풍경관람 • 지역축제 참가	• 지역축제 참가 • 자연명승·풍경관람	• 자연명승·풍경관람 • 문화유적방문	• 자연명승·풍경관람 • 지역축제 참가
취미오락 활동	• 쇼핑/외식 • 등산	• 쇼핑/외식 • 등산	• 쇼핑/외식 • 등산	• 등산 • 쇼핑/외식
휴식 활동	• TV시청 • 산책 및 걷기	• TV시청 • 산책 및 걷기	• TV시청 • 목욕/사우나	• TV시청 • 산책 및 걷기
사회 및 기타활동	• 잡담/통화하기 • 친구만남/동호회	• 친구만남/동호회 • 잡담/통화하기	• 친구만남/동호회 • 가족 및 친지방문	• 친구만남/동호회 • 잡담/통화하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동호회 활동

- 동호회 활동은 응답자의 4.3%(6명)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7.9%) 및 특·광역시도(6.9%)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유형별로는 문화예술 참여 활동과 취미오락 활동이 각 3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활동으로는 등산이 22.2%(2명)로 조사됨
 - 문화예술 참여 활동은 문학 행사 참여, 글짓기/독서토론, 미술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은 볼링·탁구, 배드민턴/체조, 관광활동은 자연명승·풍경 관람, 취미오락 활동은 등산, 낚시 등

[그림 3-47] 노인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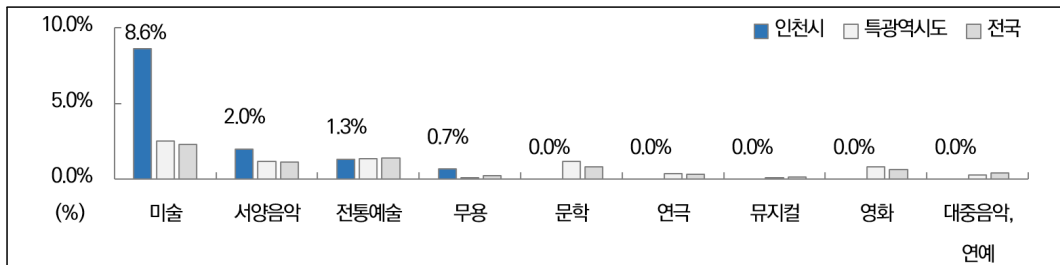


주: 동호회 활동 유형은 복수응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관련 동호회는 응답자의 12.6%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활동은 미술(8.6%), 서양음악(2.0%), 전통예술(1.3%), 무용(0.7%)으로 조사됨
 - 동호회의 주된 성격은 미술 감상 비율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미술 직접 창작, 서양음악 직접 창작, 전통예술 직접 창작 등으로 분석
 - 문화관련 동호회는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매월 1회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

[그림 3-48] 노인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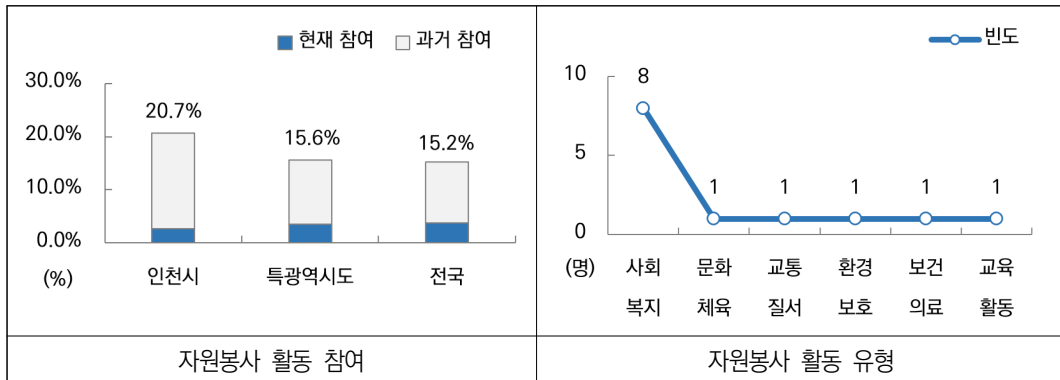
주: '없음' 응답은 인천시 132명(87.4%), 특·광역시도 1,019명(92.1%), 전국 2,236명(92.6%)이며 그래프상 제외, 복수응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 활동 경험은 응답자의 20.7%(100명)가 과거 및 현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15.2%) 및 특·광역시도(15.6%)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참여자의 2.7%(13명)가 현재 참여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8.0%는 과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3.8%) 및 특·광역시도(3.6%) 대비 현재 참여율이 낮게 분석
- 현재 참여 중인 자원봉사 활동 유형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문화체육, 교통질서, 환경보호, 보건의료, 교육활동 분야(각 7.7%)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자원봉사 종류는 단순한 노력봉사가 83.3%, 취미·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이 16.7%이며, 활동 빈도는 주 1회와 2주 1회(각 23.1%)가 가장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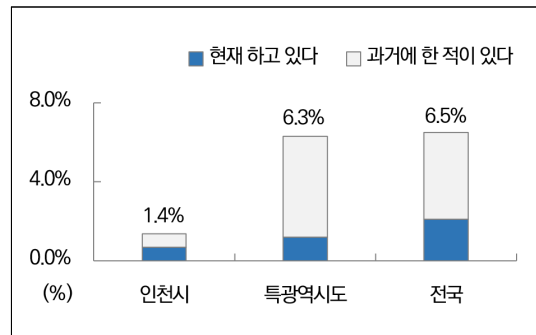
[그림 3-49] 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11.),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 응답자의 0.7%(1명)가 지난 1년 간 (2018년 8월 ~ 2019년 7월) 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횟수는 4회로 분석됨
 - 과거에 한 적이 있는 응답자 포함시 문화관련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1.4%(2명)이며, 전국(6.3%) 및 특·광역시도(6.5%) 대비 낮게 조사

[그림 3-50] 노인 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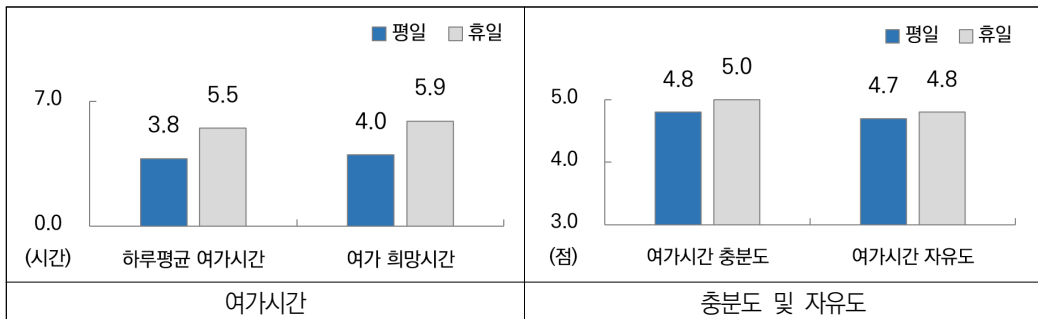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8시간, 휴일 5.5시간이었으며, 희망 여가시간은 평일 4.0시간, 휴일 5.9시간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4.4시간, 휴일 5.7시간이며, 9개 특·광역시도 중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서울(3.8시간)과 함께 6위로 조사
-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일 4.8점/5.0점, 휴일 5.0점, 자유도는 평일 4.7점/5.0점, 휴일 4.8점으로 타 특·광역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특히,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자유도는 9개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분석

[그림 3-51] 노인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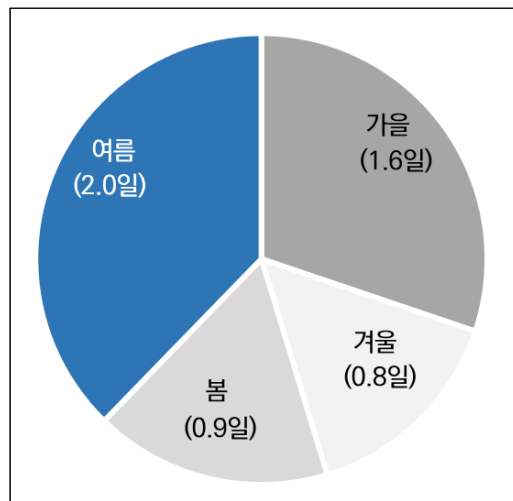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휴가 사용

- 응답자의 42.9%가 지난 1년간(2017년 8월 ~ 2018년 7월)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1년간 실제 사용 휴가일수는 5.3일이며, 시기는 여름(2.0일)과 가을(1.6일)을 중심으로 사용함
 - 전국(4.7일) 및 특·광역시도(5.0일) 평균 대비 높게 분석
 - 특·광역시도 중 제주(8.0일) 및 세종(6.7일), 서울(5.7일)에 이어 4위로 조사

[그림 3-52] 노인 휴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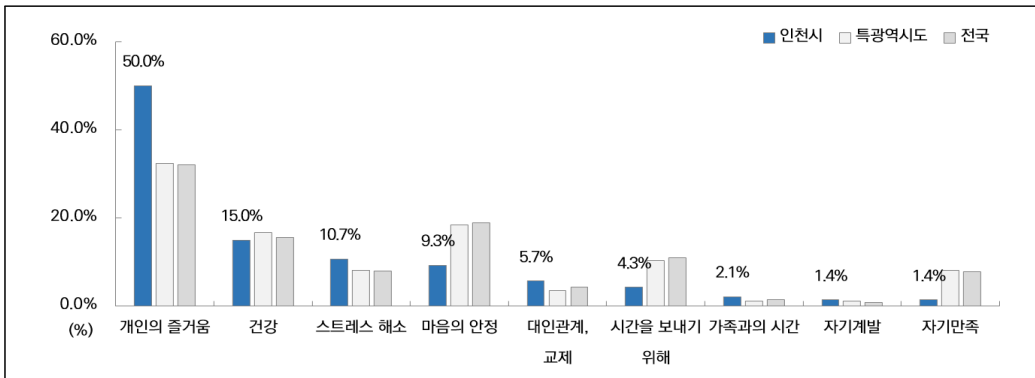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활동 주 목적

- 여가활동의 주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50.0%), 건강을 위해(15.0%), 스트레스 해소(10.7%), 마음의 안정과 휴식(9.3%) 순으로 나타남
-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기준,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순

[그림 3-53] 노인 여가활동 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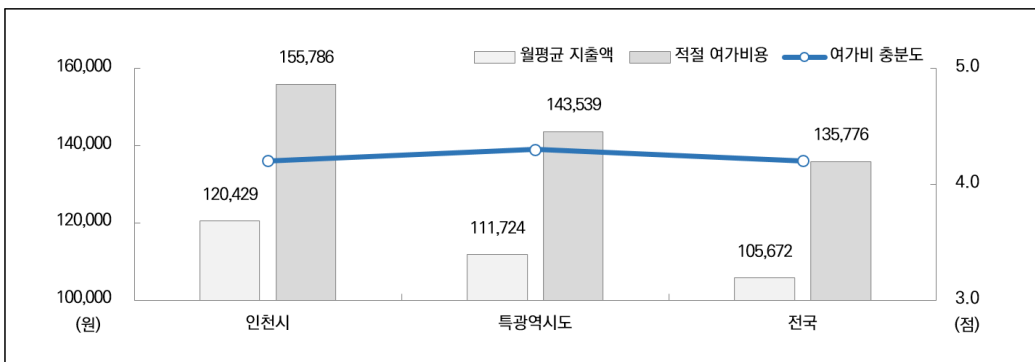
주 : 복수응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비용

- 월평균 지출액은 120,429원, 적절 여가비용은 155,786원으로 35,357원 차이로 나타났으며, 여가비 충분도는 4.2점/7.0점으로 전국 평균 수준임
- 월평균 지출액은 제주(130,857원), 부산(124,960원), 서울(124,743원)에 이어 4위로 나타났으며,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대비 약 1~2만원 높게 조사

[그림 3-54] 노인 월평균 지출액 및 적절 여가비용, 여가비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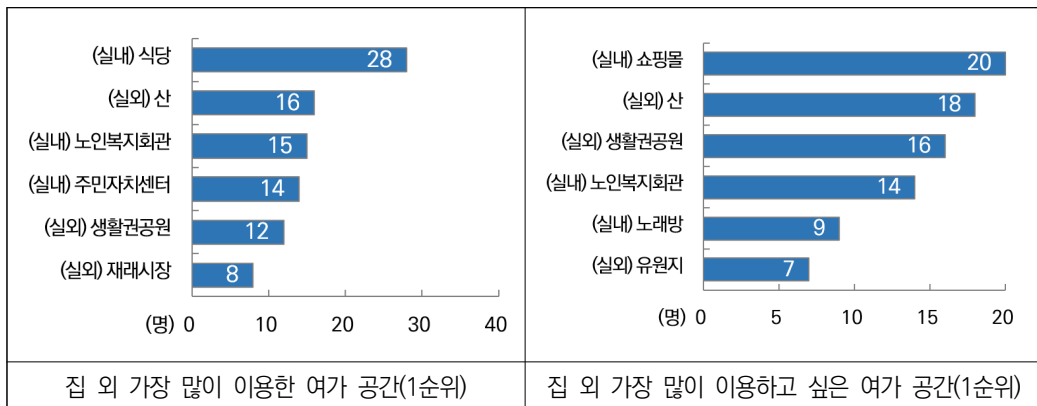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 공간

- 집 외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 공간은 1순위 기준, 실내(67.9%)가 실외(3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식당(20.0%), 산(11.4%), 노인복지회관(10.7%), 주민자치센터(10.0%)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 여가 공간 이용률이 높게 조사
- * (2017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회관 이용률은 응답자의 9.8%(47명)로 이용 정도는 주 2.7일, 이용 만족도는 4.1점/5.0점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이용 이유는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7.0%), 식사 서비스 이용(23.9%),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7.4%), 일자리, 소득지원 프로그램 이용(13.0%) 등 순으로 조사
- * (2017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자와의 불화(22.8%), 이용하기에는 젊다고 생각해서(21.2%), 거리가 너무 멀어서/교통이 불편하여(12.8%), 몸이 불편해서(12.6%), 시간이 없어서(11.4%),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7.2%)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 의사는 응답자의 27.8%(132명)로 분석
- 집 외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여가 공간은 실내(52.1%)와 실외(47.9%)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쇼핑몰(14.3%), 산(12.9%), 생활권공원(11.4%), 노인복지회관(10.0%) 순임
 -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외, 쇼핑몰, 노래방, 유원지 등 민간시설 여가 관련 공간에 대한 욕구 확인

[그림 3-55] 노인 이용 여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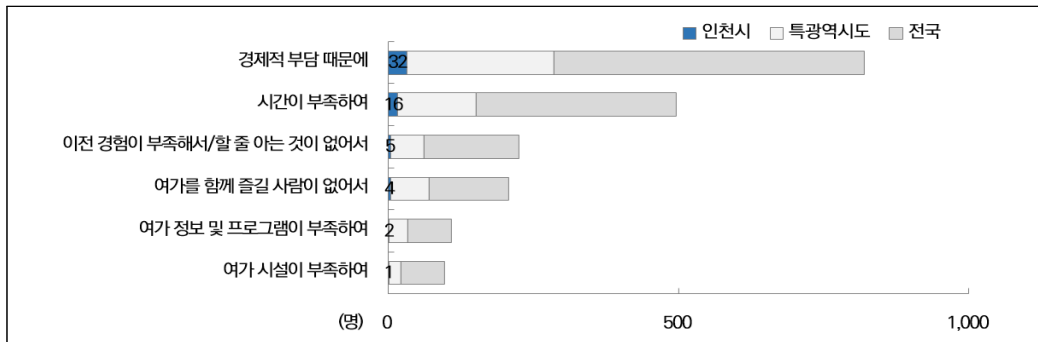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3) 여가·문화 성과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여가생활 만족도는 4.5점/7.0점으로 전국(4.4점) 및 특·광역시도(4.5점) 평균 수준이며, 주된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 부담(53.3%), 시간 부족(26.7%) 등으로 나타남
- * (2017 노인실태조사)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는 3.2점/5.0점으로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3.3점) 대비 낮은 수준으로, 9개 특·광역시 중 부산(3.1점) 다음으로 낮게 조사

[그림 3-56] 노인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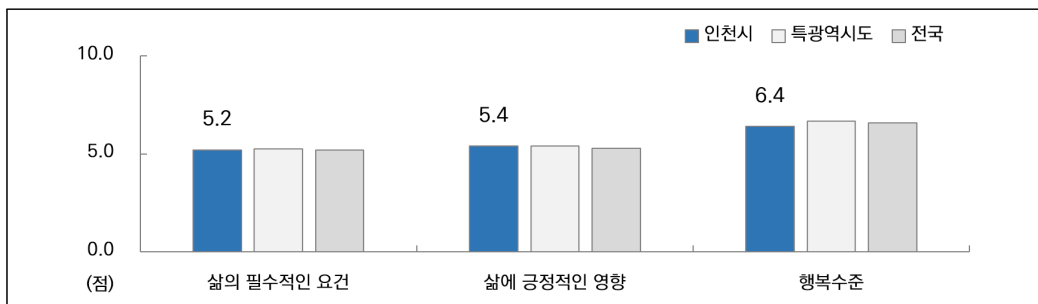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

- 여가활동을 삶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한 수준은 5.2점/7.0점, 삶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한 수준은 5.4점으로 전국 평균(5.2점, 5.3점) 수준임
- 행복 수준은 6.4점/10.0점으로 전국(6.6점) 및 9개 특·광역시도(6.7점)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분석됨
 - 행복 수준은 서울·대구·세종(7.0점), 제주(6.9점), 울산(6.8점), 인천·대전(6.4점) 순

[그림 3-57] 노인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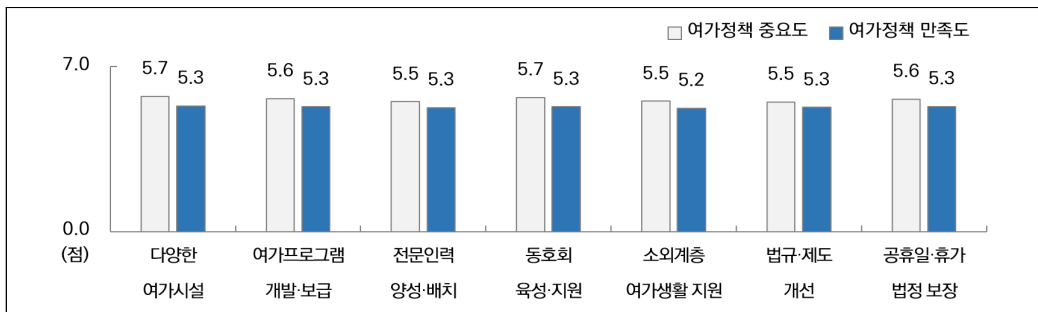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 인천시 노인의 여가정책 중요도 인식은 다양한 여가시설 및 동호회 육성·지원(5.7점/7.0점), 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공휴일·휴가 법정 보장(5.6점) 순임
- 여가정책 만족도는 다양한 여가시설, 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배치, 동호회 육성·지원, 법규·제도 개선, 공휴일·휴가 법정 보장 모두 5.3점으로 나타났으며, 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 항목은 5.2점으로 나타남
- 여가정책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다양한 여가시설 및 동호회 육성·지원이 0.4점으로 가장 크게 분석됨

[그림 3-58] 노인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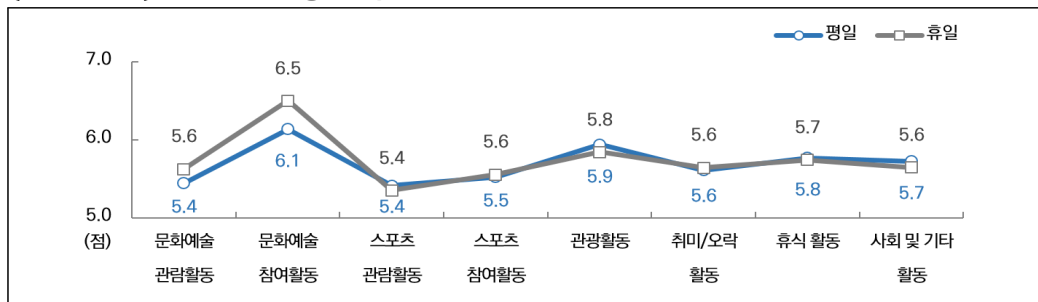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활동 만족도

- 평일 참여 여가활동 만족도는 문화예술 참여 활동(6.1점/7.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일 참여 여가활동 만족도 역시 문화예술 참여 활동(6.5점)이 가장 높게 조사됨
- 평일 및 휴일 참여 여가활동 만족도는 문화예술 참여 활동, 관광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관람 활동 만족도가 가장 낮게 분석

[그림 3-59] 노인 여가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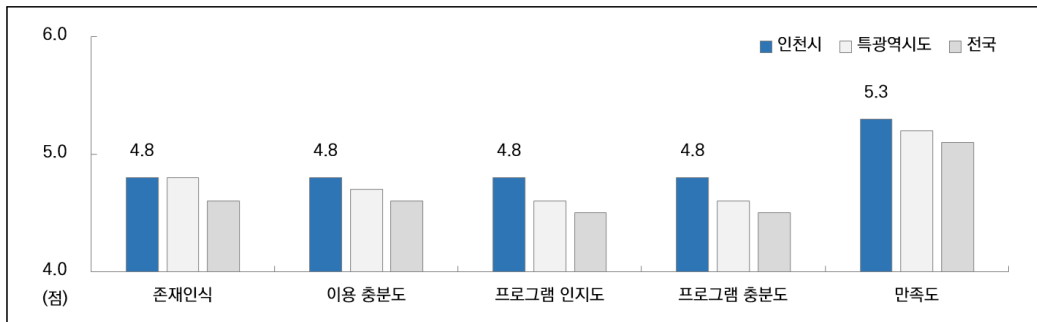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 공간 만족도

- 공공시설 여가 공간 존재인식 및 이용 충분도, 프로그램 인지도 및 충분도는 4.8점/7.0점으로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역시 5.3점/7.0점으로 높게 조사됨
- 인천시의 생활권 내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율은 52.9% 수준으로 전국(48.7%) 및 특·광역시도(50.9%) 평균 대비 높게 조사
- 공공시설 여가 공간 만족도가 민간시설 여가 관련 공간산업 만족도(5.0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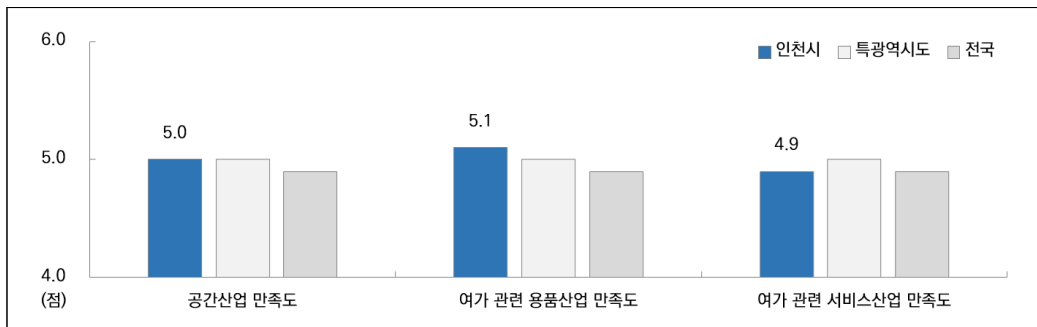
[그림 3-60] 노인 공공시설 여가 공간 만족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 민간시설 여가 관련 공간산업 만족도는 5.0점/7.0점, 여가 관련 용품산업 만족도는 5.1점으로 전국 평균(각 4.9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관련 서비스산업 만족도는 4.9점으로 전국(4.9점) 평균 수준임

[그림 3-61] 노인 민간시설 여가 공간 만족도



주1 : 여가 관련 공간산업은 호텔,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공원, 공프장, 스키장, 스포츠 시설 등

주2 : 여가 관련 용품산업은 여행 및 캠핑용품, 스포츠용품, 낚시용품 등

주3 : 여가 관련 서비스산업은 전시 및 행사업체, 공연산업, 여행회사, 오락관련서비스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4) 시사점

여가·문화 인식개선 및 교육을 통한 체계적 여가·문화 조성 필요

- 여가 중심 사회로의 전환 및 수명 연장 등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로 여가·문화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가·문화 인식 및 여가시간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의 평일 하루 여가시간(2.6시간)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변화 인식(4.2점/7.0점), 여가 인식(5.2점/7.0점) 및 행복 수준(6.7점/10.0점)이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조사
 - 노인의 여가 인식(5.2점/7.0점)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평일 하루 여가시간(3.8시간), 행복 수준(6.4점/10.0점)은 전국 및 특·광역시도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분석
- 삶의 질과 행복 수준 제고를 위해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연령대별 여가·문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유아기 및 아동기 교육 경험률은 32.3%로 전국 평균 수준이나, 청소년기 교육 경험률은 14.9%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
 - 노인의 유아기 및 아동기 교육 경험률은 0.7%였으며, 청소년기 교육 경험은 부재하였으나, 향후 교육 이수 의향은 15.4%로 높게 조사

수요자별 이용실태를 반영한 여가·문화 공간 확충

- 다양한 여가시설에 대한 정책 니즈가 나타났으며, 수요자별 여가·문화공간 이용 실태는 상이하게 분석됨
 - 다양한 여가시설에 대한 여가정책 중요도는 청년(5.8점/7.0점) 및 노인(5.7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구와 미추홀구 거주 청년의 문화예술·여가시설 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게 조사
- 수요자별 여가·문화공간 이용실태 및 니즈에 따라 지역 내 여가·문화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청년의 공공시설 인지도 및 충분도(4.8점~5.1점/7.0점)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나, 만족도(4.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 민간시설 만족도(5.0점)는 전국 평균 대비 높게 분석

- 청년이 이용하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은 민간공연장(19.9%), 도서관(19.0%), 박물관(13.3%) 순으로 민간공연장 및 박물관은 거주 지역 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용 공연장(34.0%) 및 공유문화공간(18.4%)의 조성 요구가 높게 분석
- 반면, 노인은 노인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률이 52.9%, 만족도(5.3점/7.0점) 역시 민간시설(5.0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의사는 공공시설 외 민간시설에 대한 욕구 확인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강화

- 여가활동은 TV시청 등 휴식 활동과 인터넷 검색, 쇼핑/외식 등 취미오락 활동, 문화예술행사는 영화 관람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소극적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됨
- 청년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취미오락 활동과 휴식 활동이며,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은 영화(42.6%), 참여 활동은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10.2%)으로 조사
- 노인의 여가활동은 휴식 활동(76.4%) 및 취미오락 활동(10.7%), 문화예술행사는 영화 관람(30.1%)과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7.4%)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
- 여가·문화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행사의 내용 및 프로그램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은 문화예술행사의 직접 관람 및 참여 시, 행사의 내용 및 수준(35.8%)이나, 프로그램의 수준(54.2%)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응답
- 노인 역시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시 비용의 적절성 외,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23.8%)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행사의 참여기준은 프로그램의 수준(40.9%)이 가장 높게 조사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참여 여가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 활동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노인여가활동으로 인식되나, 실제 자원봉사 활동 경험률이 낮고, 참여 활동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지난 1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응답자의 2.7% 수준으로 타 특·광역시도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분야(61.5%)의 단순 노력봉사가 83.3%로 조사
- 노인의 주체적인 삶과 자아정체성의 실현 측면에서 다양한 취미·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여가·문화 정책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시민이 인식하는 여가·문화 활동 참여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여가·문화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함
 - 청년은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 시간 부족(5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움 역시 시간부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노인의 경우,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 부담(53.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움도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응답
- 수요자별 여가·문화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경우, 다양한 여가시설 및 공휴일·휴가 법정보장(5.8점/7.0점)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은 다양한 여가시설 및 동호회 육성·지원 정책(5.7점)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한편, 여가정책 만족도는 청년과 노인 모두 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이 가장 낮게 조사

[표 3-38] 청년 분야 분석 결과 요약

구분	주요 결과
여가·문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변화) 4.2점/7.0점으로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조사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은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35.8%)으로 나타났으며, 보완점은 작품의 질(48.4%), 관람비용(25.5%), 걸림돌은 시간부족(42.3%) 및 비용문제(37.3%) 순 - 문화예술행사 내용 및 수준에 대한 니즈가 높게 나타났으며, 관람비용은 지역별 편차 존재 • (문화예술행사 참여) 참여 기준은 프로그램 수준(54.2%), 비용의 적절성(20.6%), 어려움은 시간 부족(51.2%), 비용 문제(19.9%) 순 • (문화예술교육) 걸림돌은 시간 부족(45.8%), 관심 있는 강좌 부재(22.9%) 순이었으며, 시간 부족 문제는 전국 및 특·광역시도(각 35.0%) 대비 높게 분석
여가·문화 실태	<p>문화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행사 관람) 관람 실태 및 의향은 영화(42.6%, 39.2%), 대중음악/연예(14.0%, 14.4%) 순이었으며, 만족도는 대중음악/연예(6.0점/7.0점)가 가장 높게 조사 - 지역 내(88.6%), 주말 저녁(38.6%)과 낮(36.4%) 중심으로 활동 • (문화예술행사 참여) 참여 실태 및 의향은 미술전시회 및 창작활동(10.2%, 11.0%), 대중음악/연예(6.9%, 9.3%) 순이었으나, 만족도는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4.5점/7.0점)이 가장 낮게 분석 - 주말 저녁(39.5%)과 낮(37.2%) 중심으로 활동 • (문화예술 활동 공간) 민간공연장(19.9%), 도서관(19.0%), 박물관(13.3%) 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나, 민간공연장 및 박물관은 거주 지역 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조성이 필요한 시설로는 전용공연장(34.0%) 및 공유문화공간(18.4%)에 대한 요구가 높게 분석 • (문화예술 활동 지출) 지출항목 및 의향은 영화 직접 관람(69.2%, 58.7%) 및 구입 및 대여(10.4%, 11.4%) 순 • (문화예술교육 경험) 이야기 및 아동기(32.3%)는 전국 평균(31.7%) 수준, 청소년기(14.9%)는 전국(22.3%) 및 특·광역시도(26.9%)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사설학원/강습소를 선호
	<p>여가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여가활동)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취미오락 활동(인터넷 검색, 쇼핑/외식 등) 및 휴식 활동(TV시청 등),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은 취미오락 활동과 문화예술 관람 활동(영화관람 등) 순 • (동호회 및 자원봉사 활동) 동호회는 응답자의 9.5%, 자원봉사 활동은 3.5%의 낮은 참여율 • (여가 시간 및 휴가 사용) 여가 시간은 평일 2.6시간으로 전국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년간 휴가일수는 6.5일로 전국 특·광역시도 중 2위로 높게 조사 • (여가활동 주 목적) 개인의 즐거움(52.5%), 마음의 안정과 휴식(13.5%) 순으로 조사 • (여가비용) 월평균 지출액은 207,675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약 4만원 높게 조사 • (여가 공간) 영화관(19.5%), 식당(13.5%), 공연장(7.5%) 등 실내(78.0%) 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의사는 쇼핑몰(7.5%), 생활권공원(6.5%), 공연장 및 식당(6.0%) 순
여가·문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4.4점/7.0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며, 불만족은 시간 부족(56.0%) 및 경제적 부담(33.0%) 등으로 조사 •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 여가를 삶의 필수적 요건으로 인식(5.2점/7.0점)하거나, 삶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한 수준(5.2점/7.0점), 행복 수준(6.7점/10.0점) 모두 특·광역시도 중 낮게 조사 •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다양한 여가시설 및 공휴일·휴가 법정 보장(5.8점/7.0점)이 가장 높게 분석 • (여가활동 만족도) 평일은 관광활동(5.9점/7.0점), 휴일은 문화예술관람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5.8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 - 평일 및 휴일 모두 문화예술참여 활동 만족도(5.5점, 5.5점)가 가장 낮게 조사 • (여가 공간 만족도) 공공시설 여가 공간 존재인식(5.1점/7.0점) 및 이용 충분도(5.0점), 프로그램 인지도 및 충분도(각 4.8점)은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만족도는 4.8점으로 낮게 조사, 민간시설 만족도(5.0점)는 전국 대비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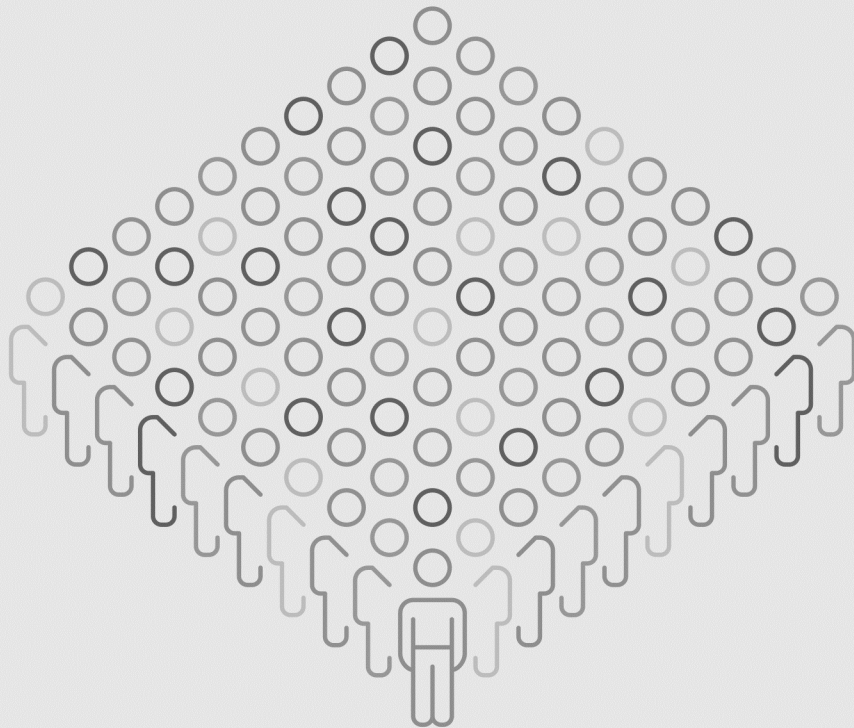
[표 3-39] 노인 분야 분석 결과 요약

구분	주요 결과
여가·문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선택 기준은 관람 비용의 적절성(26.5%),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23.8%) 순이며, 걸림돌은 비용 문제(36.7%)와 시간 부족(23.8%)이 전국 대비 높게 조사 • (문화예술행사 참여) 참여기준은 프로그램 수준(40.9%), 비용의 적절성(22.7%) 순, 어려움 역시 비용 문제(34.7%)와 관심 있는 프로그램 부재(27.2%)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비 비용 문제는 높게 나타났으나, 정보부족 및 주변 이용공간 부재는 낮게 분석 • (문화예술교육) 걸림돌은 비용 문제(39.5%)와 관심있는 강좌 부재(26.5%) 순이었으며, 특히 비용 문제는 전국(22.9%) 및 특·광역시도(22.9%) 대비 높게 조사
여가·문화 실태	<div data-bbox="301 525 372 962" data-kind="parent" data-rs="2">문화 실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행사 관람) 관람 실태 및 의향은 영화(30.1%, 30.7%), 대중음악/연예(11.4%, 10.7%) 순이었으며, 만족도는 대중음악/연예(6.2점/7.0점)가 가장 높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98.7%), 주말 저녁(31.6%)과 주중 낮(29.1%)을 중심으로 활동 • (문화예술행사 참여) 참여 실태 및 의향은 미술전시회 및 창작활동(7.4%, 8.1%), 대중음악/연예(2.0%, 2.7%) 순이었으나, 만족도는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4.7점/7.0점)이 가장 낮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낮 시간 및 주말 저녁 시간(각 41.2%)을 중심으로 활동 • (문화예술 활동 공간) 공간 이용 및 행사 참석은 주민자치센터(36.4%, 44.4%), 민간공연장(17.2%, 28.7%), 복지회관(12.9%, 13.0%) 순이었으며, 사실 문화센터의 공간 및 환경 만족도(6.5점/7점)와 프로그램 만족도(6.5점)가 가장 높게 조사 • (문화예술 활동 지출) 지출 항목 및 의향은 영화 직접 관람(27.9%, 28.6%) 및 대중음악/연예 직접 관람(7.5%, 10.2%) 순으로 직접 관람에 대한 요구 분석 •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아기 및 아동기 교육 경험률은 0.7%(1명)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교육 경험은 부재하였으나, 향후 교육 이수 의향은 15.4%로 높게 조사 <div data-bbox="301 962 372 1403" data-kind="parent" data-rs="2">여가 실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여가활동)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 및 만족스러운 활동은 휴식 활동(TV시청, 산책 및 걷기), 취미오락 활동(쇼핑/외식, 등산 등)이었으며, 참여 및 희망 여가활동은 유사하게 분석 • (동호회 및 자원봉사 활동) 동호회는 응답자의 4.3%로 전국(7.9%) 대비 낮게 조사, 자원봉사 활동 경험률은 20.7%로 전국(15.2%)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참여자는 2.7%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중인 자원봉사 활동 유형은 사회복지 분야(61.5%), 단순 노력봉사(83.3%) 중심 • (여가 시간 및 휴가 사용) 여가 시간은 평일 3.8시간으로 전국 평균(4.4시간) 대비 낮게 나타났으나, 1년간 휴가일수는 5.3일로 전국 평균(4.7일) 대비 높게 분석 • (여가활동 주 목적) 개인의 즐거움(50.0%), 건강을 위해(15.0%) 순으로 조사 • (여가비용) 월평균 지출액은 120,429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2만원 높게 조사 • (여가 공간) 이용률은 식당(20.0%), 산(11.4%), 노인복지회관(10.7%), 주민자치센터(10.0%), 이용의사는 쇼핑몰(14.3%), 산(12.9%), 생활권공원(11.4%), 노인복지회관(10.0%), 노래방, 유원지 등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민간시설 여가 관련 공간에 대한 욕구 확인
여가·문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4.5점/7.0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며,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 부담(53.3%) 및 시간 부족(26.7%) 순으로 분석 • (여가 인식 및 행복 수준) 여가를 삶의 필수적 요건(5.2점/7.0점) 및 긍정적 영향(5.4점/7.0점)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행복 수준(6.4점/10점)은 낮게 분석 • (여가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중요도 인식은 다양한 여가시설 및 동호회 육성·지원(5.7점/7.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분야별 만족도는 5.2~5.3점 범위 내로 분석 • (여가활동 만족도) 평일 및 휴일 모두 문화예술 참여 활동(6.1점/7.0점, 6.5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관람 활동(각 5.4점) 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 • (여가 공간 만족도)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률은 52.9%로 전국(48.7%)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역시 5.3점/7.0점으로 전국 평균 대비 높게 조사, 민간시설 만족도는 5.0점으로 전국 평균(4.9점) 수준



4

관련 사례분석





관련 사례분석

1. 개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정책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 문화여가 정책 동향 및 해외 사례 분석을 진행함
- 국내 정책 동향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도 9개 지역의 영유아·청년·고령인구, 1인 가구, 다문화·외국인 등 인구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연관계획 검토
- 해외 사례는 해외 선진국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문화여가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문화여가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포함하여 분석 진행

[표 4-1] 사례분석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국내정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대상) 수도권 및 특·광역시도 9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 특·광역시도 :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 (기준년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수립되었거나 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포함하는 정책 포함 • (분석기준) 인구 관련 법률에 기반한 기본계획 및 연관계획 상 문화여가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 관련 계획 : 지자체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 - 고령인구 관련 계획 : 지자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근거 - 영유아·저출산 관련 계획 : 지자체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청년인구 관련 계획 : 지자체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 - 1인 가구 관련 계획 : 지자체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 다문화·외국인 관련 계획 : 지자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
해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대상) 해외 선진국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 • (기준년도) ~2020년 • (분석내용)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문화여가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저출산, 청년인구, 고령인구, 1인 가구, 다문화·외국인 등 대상별 분석 - 세대통합, 문화통합 등 문화여가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 포함

2. 국내 정책 동향

1) 인구변화 관련 정책

- 인구변화 관련 문화여가 정책은 지자체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경기도가 2014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18년을 기점으로 지자체별 인구변화 관련 조례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
- 제주특별자치도(2020)가 수립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0~2024)에서는 고령화 대응 부문에 사회활동 참여 및 건강 활동 관련 정책이 수립됨
 -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사회공헌 저축제도 및 건강 활동 포인트제 등의 사업이 제시

[표 4-2] 인구변화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2020~2024)	• (고령화 대응)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사회공헌 저축제도, 건강 활동 포인트제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근거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0.6.10.), 제주도, 인구정책 5대 분야 144개 사업 본격 시행

2) 영유아·저출산 관련 정책

- 영유아·저출산 관련 문화여가 정책은 지자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영유아 등 가족 중심의 사업이 제시됨
 - 저출산 대응 계획 특성상,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 유도, 보육 강화 등 출산장려 사업 중심으로 수립
- 서울시(2020.3.)의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서는 가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초점을 둔 사업이 진행됨

[표 4-3] 영유아·저출산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서울시 2020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2020)	• (일·생활 균형) 서울 가족학교 운영 등 - 가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 패밀리 셰프(전통시장 장보기, 요리하기, 문화가 있는 우리 가족 등),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신체놀이활동, 과자집 만들기 등 체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근거

자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2020.3.), 제3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16~'20) : 2020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3) 청년 관련 정책

- 청년 관련 문화여가 정책은 지자체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하며, 주요 사업 유형은 청년활동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커뮤니티 지원,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연계 등임
 - 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 청년 정책네트워크가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의제 발굴 및 과제 도출
- 공공시설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활동 공간 조성에서 민간공간 지원으로 다변화 되고,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는 주요 거점에서 생활권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자리 연계 문화·예술 사업은 지원 대상 및 방식에 있어 다양화되는 추세임
 -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의 청년공간 조성 사업,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의 청년 커뮤니티 조성 사업, 제주시의 제주-이주 청년 간 문화콜라보 사업 등

[표 4-4] 청년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비고
2020 서울형 청년보장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청년청, 무중력지대, 민간공간 지원 - 공공시설 내, 권역별 청년활동종합공간 조성 및 <u>생활권 내 민간 청년공간</u> 운영 지원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6조) 근거
부산시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 (2020~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공간 조성) 도심 지하상가 '언더그라운드 051', 원도심 '청년 놀이터', <u>생활권역별 커뮤니티 공간</u> 등 - 원도심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한 청년문화공간 조성(창업공간, 전시 등) • (청년활동 지원) 커뮤니티 모임 지원, 공연·시각예술 등 창작활동, '청년 스쿨' 강연·교육 프로그램 등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관련
제1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7~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 문화활동 확산(문화동아리, 문화패스 등), 청년예술과 문화일자리 연결, 건강한 청년 스포츠 활성화, 청년예술 3대 창작공간 확충, 청년창작물 판로 다각화(아트카페, 마켓) 등 • (청년주도의 소통과 참여) 생활권별 청년 커뮤니티 조성 등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5조) 근거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다양한 문화향유 보장) 수요자 중심의 버스킹, 컬처트릭 등 • (청년문화 인재 육성) 청년문화예술 유통 전문가 및 문화기획자 양성 등 •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u>민자유치를 통한 청년공간 조성</u>, 문화예술 카드 지원, 청년생활문화 공공공간 제공 등 • (장애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강화) 장애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장애청년문화센터 설립 등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5조) 근거
대전광역시 2020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동 공간) 청춘공간 운영, <u>청춘터전(민간 조성)</u> 지원, 청년공간 자치구 지원 등 • (청년주도 활동사업) 청년주도의 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 (예술가활동 플랫폼) 청년예술인 지원, 대전청년 유니브 연극제 • (공연·전시) 청년작가 전시 프로젝트, 청년작가장터, 오케스트라 운영 등 • (크리에이터 양성) 청년인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등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관련

[표 4-4] 계속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대전광역시 2020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동 공간) 청춘공간 운영, 청춘터전(민간 조성) 지원, 청년공간 자치구 지원 등 • (청년주도 활동사업) 청년주도의 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 (예술가활동 플랫폼) 청년예술인 지원, 대전청년 유니브 연극제 • (공연·전시) 청년작가 전시 프로젝트, 청년작가장터, 오케스트라 운영 등 • (크리에이터 양성) 청년인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등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관련
세종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골길 대학문화거리 활성화,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 사업, 청년문화 페스티벌 활성화, 세종Y형 복합센터 운영, 생활체육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세종 컬처로드, 아름다운 세종청년展, 청년문화 생태계 활성화,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사업 활성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제6조)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동 지원) 청년 다복공동체사업 운영 -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교육·컨설팅 등) • (고용확대·일자리의 질 제고)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u>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지원 등</u> • (문화 활성화) 서울농생대 문화공간조성(청년문화창작소 운영), 경기 청년 영상축제,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공연문화 청년 할인 등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 지원) 청년예술분야 육성지원사업,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 창업지원 사업, 제주청년작가 공모전 등 • (문화향유) 제주-이주청년 간 문화콜라보(문화콘텐츠 창업 등), 게릴라 거리토크(거리 퍼포먼스 등), 제주 청년축제 등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7조)

자료 : 서울특별시(2015),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부산광역시(2019.7.3.), 부산시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 대구광역시 보도자료(2017.1.17.), 『2020 청년희망 대구』 발표; 광주광역시(2017),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2020), 2020년 청년정책 추진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17.3.),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결과보고서; 경기도(2017.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2017.11.),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4) 고령화 관련 정책

- 고령화 관련 문화여가 정책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주요사업 유형은 건강관리, 교육, 동아리 및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됨
 - 고령친화도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6년부터 추진하는 국제네트워크로 2019년 12월 기준 41개국 1,000개 도시가 가입
 - WHO는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참여와 일자리 등 8대 영역의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내 인문·사회, 문화·예술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심에서 지역 및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노인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서울시의 신개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의 지역특화형·활성화형 자율 노인복지관 혁신사업, 여가력 확대 및 처음문화 경험 프로젝트 등

[표 4-5] 고령화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및 공연 활성화) 한마음축제, 노인영화제, 실버영화관 등 • (어르신 평생교육 확대) 어르신아카데미, 50+세대 평생교육 •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 (어르신 자치활동 지원) 어르신동아리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 (신개념 여가 공간 마련) 생활밀착형 마을쉼터, 공공시설사용 온라인지원 “가상복지관” • (신개념 프로그램 운영) “엘더호스텔”, “도시교류” 등 신규프로그램 개발, 신노년문화공모 등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 근거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2020~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 100세 시대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시민, 시민주권대학 운영, 100세 시대 체력증진 체육시설 확충, 건강한 노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건강마을 조성사업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 전문자원봉사단 양성, 건강장수 체조단 운영, 경로당 특성화 및 기능 강화, 작은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자원봉사 역량향상 및 활성화 지원, 공동체 씨앗동아리 활성화 운영,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 5060 재능나눔 해피콜센터,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전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노인대학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 근거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형·활성화형 자율 노인복지관 혁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전문화, 특성화 시각으로 노인복지관 시범운영 * 지역특화형 자율적 복지관 시범사업 : 지역 특성 또는 욕구 반영 • ‘여가력(여가경력)’ 확대 및 ‘처음 문화 경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노인 대상 여가력 개발을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근거

자료 :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201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수립; 세종특별자치시(2019.10.), 세종형 고령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2017.1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5) 1인 가구 관련 정책

- 1인 가구 문화여가 정책은 지자체별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주요 사업 유형은 사회적 관계망 및 건강 지원 등임
 - 부산시가 2016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기본계획은 미수립
 - 조례상 1인 가구 복지 지원 사항은 여가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등 식생활 지원을 제시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은 청년과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마을 공동부역을 통한 식생활 지원, 이주 가구와 선주민 간 문화교류를 지원함

- 서울시의 마을공동부엌,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화교류, 경기도의 청년·중장년 커뮤니티 지원 등

[표 4-6] 1인 가구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서울 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망) 고립 1인 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u>마을공동부엌 활성화 지원</u>, 다양한 1인 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u>이주 1인 가구와 선주민 문화교류 지원</u> 등 • (건강) 1인 가구 건강 동아리 지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8조) 근거
경기도 1인 가구 지원계획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로움·고립 극복 프로젝트) 청년 전용 커뮤니티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중장년 “수다 살롱” 커뮤니티 지원 • (혼밥 개선 소셜다이닝 프로젝트) 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등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근거

자료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 서울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기도 보도자료(2020.2.20.), 1인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 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나선다

6) 외국인·다문화 관련 정책

- 외국인·다문화 관련 문화여가 정책은 자자체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다양한 문화를 활용한 지역사회 내 교류 촉진 및 인식개선 사업이 추진됨
-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모임 지원 및 지역주민과 상호 교류를 위한 이벤트 개최 등임
- 서울시의 디딤플라자 조성 및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제주다민족문화제 개최 등

[표 4-7] 외국인·다문화 관련 문화여가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제2차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인프라 구축) 서울 디딤플라자 조성 추진, 제2글로벌센터 설치 추진,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 주민 스포츠축제, 글로벌 문화축제 • (외국인 주민 자조모임 및 당사자 단체활동 강화)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유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글로벌센터 자원봉사단, 외국인 주민 공동체 사랑방,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등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2019~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구축 확대 등 • (지역사회 소통 증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제 개최, 외국인 주민 전통문화체험 등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근거

자료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9), 제2차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주특별자치도(201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2019~2022)

3. 해외 사례 분석

1) 인구변화 관련 사례

- 저출산 및 고령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확대 등 인구변화와 관련된 문화여가 부문 사례는 지역 내 노인, 영유아·유소년, 대학생,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의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됨
 - 세대통합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대학 연계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및 유소년 소통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다문화와 연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 예술, 스포츠 등 문화여가를 매개로 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공공 및 민간에서 기획·추진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초등학교 예술 교육 및 대학교 세대통합 교육과 연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 연결 사례는 미국 필그림 플레이스 노인공동체의 지역 대학 연계 파트너십 프로그램, 미국 뉴욕시의 고령자와 유소년 간 예술 공유 프로그램 ‘살아 있는 역사!’ 등
- 은퇴한 노인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 외국인 대학생의 지역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연령 및 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를 목적으로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여가문화 분야의 노력이 전개됨

[표 4-8] 인구변화 관련 문화여가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세대통합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네덜란드 로테르담) 세대게임 개최	•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 연결 이벤트) 아이, 부모, 조부모 등 여러 세대로 팀을 구성하여 축구, (휠체어)테니스, 농구, 맨손 체조 등 참여
	(독일 뉘른베르크시) 세대 통합형 운동공원 조성	• (모든 세대를 위한 운동공원 조성) 운동공간 공유를 통한 세대 간 교류 및 통합 촉진 - 노인놀이터 조성이 목적이었으나,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환
지역대학 연계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미국 필그림 플레이스 노인공동체) 지역 대학 연계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대학 연계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대학 세대통합 관련 강좌에 커뮤니티 교육자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내피어 이니셔티브’ 운영 - 노인과 대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세대통합 수업에 참여하는 ‘내피어 코스’ - 대학생과 사회정의, 평화, 환경운동에 헌신한 노인을 연결하여 조언, 지도를 받는 ‘내피어 펠로우’
	(일본 릿교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세대 간 함께 공부하는 강좌 운영) 릿교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은 시니어 교과과정 외, 학부생 강좌를 수강하고 발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표 4-8]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영유아 및 유소년 소통 프로그램 운영	(독일 크리에이티브 하우스) 세대통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세대 참여 프로그램 및 모임 운영) 지역 허브 내 고령자, 청년, 중장년자, 엄마와 아이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중장년 세대를 위한 피트니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언어 수업, 음악 수업, 청년 연극 수업, 프랑스어 수업, 요가와 명상 등
	(미국 뉴욕시) 세대 간 예술 공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고령자와 유소년 간 소통 프로그램 ‘살아 있는 역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시 공립학교와 연계하여 커뮤니티 기반 세대 통합 예술활동 진행 - 예술가, 고령자, 지역 유소년이 14~18주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한 시각 예술, 스토리텔링, 글쓰기 등을 진행하고, 결과물은 지역사회에 발표
외국인· 다문화 연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미국) 외국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자와 지역 대학생 간 멘토-멘티 매칭) 은퇴한 지역주민이 외국 출신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지역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 및 토론, 문화 이해 등
	(독일 크라이사우이니 이니셔티브 협회) 문화 통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양한 문화와 세대 간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좌, 컨퍼런스, 교류 프로그램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역사 등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한 모든 연령대의 국제교류 촉진

자료 :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송민혜 외(2019), 해외 50+정책 사례 분석; 윤소영(2016),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 고령자를 중심으로

[그림 4-1] 인구변화 관련 문화여가 사례



네덜란드 세대게임(Generation Games)

독일 크리에이티브하우스 영유아 프로그램

자료 : Generation Games 홈페이지(www.generationgames.com), KREATIVHAUS 홈페이지(www.kreativhaus-berlin.de)

2) 청년 관련 사례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 관련 사례는 청년 대상 문화여가 비용 지원, 프로그램 확충, 지역 내 청년 문화예술 창출을 위한 신진예술가 육성 사업 등임
-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청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미래의 문화예술 소비 계층 양성을 목적으로 청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함
 - 이탈리아 Bonus Cultura 및 프랑스의 Pass Culture 제도는 만 18세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플랫폼 앱을 기반으로 약 500유로 상당의 문화지원금을 지급
 - 거주지 주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스페인은 박물관, 국립미술관 등 공공 문화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노력을 전개함
-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청년 등 신진 예술가를 대상으로 보육공간 조성 및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스페인 ZAWP는 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창출하고, 예술가와 지역주민, 청년 방문객이 교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 청년의 문화여가 활성화에 기여

[표 4-9] 청년 관련 문화여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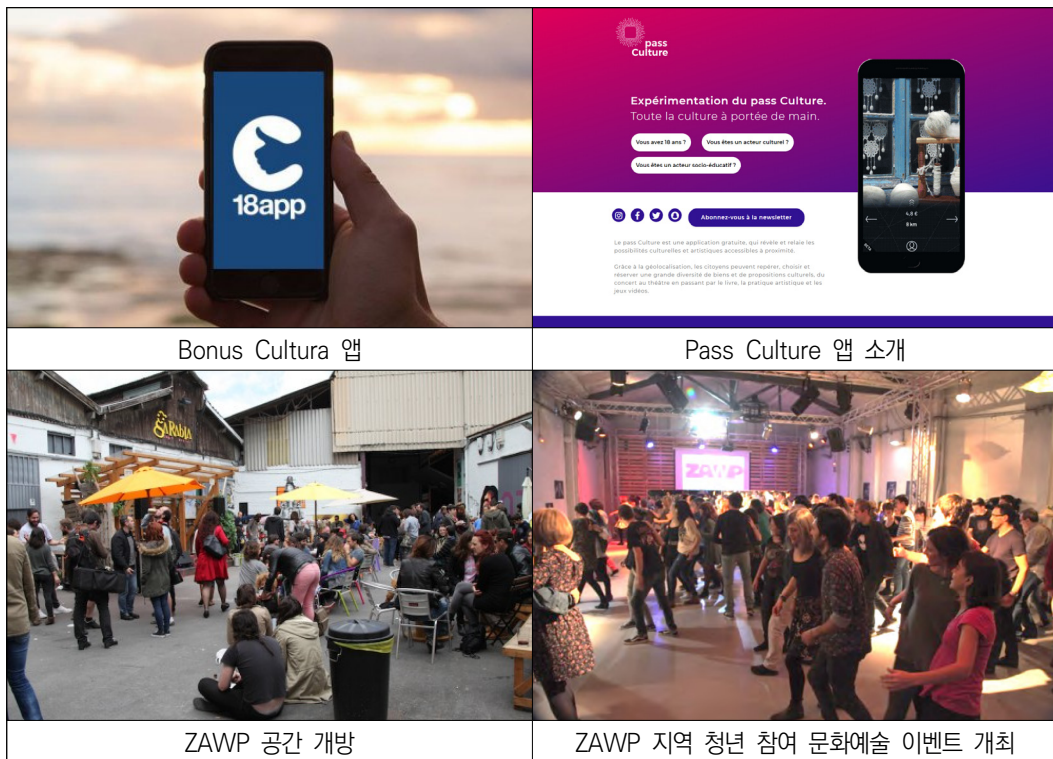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문화여가 비용 지원	(EU) European Youth Card 제도	• (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EU 회원가입국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European Youth Card 제도 실시
	(영국) 문화활동 참여 활동비 지원	• (무료관람 회원제도 운영 및 할인 티켓 제공) 청년 예술체험 기회 확대 및 청년 관객층 양성
	(이탈리아) Bonus Cultura 제도	• (청년 문화바우처 사업)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 부정적 시각 개선을 목적으로 18세가 된 이탈리아 청년을 대상으로 500유로의 문화지원금 지급 - 플랫폼 앱을 기반으로 영화, 콘서트, 연극, 문화예술 이벤트, 도서 등 구매
	(프랑스) Pass Culture 제도	• (청년 문화바우처 사업) 만 18세가 된 프랑스 청년을 대상으로 500유로 상당 크레딧을 제공하여 콘서트, 극장, 문화예술 체험, 도서 등 향유 지원 - 플랫폼 앱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와 민간기업의 예산 지원 - 거주지 주변 문화예술 활동 및 상품을 알려 지역 내 문화예술 소비 촉진
프로그램 확충	(스페인) 프로그램 확충	• (청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충) 박물관, 국립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 대상 프로그램 증진

[표 4-9]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신진예술가 육성	(스페인 ZAWP) 청년 예술가 보육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예술가 육성 공간 조성 및 지자체 예술지원사업과 연결 지원) 제철산업 폐공장을 활용한 청년 문화예술 보육공간 조성 -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 지원, 지자체 사업과 연결, 네트워킹 지원 등 - 지역주민 접근성 제고 및 예술가와 지역주민, 청년 방문객 등과 교류 촉진 -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 내 5개 장소에서 전시, 팝업스토어, 프로젝트 진행 * ZAWP(Zorrozaurre Art Work In Progress) : 예술가와 창의인력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극장, 회의실, 작업공간, 기숙사 등으로 구성
	(호주예술위원회) JUMP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예술가 프로젝트 지원) 젊은 세대의 문화예술 육성을 목적으로 신규프로젝트 및 예술역량 개발 지원 - 멘토링, 온라인 프로파일링, 네트워크 구축 등 프로젝트 지원 및 사후관리
	(영국 Battersea Arts Center) BAC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 문화예술 제작자 양성) 신진 예술극단 및 제작자를 동시에 인큐베이팅하는 프로그램 운영 - 공연 개발프로그램 'BAC Scratch Nights'는 작품 아이디어 공개·발표, 워크숍, 축제발표, 축제형 마켓 발표를 통해 기획공연 형태로 제작 지원

자료 : 광주문화재단(2017),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 보고서; 광주광역시(2017),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KDI 지식경제연구부(2019.2.26.)

[그림 4-2] 청년 관련 문화여가 사례



자료 : OECD 홈페이지(oecd-opsi.org/innovations/bonus-cultura-18app), Pass Culture 홈페이지(pass.culture.fr); ZAWP 홈페이지(www.zawp.org)

3) 고령화 관련 사례

- 고령화 문화여가 관련 사례는 여가활동 및 여행 프로그램 제공, 문화여가 비용 지원, 사회활동 및 일자리 연계, 문화여가 기반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임
 - 고령자 대상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인문·사회, 문화·예술 및 신체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등
-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지원 방식에 있어 체계화되고 있음
 - 고령화 문화여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프로그램 기획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이해 교육 진행
 - 문화여가 비용 지원 시, 단순 바우처 지원에서 타임크레딧 제도 도입 등으로 다양화

[표 4-10] 고령화 관련 문화여가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아일랜드 Age & Opportunity) 여가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인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신체활동리더가 운영하며,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안내 전화서비스 'FitLine' 운영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시, 연주회, 체험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그룹의 활동을 지원하는 'Cultural Companions' 프로그램 운영 및 축제 'Bealtaine' 개최 • (노인 이해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 문제에 대한 공론화 프로그램 'Get Vocal' 사업 운영 등
	(프랑스 파리지) 파리 평생대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55세 이상 파리지민을 대상으로 과학, 철학, 문학, 예술 등 분야의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퍼런스, 아틀리에, 하이킹, 실습, 문화 체험 등 1년 3개 시즌 운영
	(프랑스 파리지사회복지센터) 시니어클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프로그램 운영)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체험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하는 놀이, 예술활동, 체육활동, 멀티미디어 교육, 문화활동, 건강클럽, 놀이활동, 은퇴를 잘 즐기기 아틀리에 강좌 등
	(미국 뉴욕공립도서관) 고령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의 관심을 반영한 강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글쓰기, 초상화 그리기, 퀼트 만들기 등 아트 워크숍 진행 -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 방문 뜨개질 및 자수, 이야기 프로그램 등 운영 - 찾아가는 책, 우편으로 받아보는 책 등 서비스 제공
여행 프로그램 제공	(스페인 정부) 유럽노인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정보 서비스 제공)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여행 컨설팅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에 출발지, 여행기간 및 관심사, 희망 여행지 정보 등 입력 시, 여행계획 이메일 발송
	(미국 로드스칼러) 노인 여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모험과 교육 중심의 여행 프로그램 제공 및 대학교 기숙사 시설을 활용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프로그램은 역사 및 문화학습, 탐험, 축제·이벤트, 선상 모험 등 - 지역 대학, 컨퍼런스 센터, 박물관, 문화센터 등과 협력 운영

[표 4-10] 계속

구분		주요 내용
문화여가 비용 지원	(영국 SPICE) 타임크레딧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임크레딧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봉사활동을 통해 타임크레딧을 적립하고, 문화여가 활동 참여 시 사용하는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음악·영화, 역사적 명소, 스포츠, 여행 등 협력처에서 사용 가능
	(프랑스 파리) 시니어 플러스 카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프로그램 이용 카드 발급)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무료 체험 카드(연중 3개월 이용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쿠아집, 스트레칭, 태권도, 테니스, 노르딕 워킹 등 프로그램 운영
	(프랑스 정부) 바캉스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바캉스 프로그램 지원) 60세 이상 국민 대상 패키지 여행상품 재정지원
사회활동 및 일자리 연계	(싱가포르 RSVP Singapore) 자원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연결 및 자원봉사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를 위한 IT 코스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미국) 양코르 펠로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운영)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매칭 및 파트타임 근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문화, 지역경제개발, 환경, 건강관리, 교육 등 분야의 비영리기구 지원 * 예시 : 인텔 직원 퇴직 시, 펠로우십 참가자 선발 및 지원금 제공
문화여가 기반 조성	(미국 브록클린) 도서관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사례 수집·제공) 노년과 도서관, 창의적인 노년에 관한 연구와 우수 사례 수집 및 배포 • (공공 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예술 교육 워크숍 계획, 마케팅, 제공 방법 등 교육
네트워크 구축	(미국 뉴욕시) 시니어와 예술가의 파트너 맺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적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시니어 센터 내 예술가 레지던시 운영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를 위한 연극, 댄스, 자화상 그리기, 합창 등 프로그램 운영 - 전시, 오픈하우스, 퍼포먼스, 이벤트 등 지역 커뮤니티 공유 프로그램 진행

자료 : 김현아(2016.4.28.), 노년기 여성의 활동적 삶을지원하는 해외 사례들;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김정훈·이다경(2018.2.28.),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송민혜 외(2019), 해외 50+정책 사례 분석; 김춘남 외(2015), 어르신 문화즐거움의 다양화 방안 연구; 윤소영(2016),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 고령자를 중심으로

[그림 4-3] 아일랜드 Age & Opportunity 사례



자료 : 아일랜드 Age & Opportunity 홈페이지(www.ageandopportunity.ie)

4) 1인 가구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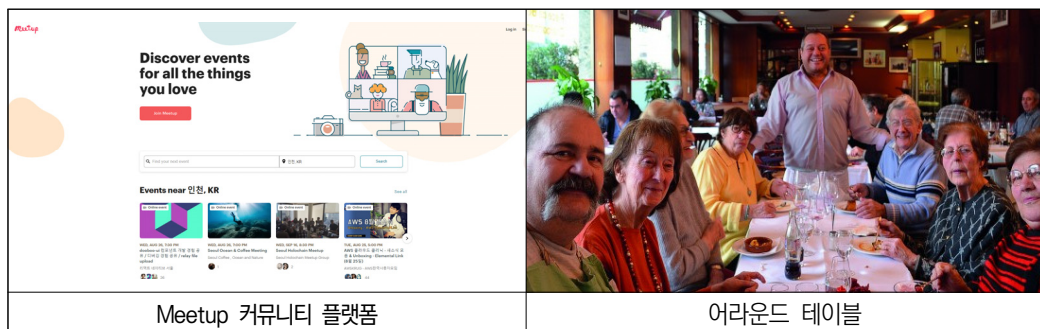
- 1인 가구 관련 문화여가 사례는 공동주택과 연계한 문화여가 활성화, 커뮤니티 구축 지원, 공동 식사를 통한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임
- 청년 1인 가구는 문화여가 활동의 대인적 제약을 해소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 1인 가구는 소외감 완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사업이 진행
- 가족구성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보급과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등에 기반하여 문화여가 촉진 사업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

[표 4-11] 1인 가구 관련 문화여가 사례

구분		주요 내용
공동주택 연계 문화여가 활성화	(스웨덴 테크팜 K9) 공동주택 연계 문화여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내 문화여가 시설 및 동아리 형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운동, 외국어 등 거주민이 참여하는 동아리 활성화 - 요가·헬스 등 운동시설, 영화·음악 감상시설 등 문화여가 공간 구성 * 테크팜(techfarm) : 청년 공동주택으로 K9은 외스테르말름 시내 중심부에 위치
문화여가 커뮤니티 구축 지원	(캐나다 Meetup)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및 이벤트 개최) 주변 지역의 관심있는 문화여가 활동 정보 제공 및 참여 촉진 - 하이킹, 요리 배우기, 언어 연습, 모바일 앱 개발, 사회 운동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모임 활성화
공동 식사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스위스 제네바) 어라운드 테이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를 통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함께 식사하며 교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며, 소규모 그룹별로 지역 식당에서 진행
	(영국 런던) 거리 파티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파티 활성화) 지역주민이 거리에 나와 다과를 즐기며 교류하는 행사로 소외된 커뮤니티 지원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지역 소속감 증대를 목적으로 런던시에서 추진 - 지역주민들이 거리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빅 런치(Big Lunch)'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거리파티 촉진

자료 : 김형균(2019),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Meetup 홈페이지(www.meetup.com);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그림 4-4] 1인 가구 관련 문화여가 사례



자료 : Meetup 홈페이지(www.meetup.com); Age-friendly world 홈페이지(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

4. 시사점

국내사례 : 계층별·대상별 다양한 관점의 문화여가 관련 정책 추진

-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기본계획 및 대응방향을 수립하여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과 정책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 제안
 - 국내 정책 동향에서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은 문화여가의 인식 확산 및 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와 연계된 문화여가활동 지원, 교류와 통합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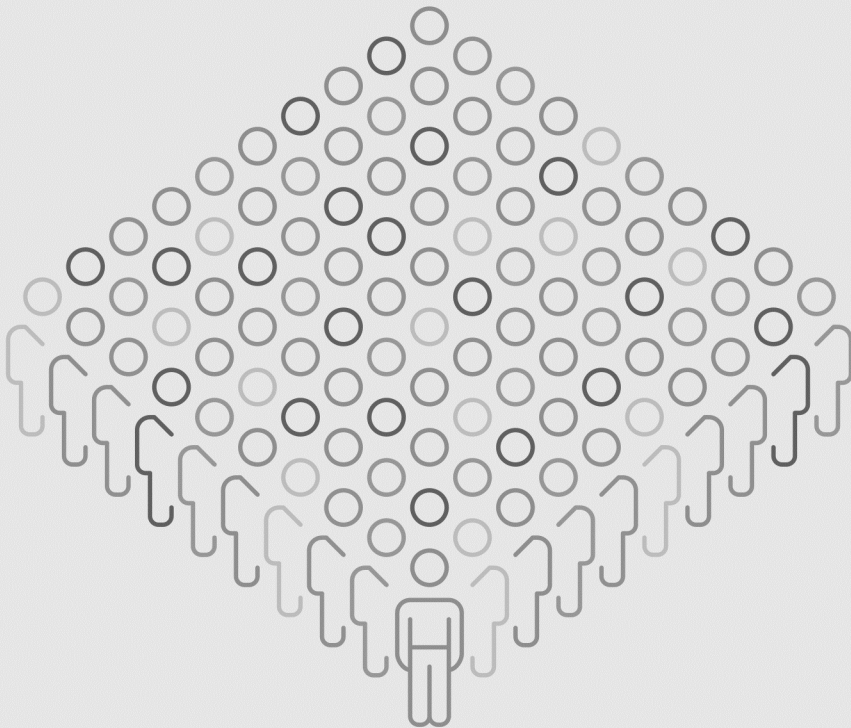
해외사례 : 다양한 주체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통합적 관점에서 인구정책 방향 제시

- 국내 정책 동향과는 달리 해외 사례분석 결과 해외 사례에서는 대상과 계층별 인구정책의 방향보다는 주체 간 연계 및 통합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독일, 일본 등 인구정책을 우선 추진한 국가들의 선행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편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 제시(이소영 외, 2019.9)
-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노인과 영유아 및 청소년과의 세대통합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예술을 매개로 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교류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 대상의 사례에서는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청년 예술가 육성 및 청년 대상 프로그램 확충 등을 제시
 - 노인과 관련한 사례에서는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및 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
 - 1인 가구와 관련한 사례로는 공용공간 및 커뮤니티 구축, 상호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시



5

정책방향





정책방향

1. 정책방향

- 절대인구의 감소 전망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등장과 다문화 사회의 확산 등 인구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탈노동 시대'에는 노동과 여가의 순환구조가 바뀌면서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과 생활의 균형, 행복한 질적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여가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 증가 전망
- 인구구조 변화를 둘러싼 최근 정책이슈와 문화여가 분야 트렌드 변화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정책 방향을 4가지 영역으로 제안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안함
- 인천시민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
 - 인천시민 여가기본권 보장, 인천시민 문화여가 교육 실시, 인천시민 문화여가 행복지수 개발
- 인천시민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조성과 복합화, 대상별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교류 및 융합형 여가 프로그램 지원, 인천시민 1인 1여가 지원

○ 인천시민 문화여가 생태계 조성

- 인천시민 문화여가 온라인 플랫폼 개발, 무장애 여가 환경 조성, 문화여가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인천시민 문화여가 제도적 기반 강화

- 인천시민 문화여가 수요 및 실태조사, 인천시민 여가경력제도 도입, 인천시민 문화여가 지원센터 운영, 여가친화도시 선정 지원

[그림 5-1] 인천시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2. 추진과제

1) 인천시민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

인천시민 여가기본권 보장

- 2015년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2조(기본이념)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
 -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 제7조(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롭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문체부 매 5년, 지자체 매년 시행계획 수립)
- 현재 인천시는 시민의 여가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인천시민들의 여가 향유권 보장 및 여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인천시는 여가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

[표 5-1] 지자체 여가 관련 조례

구분	조례명	제정일	비고
서울시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2019.7.1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 7217호
부산시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3.30. 제정	부산광역시 조례 제 5327호
광주시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2019.5.15. 제정	광주광역시 조례 제 5224호
경기도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2017.9.29. 제정	경기도 조례 제 5716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조례	2019.9.23. 제정	충청북도 조례 제 4310호
전라남도	전라남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2.22. 제정	전라남도 조례 제 4643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4.19. 제정	경상북도 조례 제 4071호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2017.12.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1974호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 2020.9.2.), 검색어 : 여가

- 따라서 인천시민의 여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천시민 여가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민의 여가 기본권을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인천시민 대상 여가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인천시 관광진흥조례 개정(2019.12.30.)을 통해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제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바 있음
 -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의3(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시민 여가 활성화 조례에는 인천시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여가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여가 정보 수집과 제공, 여가 교육 실시, 여가 관련 인력 및 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여가기본권 관련 조례 제정 후 ‘인천시민 여가기본권 선언식’을 개최하여 여가정책 중요성과 추진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선언식으로 기획

인천시민 여가 교육 실시

- 여가 중심 사회에서 여가는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선택적 차원이 아닌 여가의 방법론적, 결과적인 차원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여가를 요구하므로 여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윤주, 2014)
 - 여가 교육은 여가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여가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때문에 여가의 진지화 및 전문성 획득을 통한 여가 경력 개발과 연관
- 기존의 여가 교육은 여가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가에 대한 인식개선, 스스로 여가를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가능력 개발로 변화하고 있음(윤주, 2014)

- 여가에 대한 관심은 생애주기별로 내외부적인 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상이 지닌 특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생애주기별 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야 함
- 여가 교육의 대상은 유아 및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대상과 더불어 장애인 등 여가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교육과 사회교육이 함께 추진되어야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음
 - 일반 인천시민 : 여가 시간의 관리 및 활용, 자기계발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직무교육 범위에 여가 교육 포함
- 생애주기별 여가 교육은 연속성·보편성을 가지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여가 교육은 학령기 이후 사회교육을 통해 확장·강화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
- 인천시민의 여가 인식개선 및 여가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민 여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천시민 여가 주간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여가 주간에 각종 이벤트 개최와 교류 프로그램 연계 추진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요 분산과 지자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봄, 가을 비수기에 2주간의 여행주간을 선정하여 각종 여행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주간 운영
- 여가에 대한 인식개선과 여가 경력의 개발을 위한 인천시민 여가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여가 교육 대상별, 여가 공간별, 여가활동 유형별 프로그램의 다양화
 - 인천시민 1인 1여가 추진과제와 연계 추진
 - 인천시민 문화여가지원센터의 주요 역할로 추진 검토

인천시민 문화여가 행복지수 개발

- 여가활동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행복의 구성 요소인 즐거움, 만족감, 의미, 균형의 개념은 여가의 본질적인 요소인 기쁨, 몰입, 삶의 의미, 일-여가 균형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함(윤소영, 2019)
- 삶의 질 지표, 행복지수 등의 지표에서 여가 영역이 주요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서도 국민여가지수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OECD의 Better Life Index(BLI) 11개 지표 : Work-Life Balance(장시간 근로자 비율, 여가 및 개인적 돌봄 할애시간) 포함
 - EU의 삶의 질 지표 9개 영역 : ‘여가와 사회적 교류’의 여가(여가량, 질, 여가에의 접근성) 내용 포함
 - 한국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12개 영역(80개 지표) : 문화여가 영역에는 여가시간 및 활용, 문화활동 등의 지표가 포함
- 윤소영(2019)은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5가지 영역(개인의 여가생활의 여건, 접근 가능한 자원,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 여가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해 지수화 작업을 통해 영역별 균형 상태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자가진단형 여가행복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함

[표 5-2] 자가진단 여가행복지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여건지수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여가시간 통제감
	여가비용	여가비용 충분도
	여가 동반자	여가동반자 여부
자원지수	공공 및 민간여가시설	여가시설 이용의 충분도, 여가시설 이용의 만족도
	자연환경	자연(야외)환경의 충분도
참여지수	여가활동 다양성	여가활동 참여 개수
	여가활동 참여빈도	여가활동 참여의 지속성과 규칙성
	여가활동 정도	여가활동 심화정도
	협상전략	자원제약에 대한 협상 전략
태도지수	여가태도	여가에 대한 인식, 여가투자방향, 여가의 영향 인식
만족도 지수	여가 만족도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도

자료 : 윤소영(2019), 여가행복지수 적용 및 활용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인천시 차원에서 시민 행복 수준을 측정해 삶의 질을 수치화할 수 있는 '시민 행복지표'를 개발하였음(이미애 외, 2019)
 - 6개 분야, 17개 영역의 세부지표 71개를 선정하였으며,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문화활동(여가생활 만족도, 문화예술 참여도), 시간활용(일과 여가의 균형 정도) 지표를 선정
- 그러나 이 지표는 인천시민의 여가 전반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므로 향후 실태조사를 근거로 인천시민 여가행복 지수를 별도 개발하고 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여가행복지수는 개인의 여가활동 수준을 측정한다는 측면 외에도 여가활동을 통한 행복 수준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여가서비스 분야의 정책 추진과 사업 수립 및 효과성 평가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윤소영, 2019)
 - 개발된 여가행복 지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천시민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고 축적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
 - 인천시 여가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여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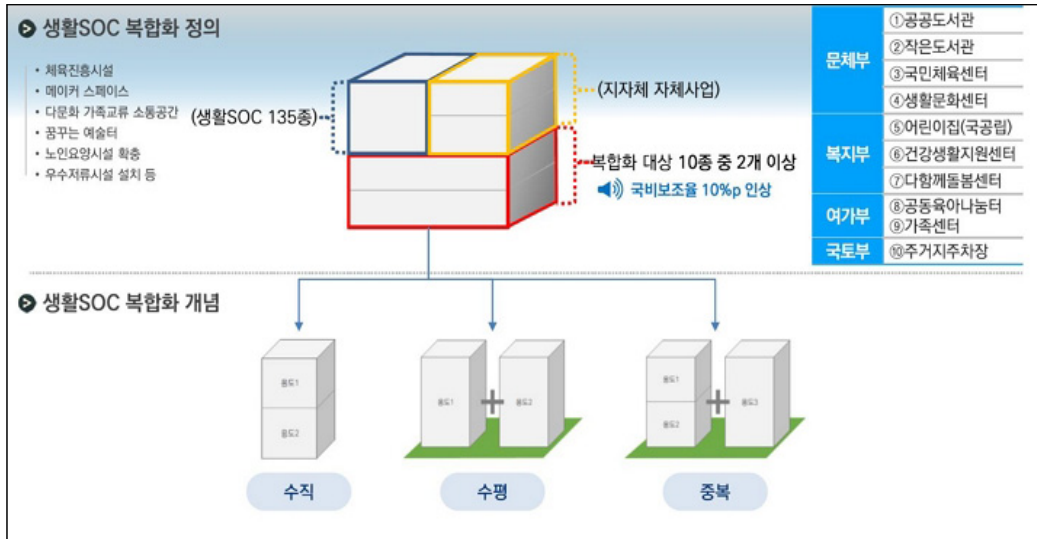
2) 인천시민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조성과 복합화

- 최근 들어 일상생활 공간이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생활형 SOC의 문화여가 공간화 및 연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
 - 생활 SOC는 '생활 사회간접자본'.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의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의미(정책위키, www.korea.kr)
 -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밀착형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토록 사업 추진
 - 또한,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 SOC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을 연계

- 생활 SOC 10종 시설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그림 5-2]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9.10.4.),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 2020년 선정결과 인천시는 14건이 선정되어 국비 302억원이 지원될 예정

[표 5-3] 인천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내용

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강화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468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계양구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148
	구림 다인어린이집 이전 신축	주거지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1,597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5,012
미추홀구	주안 스포츠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900
부평구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532
서구	청라 생활문화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50
	오류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5,050
	원당 꿈기움터 조성사업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450
연수구	청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건립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2,297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옹진군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중구	신포 지하공공보도 재생사업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625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9.10.4.),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 인천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상 공간을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및 시설의 발굴이 필요함
- 지역의 유휴공간(빈집, 폐공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별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되 복합화하여 집적의 효과와 여가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 대두
- 서울시의 경우 교통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인천시 문화여가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여가 공간을 구분하고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맞는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연계
- 인천시 여가 공간 특화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를 통해 특화전략 수립
- 기존 생활문화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공간 이용 효율화 도모

서울시 청년맞춤 콤팩트시티 사례

■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주거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 서울시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청년지원시설, 생활 SOC가 결합된 청년맞춤 콤팩트시티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조성 추진
- 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2018)의 핵심 선도사업인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 교통섬 유휴부지(4,887㎡)와 증산빗물펌프장 부지(6,746㎡)를 활용하여 청년주택(공유주택, 1인주택 등) 320세대 474명 입주 규모로 조성되며, 2020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 입주 목표
- 주요 시설은 대학생 주택, 청년지원시설(청년창업지원공간, 청년식당 등), 생활 SOC(수영장, 피트니스, 도서관 등), 방수시설(빗물펌프장) 등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조성사업 개요〉

구분	연면적(㎡)	입주 인원(명)	주요 시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14,378	198	대학생 주택,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시장, 마켓, 옥상텃밭, 수영장, 운동시설 등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14,602	276	대학생 주택, 주민이용시설(아이콘홀), 세탁방, 공유키친, 계절창고, 예술종합센터 등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조감도〉

자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보도자료(2020.3.25.), 서울시, 교통섬·빗물펌프장 위 '청년맞춤 콤팩트시티' 하반기 착공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사례

■ 생활 밀착형 시민여가 공간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연계

- 가나자와시 시민들의 예술 및 창조활동을 위해 1910년 건축된 방직공장 창고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97,000m² 규모의 공간으로 1996년 개관했으며 가나자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연극, 음악, 무용, 미술활동 등의 연습, 제작, 연수 및 성과발표 장소로 이용
- 다양한 문화공간이 집적되어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클러스터이며 크게 5개의 공방과 직인대학, 퍼포먼스관, 잔디광장, 사무동, 레스토랑, 전통가옥 사토야마의 집으로 구성
- 젊은 예술인 및 조직(예술창조재단)설립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명소로 발돋움
-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 생활화'를 모토로 시민 다수(30%이상)가 아마추어예술가로 활동
- 전통경관 보존 및 현대적 건축(21C미술관)경관사업과 도예, 공예, 칠예와 같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특히 시민예술촌의 경우 24시간 개방되는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기존의 산업유산인 방직공장을 개조, 드라마, 뮤지, 아트공방 및 극장, 공연장 구비로 시민들의 창작활동 및 문화관람의 장으로서 기능



21C미술관 앞 야외조각공원



시민(어머니)오케스트라

자료 : 양혜원(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참고로 재작성

■ 대상별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 인천시민의 생애주기별,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연령별, 여가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 조성 필요
- 인천시 인구 고령화 증가 추세와 더불어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를 계기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 여가정책 추진 필요
 - 수동적 은퇴자가 아닌 삶의 능동적 주체인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서 적극적 여가문화 향유와 참여에 대한 관심 확산

- 고령자의 경우, 여가 시간은 많으나 여가 경험 및 비용 부족으로 수동적·소극적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행복도가 낮음
- 노인복지관 등 기존 고령자 복지시설 기능 재정립(복합화)을 통한 주거지역 인근의 복합여가문화 공간 확충
-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 여가·문화 기회 확대를 위해 여가와 평생교육을 결합한 인천시 여가 학교 운영
- 고령자 대상 여가문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가칭)고령자 여가문화 코디네이터’ 양성
- 고령자의 자원봉사, 여가, 사회참여(일자리)를 연계
- 청년층의 경우 여가 제약요인이 경제적 여유 부족이 대부분으로, 청년층 유입을 위한 문화여가 정책에 있어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인천시 청년은 거주 지역 외 민간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용공연장 및 공유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유희공간을 활용한 인천시 청년, 예술가를 위한 복합 거점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2개소) :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 부평구 남광센트렉스 운영 중
 - 인천 청년 여가문화 아이디어 공모 및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여가문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인천 여가문화 콘텐츠 공모 사업’ 추진
 - 섬과 연계한 아웃도어 레크레이션형*, 생활권 연계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
 - 청년들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동 장소로서 공유 공간(공유도서관, 공유주방, 공유작업실) 확대
 - 여가, 문화예술 관련 창업지원 및 문화적 사회혁신 실험 사업 추진

교류 및 융합형 여가 프로그램 지원

- 인천시 인구구조가 고령화 계층 및 1인 가구의 증가, 다문화 관련 인구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계층 간, 대상간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 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역 내 커뮤니티와 연계한 문화여가,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를 연계한 융합형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증가
 - 세대 간 교류, 지역 간 교류, 문화권별 교류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을 통해 1인 가구, 직장인 등 기존에 동호회나 공동체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배제되었던 계층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율 증가
 - 도서지역, 산업단지, 원도심 등 권역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생활문화협동조합 사업 등 사회공헌형 문화여가 프로젝트 지원(인천광역시, 2020.5)
 - 인천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와 생활문화공동체 간 교류행사인 생활문화축제의 활성화를 통한 여가교류 페스티벌 개최
 - 서울시의 경우 중장년 대상 문화여가 교류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사례

■ 중장년에게 적합한 문화·예술, 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는 50+캠퍼스

- 50+캠퍼스에서는 50+세대(만 50~64세)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규과정(생활·문화·기술과정) 및 기획과정(시민제안 교육과정) 운영
 - 50+캠퍼스 정규과정은 생애전환과정, 일·활동탐색과정, 생활·문화·기술과정 등 3개 분야로 구성
- 생활·문화·기술과정은 2019년 생활목공교실, 합창, 연극, 요리 등 60개 과정에 1,080명 참가
- 기획과정은 50+세대가 직접 콘텐츠를 발굴·개설하는 공모사업으로 'N개의 교실' 및 '50+강사가 간다' 운영
 - 'N개의 교실'은 캠퍼스 내 개설, '50+강사가 간다'는 지역사회 내 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019년 50+캠퍼스 주요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수	주요 프로그램
50+캠퍼스 정규과정 (생활·문화·기술과정)		60개	• 생활기술(생활목공교실 등), 문화예술(합창, 연극, 사진 등), 중년남성요리교실(이탈리아 요리, 혼밥요리 등)
기획과정	N개의 교실 (캠퍼스 내)	77개	• 여행다큐 심화과정, 드론으로 축구하기, 그림책으로 소통하기, 발트해 세도시 인문이야기 등
	50+강사가 간다 (지역사회 내 공간)	11개	• 시민 낭독극장, 유튜브 영상 제작, 미술사, 댄스 교실, 책 출판 강좌 등

자료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4.2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19 연차보고서

인천시민 1인 1여가 지원

- 인천시민의 여가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인천의 도시 특성과 연계하여 인천시민의 여가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민이면 맞춤형 여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의 근거 마련 필요
- 인천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섬, 해양(바다)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유형을 개발하고 이를 여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
 - 섬을 활용한 힐링형 여가 프로그램(옹진군 섬 대상)
 - 바다를 활용한 인천시민 해양레저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요트체험 등)
 - 둘레길, 나들길을 연계한 자연친화형 여가 프로그램
 - 음악관련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인천시민 음악인 프로젝트
- 인천시 특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여가 교육과 연계하여 기본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하여 인천시민 여가 경험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함
- 여가바우처, 여가패스 등으로 지원하여 여가경력제도와 연계 검토

3) 인천시민 문화여가 생태계 조성

인천시민 문화여가 온라인 플랫폼 개발

- 인천시민의 여가 정보접근성 확대와 서비스 편의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한 온라인 정보 플랫폼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문화여가 관련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정보는 개별 시설에 대한 접근으로 가능할 뿐 통합된 정보 플랫폼은 부재한 실정
- 여가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천시 여가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 정보, 예약 서비스 등을 연계한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 단순한 홈페이지의 개념이 아닌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확대(프립 사례 참조)
 -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앱을 통한 서비스로 확대 추진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Frip)' 사례

■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 대표적인 소셜액티비티 플랫폼인 프렌트립(이하 프립)은 액티비티를 운영할 수 있는 호스트와 액티비티를 소비하고자 하는 참가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액티비티, 원데이 클래스, 소셜클럽, 여행 상품 등을 탐색부터 결제, 참여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각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제안하면,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원하는 지역, 날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사람들과 여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험활동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 서비스
- 특별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
- 기존 스포츠 클럽이나 문화 강좌들과는 다르게 1회성 이벤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용품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이 적어 최근의 여가행태에 적합한 여가서비스



자료 : 최은희(2018.9), 여가행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여가서비스의 등장, 산업경제 2018년 9월.

■ 무장애 여가 환경 조성

- 고령층,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여가 환경과 모든 사람의 여가 향유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인천시 무장애 여가 환경 및 여가서비스 기반 조성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시 여가 공간에 대한 무장애 여가 환경 실태조사와 더불어 열린 여가 공간 및 시설 조성
- 여가취약계층에 대한 여가활동의 지원 확대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여가바우처 제도 시행
 - 이동서비스 지원 및 관련 정보접근성 강화
 -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여가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문화여가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인천시민의 문화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가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추진 필요
 - 여가관리사, 여가코디네이터 양성 : 여가 프로그램 상담, 여가 기획 및 비용 산정, 여가 시설·장비·프로그램 예약 및 이용 서비스, 여가 현장 가이드, 여가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등
 - 청년 문화활동가, 문화전문인력, 청년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및 여가산업형, 문화예술형 일자리 연계 지원
 - 문화기획, 여가 코디네이터,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등 기획가 양성
 - 지역 생활권 내 거주하며 활동하는 문화예술 및 공동체 분야 전문가(전공자·실무자)를 생활문화매개자로 양성·지정·위촉하여 주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인천광역시, 2020.5)

4) 인천시민 문화여가 제도적 기반 강화

인천시민 문화여가 수요 및 실태조사

- 인천시민의 여가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천시민 문화여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DB화하여 활용토록 해야함
-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문화예술 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거시적 실태 파악에 그쳐 지역차원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에서도 지역 차원의 미시적 여가 욕구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단위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
 - 인천시민 여가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도화하고, 2년 단위 조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여가활동 실태와 변화수준에 대한 파악이 필요
 - 인천시민 문화여가행복지수 개발의 기초자료적 성격으로 활용 및 연계

인천시민 여가경력제도 도입

- 여가는 개인의 일생동안 지속적인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전의 경험은 다음 여가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화, 중단, 새로운 선택과 같은 순환적인 구조가 나타나게 되며, 이때 여가 교육은 여가 기술 습득 및 인식의 개선을 통해 여가 경험 중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윤주, 2014)
- 많은 사람들이 청년기나 중장년기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은퇴 후, 또는 노년기에 여유 있는 삶이 보장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이나 여가생활을 희망하지만, 나이가 들어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으며, 여가도 경력(leisure career)이 필요함(윤소영, 2018.3)
 - 인천시민의 여가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초기부터 여가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가경력 관리가 필요
- 인천시민의 여가활동 참여 및 자원봉사 참여 활동을 포인트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여가경력으로 인정하고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여가경력관리를 통해 여가활동의 지속성 담보와 더불어 교류를 통한 사회관계 속에서 인천시민의 문화여가 행복지수 관리도 가능

인천시민 문화여가 지원센터 운영

- 인천시민의 여가 기회 확대와 접근 가능한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여가 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여가 지원센터는 인천시민의 여가정보 및 여가편의 제공, 여가정보 플랫폼 운영,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여가 인식개선 및 시민대상 여가 교육 실시 등의 역할
 - 운영방식은 신규 센터를 설치하거나, 기존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에 여가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인천시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총 10개소로 남동구, 서구, 강화군을 제외하고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점으로 지역 내 문화여가 공간 및 시설과 연계 필요

여가친화도시 선정 지원

- 인천시민의 여가 향유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기반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인천 여가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공모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인천시 차원에서 인천시민의 여가권을 중요한 정책가치로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에서는 지역구민의 ‘일과 여가’의 균형이 가능한 여가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가친화도시를 선정·지원할 계획임
 - 예비사업 3년, 본사업 5년 간 총 30개 도시 지정 예정
 - 평가기준 : 여가참여기반, 여가정책 수준 등
 - 지원내용 : 여가친화적 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인천시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시 이 내용을 반영하여 공모사업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문화 및 여가 관련 관계자 중심의 워킹그룹 형태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문화여가

참고문헌

■ 단행본/연구보고서

- 강신겸(2020.6.2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관광정책. 정책토론회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뉴딜, 토론회 자료집, 45-56.
- 광주문화재단(2017).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 보고서.
- 김난도·전미영·최지혜·이향은·이준영·김서영·이수진·서유현·권정윤(2019). 트렌드 코리아 2020. 서울 : 미래의창.
- 김정훈·이다겸(2018.2.28.).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이슈 & 진단, 310, 1-25.
- 김춘남 외(2015). 어르신 문화즐김의 다양화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김현아(2016.4.28.). 노년기 여성의 활동적 삶을 지원하는 해외 사례들. 젠더 브리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형균(2019).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11, 5-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인·김연진(2018).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2018). 인구변화에 따른 소비시장 新풍경과 대응방안 연구.
- 송민혜·홍은선·이병길·김영석·정건화·민보람·박선영(2019). 해외 50+정책 사례 분석.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양혜원(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소영(2016).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소영(2018.3), 여가도 경력이 필요하다. 나라경제 2018년 3월호, KDI경제정보센터.
- 윤소영(2019), 여가행복지수 적용 및 활용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주(2014), 한국형 여가 교육 모형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노션월드와이드(2019.12.). 대한민국 직장인 여가 트렌드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 이미애 외(2019), 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연구원.
- 이소영·이윤경·김세진(2019.9),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희(2020.6.16.). 키워드로 보는 2020-2024 관광트렌드 : NEXT TRAVEL. 문화·관광 인사이트, 14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원희·박주영·조아라(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임학순(2020.6.2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정책토론회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뉴딜, 토론회 자료집, 21-43.

정민(2019.1.25.). 2019년 국내 10대 트렌드. 경제주평, 19(3), 현대경제연구원.

최은희(2018.9), 여가행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여가서비스의 등장, 산업경제 2018년 9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전망 및 유망기술, 미래예측 브리프, 1.

한국관광공사(2019.12.27.). 2020년 세계여행 트렌드, KTO 포커스,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미래전략TF(2020.6.5.). 코로나 19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과제. 문화·관광 인사이트, 14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홍준표(2020.1.23.).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 경제주평, 20(3), 현대경제연구원.

KDI 지식경제연구부(2019.2.26.). 문화예술산업연구 해외출장 보고서.

■ 관련 법

노인복지법(제17199호). 2020. 7. 8.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제17209호). 2020. 7. 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제6082호). 2019. 2. 20. [일부개정]

■ 행정자료

경기도(2017.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18.3.15.).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2018.8.31.).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계획).

관계부처 합동(2019.11.13.).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

관계부처 합동(2019.11.6.).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제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관계부처 합동(2020.3.26.).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2020.6.25.).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광주광역시(2017).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2020). 2020년 청년정책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8.6.).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0.2.).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법무부(2018.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보건복지부(2016.12.).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11.).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부산광역시(2019.7.3.). 부산시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2020.3.). 제3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16~'20) : 2020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서울특별시(2015).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201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 서울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9). 제2차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세종특별자치시(2017.3.).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결과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2019.10.). 세종형 고령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인천광역시(2015).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17.6.).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인천광역시(2018).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19).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인천광역시(2019.11.).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인천광역시(2020). 2020년 주요업무계획.

인천광역시(2020.1.). 인천 2030 미래이음.

인천광역시(2020.5.).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인천광역시·인천문화재단·인천연구원(2020.6.).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수립 방향 연구.

인천연구원(2020).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2.).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제주특별자치도(2017.11.).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201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2019~202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2017.1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통계청(2003). 고령자 통계.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 주민현황.

보도자료/신문기사

경기도 보도자료(2020.2.20.). 1인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 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9.10.4.),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대구광역시 보도자료(2017.1.17.). 『2020 청년희망 대구』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0.6.10.). 제주도, 인구정책 5대 분야 144개 사업 본격 시행.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17.12.14.). 빅데이터로 살펴본 17/18 여행 트렌드는 S.T.A.R.T.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18.12.17.). 소셜 빅데이터로 살펴본 2019 국내여행 트렌드는 B.R.I.D.G.E.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lis.go.kr

정책위키 홈페이지 www.korea.kr

Age & Opportunity 홈페이지 www.ageandopportunity.ie

Age-friendly world 홈페이지 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

Generation Games 홈페이지 www.generationgames.com

KREATIVHAUS 홈페이지 www.kreativhaus-berlin.de

Meetup 홈페이지 www.meetup.com

OECD 홈페이지 oecd-opsi.org/innovations/bonus-cultura-18app

Pass Culture 홈페이지 pass.culture.fr

ZAWP 홈페이지 www.zawp.org

시정밀착형 보고서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

발 행 인 이용식

발 행 일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처 인천연구원

인 쇄 처 032디자인(주)

I S B N 978-89-5678-904-0 9333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

© 인천연구원 20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